

보령 관당리

황의호



보령문화원

보령 관당리

황의호



보령문화원

발간사 / 황의호 축사 / 김동일

1. 자연 환경	3
1) 위치와 영역	3
2) 지질	3
3) 지형	5
2. 인구와 가옥, 마을	9
1) 인구	9
2) 가옥	12
3) 마을	17
3. 성씨와 입향	27
1) 경주김씨	27
2) 김해김씨	29
3) 나주나씨	30
4) 의령남씨	30
5) 밀양박씨	32
6) 무송윤씨	34
7) 광산김씨	36
4. 문화 유적	37
1) 고인돌	37
2) 관당리 석관묘(石棺墓, 돌널무덤)	40
3) 토진곳 목장성	42
4) 해창(海倉)	49
5. 역사	52
1) 일제강점기의 징용	52
2) 6.25 사변	53
3) 인천상륙작전과 무창포	53
4) 제2연평해전과 한상국 상사	55
5) 이장 명단	58
6) 각종 비석	62
7) 굴 떠려 갔던 배 전복 사건	69
6. 지명	74
7. 민속	95
1) 성황낭	95
2) 당제	96
3) 무속	98
4) 뱃고사	100

5) 독살제	100
6) 상여	101
7) 흉년의 적응	102
8. 종교 생활	103
1) 무창포 침례교회	103
2) 무창포 장로교회	105
3) 무창포 제일교회	108
9. 오래된 나무	109
1) 각굴 정자나무	109
2) 각굴 감나무	109
3) 무창포 윗말골 왕소나무	109
4) 양알 느티나무	110
5) 덕뫼 느티나무	110
10. 수산업	111
1) 독살	111
2) 어업	117
3) 양식업	124
4) 무창포 어촌계	124
11. 석공업	131
12. 개발 사업	132
1) 신작로의 개통	132
2) 무창포항	133
3) 무창포해수욕장	138
4) 서해관광개발주식회사의 분쟁	144
5) 무창포해수욕장 조성사업	145
13. 축제	153
1)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153
2)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155
3)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155
4)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	156
14. 공공 기관	157
1) 관당초등학교	157
2)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160
15. 마을의 기능체	163
1) 식당	163
2) 숙박업소	164

발 간 사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마을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마을에 수십 명에 이르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 개 읍면에 불과 수십 명에 이르고, 수십 명의 두레꾼이 일하던 들판은 트랙터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역사나 문화 등은 잊혀지고 있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보령문화원에서는 보령시 관내에 있는 모든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여 책으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승되기는 어렵지만,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곧 우리민족의 역사이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조사하여, 책으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웅천읍 관당리, 남포면 창동리, 주산면 화평리, 오천면 소성리, 미산면 늑전리입니다. 그중 웅천읍 관당리는 많은 내용들이 조사되었습니다. 구역도 넓고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무창포항은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어 한때는 대천항보다도 더 융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또한 대천해수욕장보다도 역사가 깊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955년 1월 9일에는 관당리 주민들이 황죽도로 굴을 따라 갔다가, 폭풍으로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20여 명이 죽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문화유적도 많았습니다. 고인돌에서부터 청동기 시대 돌널무덤, 고려시대 목장성, 조선시대 해창 등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록하다보니까, 관당리 마을지는 부득이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이 단행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보령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하다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관당리의 자연환경과 역사, 민속 등을 열심히 조사하였으나, 조사한 것보다는 조사하지 못한 것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관당리에 사시거나 사셨던 분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관당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일

보령문화원장 황의호



축 사

우리의 삶 자체가 역사이고, 마을의 소중한 역사를 후대에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임에도 마을의 역사와 문화 등은 쉽게 잊혀져가고 있고, 지역의 마을 역사 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관당리 지역사를 한눈에 조명할 만한 귀중한 마을지 발간 소식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마을지는 자연환경, 문화 유적, 지명,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통문화와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침서로 활용되리라 기대가 앞섭니다.

본 마을지 발간이 사라져가는 우리 고장의 애틋한 지역사 발전에 귀한 토대이자 견인차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 책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고장 이모저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관당리 마을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발간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보령문화원 황의호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일

보령시장 김동일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웅천읍 관당리 마을의 문화유적, 역사, 신앙 등 향토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보령 관당리」마을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전통문화의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향토문화 창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유서 깊은 책자 발간에 애써주신 대천문화원 황의호원장님과 발간에 도움말을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웅천읍 관당리는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과 주꾸미 도다리 축제,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관광객이 사계절 끊이지 않는 보령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은 보령의 향토문화를 조사한 자료로 후손들에게 아주 소중한 역사로 전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 발전되어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발간되는 「보령 관당리」책자가 우리 고장의 문화와 독특한 향토문화를 바로 알리고 보령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값진 한 권의 책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책자를 발간하기 까지 활발한 조사·연구 활동을 펼친 황의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일

보령시의회 의장 박 금 순



남포현 지도(1872)



관당리 항공사진(1947)



관당리 항공사진(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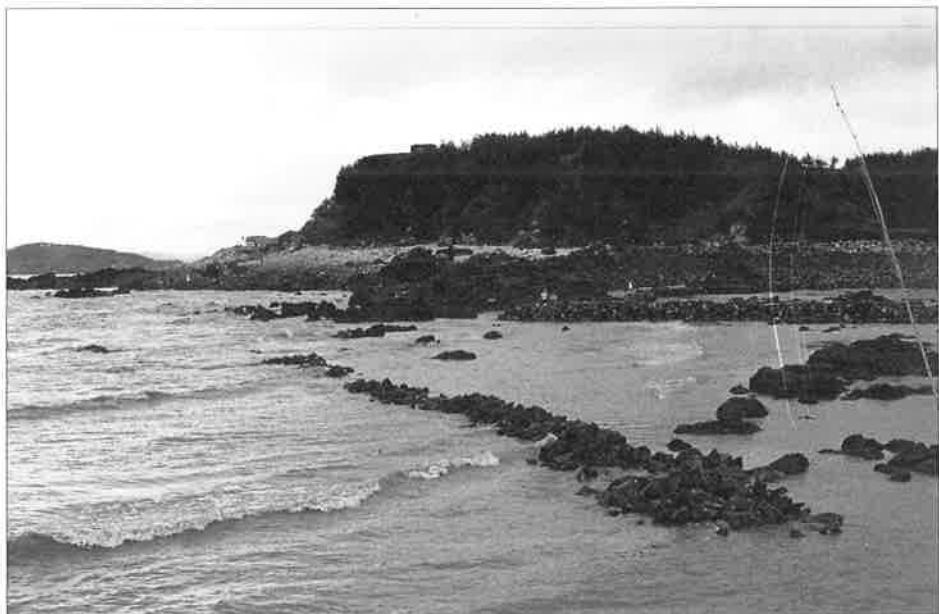
관당리 항공사진(북쪽부분, 1966)



관당리 항공사진(남쪽부분, 1966)



관당리 항공사진(석대도, 1966)



유수물(김기섭님 제공사진, 1970년대)



석대도의 마당바위(2019.3.23.)



무창포해수욕장(1989)



무창호항(1989)



벼락재에서 발굴된 돌널무덤(1999)



김지연님 가족사진(1952)



노태우대통령 방문(1988)

보령 관당리



1. 자연 환경	3
2. 인구와 가옥, 마을	9
3. 성씨와 입향	27
4. 문화유적	37
5. 역사	52
6. 지명	74
7. 민속	95
8. 종교 생활	103
9. 오래된 나무	109
10. 수산업	111
11. 석공업	131
12. 개발 사업	132
13. 축제	155
14. 공공 기관	159
15. 마을의 기능체	165

1. 자연환경

1) 위치와 영역

보령시 응천읍 관당리는 보령시 응천읍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은 장군배·매봉재·할미재를 경계로 남포면 월전리와 접하고, 동쪽은 응천읍 죽청리·구룡리, 남쪽은 응천읍 독산리와 접한다. 서쪽에는 관당리에 속하는 석대도가 있다. 1개면 3개리와 접하고 있다.

동서로 길쭉하여 동서 약 4km, 남북 약 2.5km이고 중앙지역은 무창포 마을이다.

관당리의 경위도상 중심(무창포항)은 대략 북위 $36^{\circ} 14' 55''$ 이고 동경 $126^{\circ} 32' 12''$ 이다.

관당리는 행정 중심지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에 항구와 해수욕장이 함께 개발되고, 장항선 철도가 근처(약 7km)로 지나가 발전하였으며 근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과의 시간 거리가 가까워져 크게 발전하고 있다.

2) 지질

관당리의 지질은 보령지역의 서남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변성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층의 암석은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화강편마암으로 낮은 산지나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관당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당리에는 이 화강편마암층을 뚫고 소규모로 관입한 미정질화강암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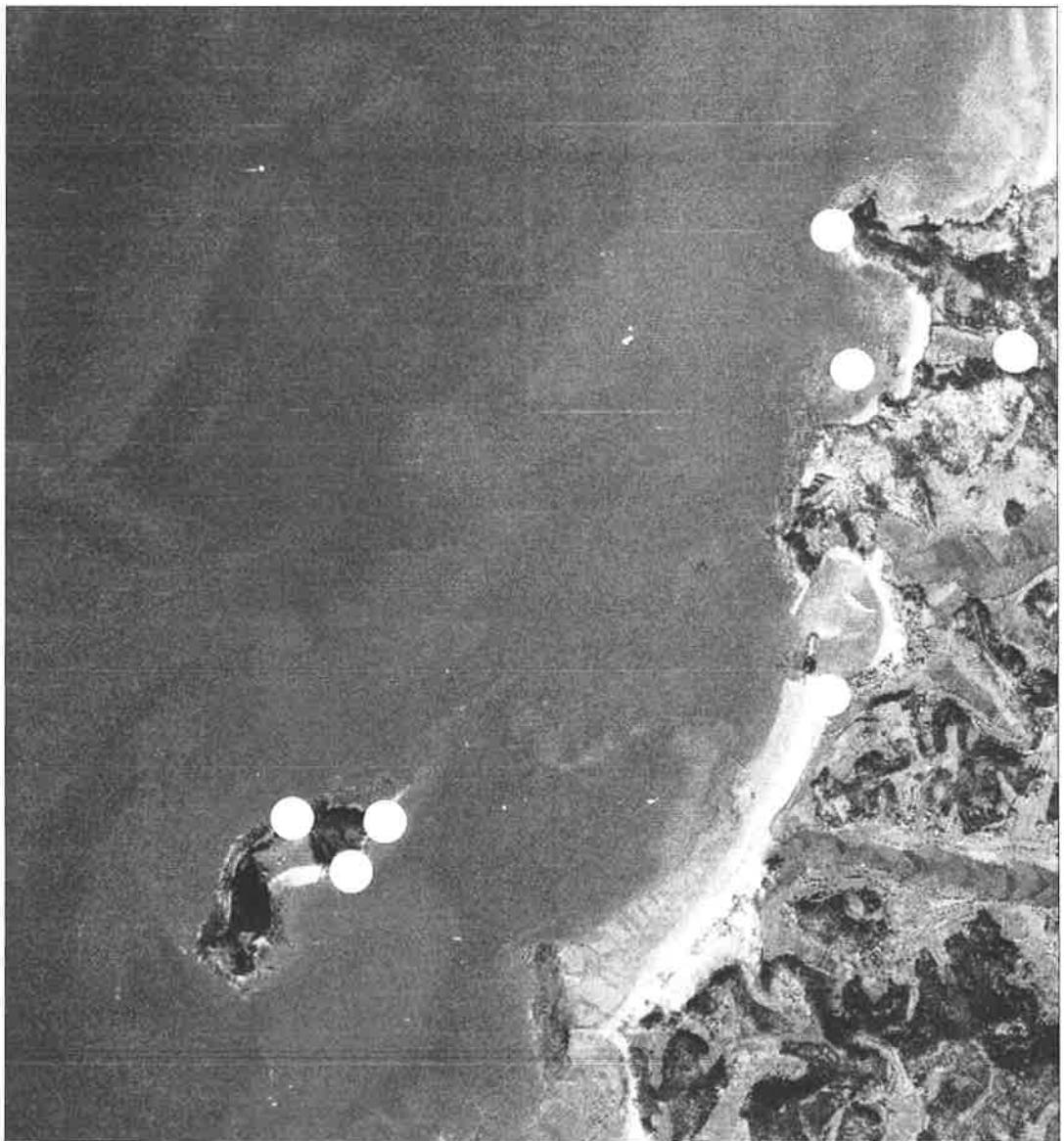
이 미정질화강암을 보령지방에서는 애석(艾石)이라고 부르는데, 풍화에 강하고 흰색을 나타내어 일찍부터 비석의 재료로 개발하였다. 보령시 응천읍 동부지역의 중생대 퇴적암 지대에서 산출되는 흑색사암인 오석은 300여 년 전부터 유명하여 왕릉을 조성할 때 비석재료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유명한 사대부들이 비석 재료로 사용하였다. 비석을 만들 때 비신(碑身)은 검은 오석으로 만들고, 흰색인 애석으로 갓석과 좌대를 만들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예부터 관당리 지역의 애석(미정질화강암)이 비석 재료로 인기가 있어 개발한 것이다.



관당리의 위치

관당리에서 애석이 산출되는 곳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곳이어서 처음에는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채취하기도 수월하였다. 그러나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조간대 상에 있는 노두는 없어지게 되어 지하에 있는 애석을 개발하게 되었다. 썰물 때 바닷물을 퍼내고 애석을 채취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애석을 캐던 곳을 지금도 ‘독구데기’라고 부른다.

현재 관당리에서 미정질화강암(애석)의 노두가 관찰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특히 석대도에는 지질구조가 복잡하여, 초입에서 끝봉에 이르는 여러 곳에서 노두가 발견된다.



관당리의 미정질화강암(애석) 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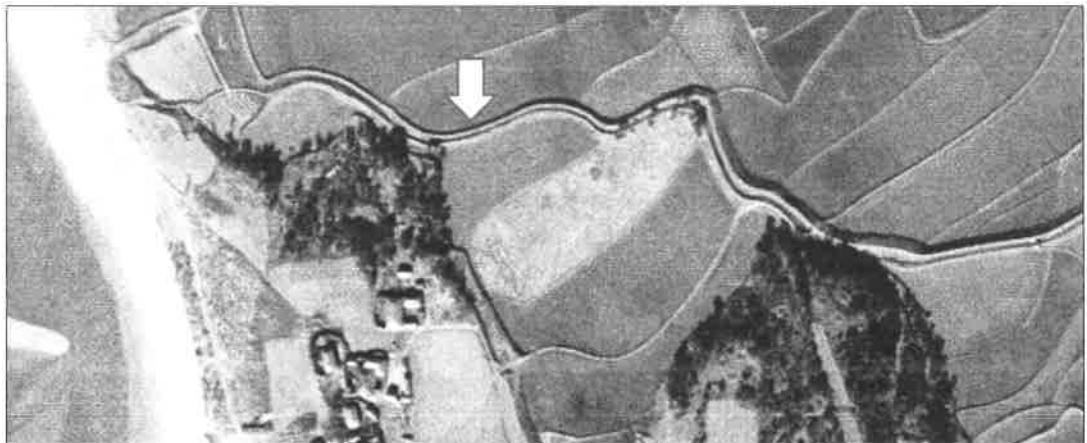
3) 지 형

(1) 개 관

관당리의 지형은 동쪽이 산지이고, 서쪽이 바다이므로 하천은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동쪽의 산지는 할미재로 웅천읍 구룡리·죽청리, 남포면 월전리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179.9m에 이른다. 이 산지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 주변에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였다.

또한 남쪽에는 태봉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은 간드리골이 있어 일찍부터 논으로 개척되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였다. 또한 관당리 해안에는 사구와 사빈이 발달하여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서쪽에 있는 석대도는 간조때 육지와 연결되는 육계도(陸繫島)로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2) 각굴의 천정천



각굴 마을 앞에 있던 거대한 천정천(1966년 항공사진)

각굴 마을 앞 들에는 양쪽 산기슭으로 거대한 천정천이 만들어져 있었고, 주민들은 이것을 ‘새뚝’이라고 불렸다.

관당리 각굴 마을에 언제부터 주민이 거주하고 농지를 개척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각굴 마을 안에 고인돌이 있으며, 벼락재 도로 개설공사 때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돌널무덤이 여러 기 발굴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는 확실하게 주민이 거주하고 농지도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선인들은 논을 만들기 위해 우선 하천을 놀려내었다. 지형 상으로 보면 늘 가운데로 하천이 흘렸을 것이 분명한데, 하천이 흐르던 곳을 중심으로 논을 개간하고 하천은 양쪽 산기슭으로 돌려내었다.

관당리 각굴 마을의 경우, 하천을 골짜기의 북쪽 산기슭과 남쪽 산기슭으로 둘려내었다. 평상시에는 논을 통하여 물이 흘러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산 기슭으로 난 하천을 통해 배수되는 것이다. 이때 산기슭의 인공 하천에는 많은 모래가 쌓여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제방을 높여 홍수를 예방하였다. 제방은 점점 높아지고 커져 소위 천정천(天井川)을 이루었다.

각굴 마을 남쪽에 있던 천정천의 경우는 특히 높아 5~6m에 이르렀다. 홍수 때에 제방이 터지면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공동으로 작업하여 복구하였고, 위험한 곳에는 홍수 때 방비를 단단히 하였고,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옛 길은 이 천정천의 제방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각굴마을 남쪽, 양알 마을로 통하는 도로는 천정천의 제방이었다.

이런 천정천(새뚝)은 간드리들에도 있었으나, 각굴 마을의 천정천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골짜기가 작았기 때문이다. 1989년 경지정리로 천정천은 모두 사라졌다.

(3) 사구

① 무창포 사구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에 있는 길이 500여m, 최대 폭 100여m에 이르는 사구이다. 북쪽에 있는 산줄기가 바다로 돌출하여 암석해안을 형성하였고, 남쪽에는 작은 섬(당산, 원래 섬이었으나 사구로 연결되었음)이 돌출해 있어 그 사이에 반달 모양으로 형성된 사구이다. 사구 안쪽(동쪽)에 있는 습지는 논으로 개간되어 이용되었으나, 가뭄 때에는 농업용수 때문에 곤란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북쪽 사구의 서쪽에 방파제를 쌓아 어항으로 개발하였다. 이때 사구의 남쪽 부분은 어업조합 등 기능체가 들어와 취락이 형성되었다. 사구의 북쪽 부분은 바람의 힘에 되는 동쪽에 취락이 들어서 있다. 가옥의 대부분은 대나무 숲을 조성하여 모래 바람을 막았다.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사구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사구의 방풍림

사구와 사빈 사이에는 축대를 쌓고, 축대 위로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사구의 바다 쪽 급 경사지에는 1960년대에 아카시아 숲과 해송 방풍림이 조성되었다. 사구의 상부는 밭으로 경작되기도 한다. 사구 식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모래만 쌓여있을 뿐 원형을 잃은 사구이다.

② 무창포해수욕장 사구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을 이루고 있는 길이 1.2km, 폭 70여m의 사구이다. 외 해로 열려있어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곳이다. 바다로 통하는 두 개의 골짜기 입구에 사구가 형성되었고 골짜기는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과거에는 사구와 농경지 사이에 습지를 볼 수 있었는데, 해수욕장의 개발로 모두 매립되었다.

조간대의 깊은 곳은 바위로 이루어지고, 해안 쪽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사빈과 사구를 이루었다. 사빈과 사구 밑에는 황갈색의 미립 퇴적물 층이 있어 지난 간빙기의 퇴적물로 보인다.

해수욕장 북쪽에 긴 방파제가 축조되고, 남쪽에도 섬과 연결하는 축대가 축조되었다. 근래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인지, 방파제의 축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빠른 사빈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부사방조제의 축조로 인한 모래 공급량의 감소, 남포방조제 축조로 인한 유속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창포해수욕장은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대천해수욕장보다도 먼저 개발되었다. 초기의 개발은 사구 위에 여름철 거주를 위한 건물을 짓는 정도였고, 여름에만 거주하는 형태였으나, 1990년대 구획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사구의 원형을 훼손하였다.

이때 사빈과 사구 사이에 수직의 시멘트 구조물을 넣고 해안도로를 건설하였는데, 그 것 때문에 모래의 유실이 심하다고 지적되어 현재는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 대체하였다. 과거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어 바람에 날려 온 모래가 육지에 뇌석되기는 하나 폭풍 때 육지의 모래가 바다로 되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무창포해수욕장 사구는 과거에도 남쪽 부분에 약간의 아카시아나무와 해송이 식재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지는 못했다. 해수욕장으로 일찍부터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사구

현재 무창포해수욕장에서는 사구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4) 석대도

석대도는 관당리 마을 서쪽해안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섬은 남북으로 긴 모양인데 높이 30m 내외의 작은 봉우리 3개가 있고, 북쪽과 중앙에 있는 봉우리 사이에는 해발고도 10여m의 비교적 넓은 평지가 발달하여 과거에는 밭으로 이용되었었다. 가운데 봉우리의 동쪽 해안에는 좋은 샘물이 있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고, 주민이 거주하였다. 주민은 4가구까지 거주하다가 1970년대 초 2가구가 남아, 정부의 독가촌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무창포로 이주하였다.

석대도는 간조 때 무창포 해안에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육계도(陸繫島)이다. 무창포 해안에서 석대도의 북쪽 끝에 이르는 구간은 산의 능선과 같은 구간으로 간조 때에는 길처럼 드러나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능선 중간의 높은 지역을 '목'이라고 부르는데 무창포 해안과 목에 이르는 구간은 '밧목'. 목에서 석대도에 이르는 구간을 '안목'이라고 한다.

밧목은 저조위가 86cm이하로 내려가면 건널 수 있고, 안목은 이보다 약간 깊다. 석대도에서 무창포 해안으로 나올 때, 안목을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면 밧목도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다. 석대섬으로 건너가는 길, 즉 목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데 썰물은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들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무창포 해안과 석대도를 연결하는 길(2015.2.20.)

2. 인구와 가옥, 마을

1) 인구

(1) 관당리의 조선시대 인구

조선 초기, 즉 15세기의 대표적인 통계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이다. 당시 보령현은 365호 1213명, 남포현은 180호 949명으로 나타나 있어 15세기 당시 보령지방에는 500여 호, 2,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대략 18세기 중후반 호구통계 자료로는 영조 35년(1759) 통계인 여지도서와 정조 13년(1789) 통계인 호구총수가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보령지방에는 1만여 가구에 4만여 명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관당리의 인구가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여지도서에 의해서만 추정해 볼 수 있다. 호구 총수에는 면별 인구 수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지도서에 나와 있는 관당리 지역의 인구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지도서 남포현 웅천면¹⁾의 마을별 가구 및 인구수

면명	마을명	가구	인구수			마을명	가구	인구수		
			남	여	계			남	여	계
藍浦熊川面	龍臥里	30	57	84	141	廣巖里	17	31	45	76
	花望里	58	120	152	272	內化里	23	43	41	84
	德山里	40	87	91	178	菁洞里	69	111	140	251
	看入里	49	113	140	253	九龍里	51	75	102	177
	峯伍峙里	28	54	62	116	長佐洞里	32	40	78	118
	獨山里	93	150	242	392	沙斤川里	106	252	190	442
	大箙里	78	138	250	388	계	755	1420	1833	3253
	小箙里	81	149	216	365					

1) 현재의 웅천읍 지역이 아니다. 현재 웅천읍의 서부지역이다.

여지도서에 나와 있는 현재의 웅천읍 관당리에 속한 마을은 德山里(덕산리), 看入里(간입리)이다. 덕산리는 관당1리에 속한 ‘덕메’의 한자 표기이고, 간입리는 관당3리인 간드리의 한자 표기이다. 현재의 관당리 지역과 관계되는 마을은 덕산리와 간입리 뿐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당 1리에 속하는 덕메 마을과 각굴마을 그리고 관당2리에 속하는 무창포 마을이 모두 덕산리에 속하고, 현재 관당 3리에 속하는 간드리 마을이 간입리 마을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마을의 인구를 합하면 89가구에 총 431명이 거주하였다. 이는 웅천면 인구 3253명의 약 13%에 해당되고 남포현 인구 15,943명의 2.7%에 해당된다. 이는 이웃 해 있는 웅천읍 구룡리 지역의 인구 567명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인구가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의 인구

① 인구와 가구

주민등록에 의한 관당리의 인구와 가구

연도	세대수	인구(계)	남	여	연도	세대수	인구(계)	남	여
2019	435	796	424	372	2011	308	677	352	
2018	428	787	414	373	2010	302	677	354	
2017	406	774	403	371	2009	318	734	377	
2016	388	763	397	366	2008	311	717	375	
2015	358	725	383	342	2007	295	705	362	
2014	355	730	382	348	2006	299	709	358	
2013	334	719	372	347	2005	284	679	349	
2012	315	681	347	334	2004	279	700	36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현재 주민등록상의 관당리 인구는 796명, 세대수는 435세대이다. 혼자 사는 세대가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고, 260여 년 전의 통계인 여지도서에 기록된 431명, 89세대보다 세대수는 4.9배 증가했고 인구는 1.8배 증가하였다. 가구당 인구수가 크게 줄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관당리 인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비가 114로 여자 수에 비하여 남자의 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 노인층에서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젊은 인구층에서 남자가 월등히 많아 독신 남성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연령별 인구(2019년 2월 말 현재)

연령	관당1리			관당2리			관당3리		
	총수	남자	여자	총수	남자	여자	총수	남자	여자
0-4	1	1	0	4	4	0	2	1	1
5-9	2	1	1	3	1	2	10	6	4
10-14	3	2	1	2	1	1	8	2	6
15-19	2	1	1	12	8	4	18	11	7
20-24	6	3	3	17	13	4	17	11	6
25-29	6	4	2	11	5	6	8	6	2
30-34	4	3	1	10	8	2	7	4	3
35-39	5	3	2	13	9	4	13	10	3
40-44	9	6	3	18	15	3	20	9	11
45-49	18	12	6	29	18	11	31	16	15
50-54	18	10	8	34	22	12	37	19	18
55-59	17	9	8	24	15	9	46	25	21
60-64	29	14	15	25	14	11	45	22	23
65-69	20	10	10	18	7	11	20	7	13
70-74	14	6	8	13	4	9	18	7	11
75-79	12	6	6	17	5	12	14	7	7
80-84	11	4	7	13	4	9	13	4	9
85-89	6	1	5	2	0	2	7	3	4
90-94	2	0	2	5	1	4	3	0	3
계	185	96	89	270	154	116	337	170	167

위 표와 같이 관당리의 연령별 인구는 심한 변화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 등 인구 정책과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의 연령별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는데, 보령지방은 전국적인 변화보다도 심한 변화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인 관당리는 더 극심하다.

2017년 말 기준 보령시의 14세 미만 인구는 11.13%인데 비하여 관당리의 14세 미만 인구는 단 35명 4.42%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보령시가 22.9%인데 비하여 관당리는 26.26%에 이른다. 14세 미만 인구가 보령시 평균보다 크게 작고, 65세 이상 인구는 보령시 평균과 비슷한 것은 관당리의 인구가 청장년층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가옥

관당리 마을에 있는 가옥의 대부분은 보령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一자형이고 앞에 뒷마루가 있는 형식이다. 비교적 부자인 집은 부엌 1칸에 방 3칸을 두어 마지막 방을 사랑방으로 사용했지만, 형편이 보통인 집은 부엌 1칸에 방 2칸을 두었다. 말 그대로 초가 3칸인 것이다. 그리고 무창포 아래뜰에는 무창포항이 개발되면서 술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의 가옥이 만들어졌다.

관당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가 3칸집을 소개하고, 정성기님의 기억을 되살려 무창포항에 있던 술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김정해씨 가옥

웅천읍 관당리 734번지, 606호 지방도 옆에 있는 북향의 가옥이다. 북향이어서 추웠겠지만, 지형과 도로 여건상 북향으로 건축하였다. 원래는 초가 3칸으로 건축하였으나 여러 번 달아내어 공간이 크게 넓어졌다. 아마도 가족이 늘어나고 성장하면서 방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가 3칸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지붕은 함석이다. 원래 초가였다가 새마을운동 시기에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안방과 웃방의 뒤쪽에도 공간을 확보하여 달아내었고, 마루에서 안방, 웃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각 부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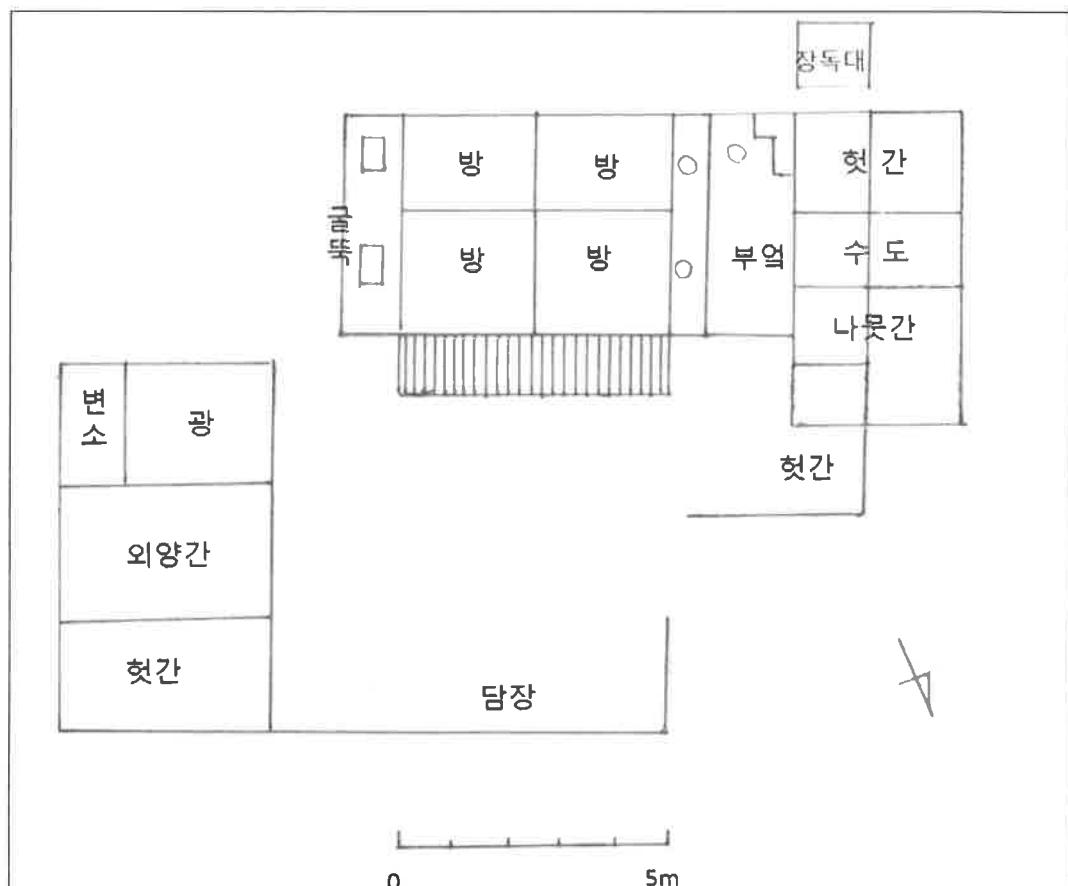
김정해씨 가옥(2019. 3. 31)



달아 낸 작은방(2019.3.31)

① 방

안채의 가운데에 있는 2칸의 방이다. 크기는 사방 8자(240cm)이다. 방 앞에는 4자(120cm) 폭의 뒷마루가 놓여 있다. 방의 뒤에는 그냥 뜰이었던 것 같은데 추녀 끝까지 190cm를 달아내어 작은 방 2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방이 4개 만들어져



김정해 씨 가옥 평면도

있어 겹집처럼 보인다. 방끼리 연결되는 내부의 문은 모두 미닫이로 만들어 쉽게 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뒷줄에 있는 작은 방의 안방과 옷방은 구분을 해 놓았으나 문은 만들지 않았다. 큰방과 작은방은 각각 따로 불을 때어 난방하였다. 아마도 지붕을 함석으로 개량하면서 손쉽게 처마를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넓혔을 것으로 보인다.

안방의 부엌 쪽으로는 벽장을 설치하였다. 부엌의 두뚜막 위는 부엌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에서 통하는 문을 설치하여, 안방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수납하는 곳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 방의 천정, 마루의 천정에는 시령을 매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였다.

②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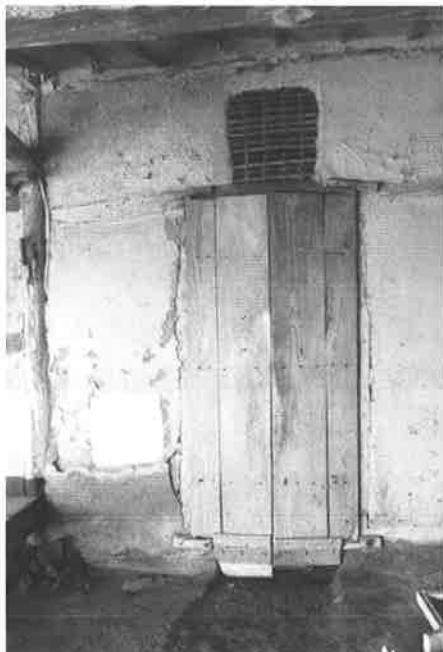
부엌은 서쪽에 배치하였다. 원래는 방 1칸의 폭인 8자(240cm)인데 앞과 옆으로 달아내어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넓어진 공간에는 나뭇간, 수도, 헛간 등을 배치하였다.

부뚜막에는 무쇠솥이 2개 걸려있는데, 하나는 원래 만들어진 큰방을 향해, 다른 하나는 작은방을 향해 걸려있다.

부엌 바닥에는 김칫독이 묻혀있고, 남서쪽 벽에는 찬장이 놓여있다. 부엌문 위에는 환기를 위하여 뚫어 놓았다. 특별한 시설은 없고, 엣여진 왜에 흙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어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부뚜막 위의 벽장
(2019.3.31.)



부엌문과 환기구(2019.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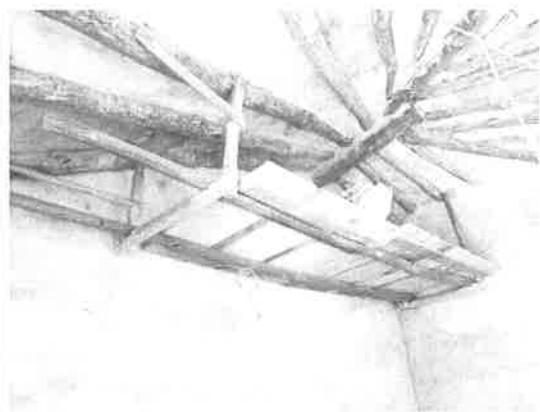
부엌의 김칫독과 찬장, 솥(2019.3.31.)

③ 아래채

아래채는 주 건물 동북쪽에 만들어져 있다. 3칸 크기인데 원채와 달리 1970년대에 흙벽돌로 건축하였다.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 쪽 2줄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고, 그 위는 모두 황토 흙으로 만든 흙벽돌로 쌓았다. 원래의 공간은 2칸으로 광, 변소, 외양간을 두었으나 나중에 처마를 연장하여 혀간을 만들었다. 아래채의 지붕은 슬레이트이다.



아래채(2019.3.31.)



광에 만들어진 시령(2019.3.31.)

가. 광

광은 8자(240cm)×9자(270cm)로 만들었는데 앞에 퇯마루는 없고, 그대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며 바닥은 흙이다. 각종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이며, 천정에는 시령을 매어 가벼운 물건을 수납하였다.

나. 변소

아래채의 광 뒤에 설치하였다. 폭은 4자(120cm), 깊이는 8자(240cm) 정도이다. 바닥에 시멘트 통을 묻었다. 아래채는 원채 안쪽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마당이나 마루에서는 변소를 쳐다볼 수 없는 구조이다.

다. 외양간

소를 키우는 공간이다. 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사용하는 방보다 크기 9자(270cm) 폭으로 만들어, 마당 쪽에 출입구와 구유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환기구를 만들었다. 구유는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80×55×30(높이)cm 크기이다. 구유의 옆쪽은 소가 출입하는 곳인데, 소가 나가지 못하도록 간대를 채웠다. 현재 간대는 없어졌지만 기둥에 뚫려있는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다. 기둥에 앞쪽으로 뚫려 있는 작은 구멍은 간대를 채우고, 열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구멍이다.

외양간의 천정에도 시령을 매어, 물건을 수납하였다. 주로 목재를 넣어 두었다.



외양간(2019.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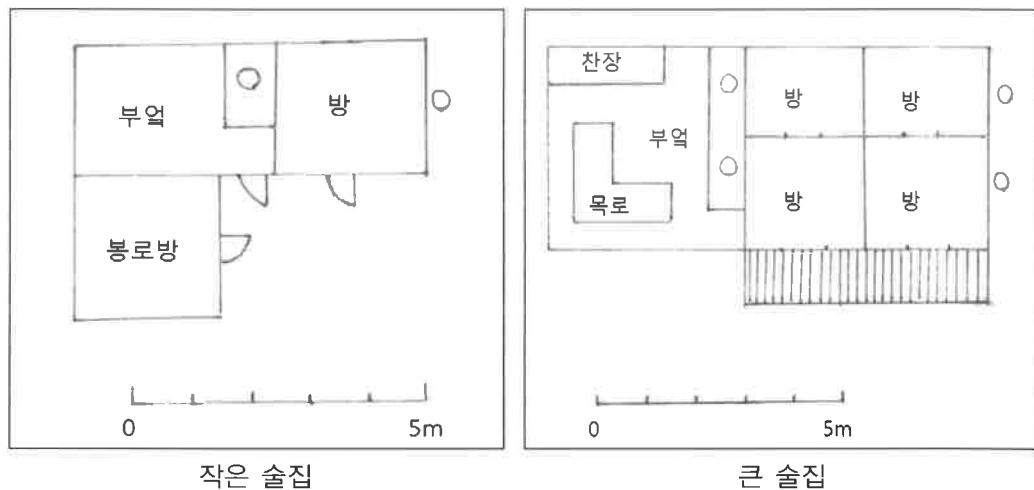
(2) 작은 술집

작은 술집으로 이용되던 양씨댁이다. 건물의 가운데에 솔이 걸려있는 부뚜막이 있었고, 오른쪽에 안방이 있고, 왼쪽에는 큰 부엌이 있었다. 이 부엌에 술상을 놓고 술을 팔았다. 또 뱃사람들이 묵어가기도 했던, 현재의 여인숙 기능을 했던 방이 부엌에 딸려 있었는데 이 방을 ‘봉로방’이라고 불렀다. 한 사람이 묵는 방이 아니라 남자들 여럿이 합숙을 하는 방이었다.

(3) 큰 술집

기생을 두고 술을 팔던 큰 술집이다. 상호는 대개 ○○옥이라고 불렸다. 술은 부엌에 마련된 목로에서 팔았고, 요리를 먹는 손님들은 방에 들어가 소위 ‘방술’을 먹었다. 이때 기생들이 술시중을 들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불렀다. 부엌을 크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요리를 하고, 술을 먹을 수 있는 목로를 불박이로 만들어 놓았다. 목로 속에는 그릇 등 물건을 수납하였다.

[정성기님의 기억으로 그린 그림]



(4) 뗏집

뗏집은 벽체를 잔디로 만든 집이다. 목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주변에 있는 잔디를 직사각형으로 떠내어, 뒤집어서 벽돌처럼 쌓아 벽체를 만드는 것이다. 기둥을 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돌담집이나 흙담집과 같으나,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무창포 포구에서 배를 타거나, 생선과 관계있는 일을 하려고 이주한 노동자들이나, 6.25 사변 때 들어온 피난민들이 손쉽게 뗏집을 짓고 살았다.

뗏집은 방 1칸과 부엌 1칸을 만드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방 2칸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지 방은 좁게 만들고 뒷마루도 두지 않는다. 기둥을 세우지 않기 때

문에 집도 낫다. 벽체에는 흙을 발라 밖에서 잔디가 보이지는 않는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무창포의 뗏집은 윗말 술등 주변, 안산 정상부 침례교회 근처 등에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침례교회 부근에 있던 뗏집이다



뗏집(보령군, 1992, 무창포해수욕장이 있는 마을 관당리에서 옮김)

3) 마을

법정리인 관당리에는 행정리로 3개의 마을 즉, 관당1리와 관당2리, 관당3리가 있고 그 아래에 각각 2~5개의 반(班)이 있다.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반장은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거나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장이 임명한다. 관당리에 있는 마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당1리(각굴, 덕메)

관당리 마을의 북쪽 지역이다. 높이 179m의 할미재에서부터 무창포에 이르는 긴 골짜기 주변에 형성된 덕메, 양알, 각굴, 짚은다리, 삼정굴을 모두 포함하는 마을이다.

1리와의 경계는 벼락재-안산재 토성-통개로 이어지는 선이다. 1반은 덕메, 2반은 양알, 3반은 각굴, 4반은 사작, 5반은 삼정굴이다.

관당1리 마을 회관은 짚은다리와 각굴마을 사이의 언덕 위에 있다. 마을 회관은 1970년대에 블록으로 만든 건물과 최근 새로지은 건물이 같이 있다.

옛 마을회관 건물 앞에는 3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모두 마을회관 부지를 희사한 주민들의 비이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南氏門中 鳳烈, 甲祐 紀念碑

관동구 소재 임야를 농로 및 창고 대지로 희사하심으로 주민 일동이 감사함을 표기 함. 서기 1977년 4월 18일.

● 崔氏門中 準泓 紀念碑

관동구 소재 임야를 농로 및 회관 대지로 희사하심으로 주민 일동이 감사함을 표기 함. 서기 1976년 10월 일.

● 宜寧南氏門中 基薰功勳碑.

관동구 소재 임야를 농로 및 회관 대지로 희사하심으로 주민 일동이 감사함을 표기 함. 1998년 5월 9일 주민일동.



관당1리 안내도(2019.3.23.)



관당1리 회관(2019.3.23.)



관당1리 회관에 있는 공적비(2019.3.23.)

① 1반(덕메)

관당1리의 동쪽 끝 지역으로 무송윤씨의 집성촌이다. 덕메 마을로 불렸고, 안덕메와 밧덕메로 구분되었다. 근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을의 가운데를 지나 안덕메와 밧덕메가 먼 마을처럼 되었다. 안덕메에는 윤자운의 사당인 문현사(文憲祠)가 있다.

마을 안에 당산, 당산모탱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각굴 마을과 따로 당제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각굴과 다른 마을이었던 것 같다.



덕메마을(2019.3.23.)



양알마을(2019.3.23.)

② 2반(양알)

관당1리 각굴 마을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통 ‘양알’이라고 불렸는데 요즘 ‘양화(陽花)’라고도 부른다. 벼락재라고 불리는 높은 산의 북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응달이다. 과거에는 8가구 정도가 거주했는데 근래 펜션이 많이 들어서 큰 마을이 되었다. 이곳에 펜션이 많이 들어선 것은 땅 값이 저렴하고, 외지인에게 공급되는 토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③ 3반(각굴)

관당1리의 중심지역으로 마을 회관이 있다. 각굴은 원래 덕메 마을 서쪽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마을의 서쪽을 ‘짚은다리’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중심지답게 느티나무가 2개 있었는데 짚은다리에 있는 느티나무는 현재도 존재하고, 각굴 중심에 있던 느티나무



짚은다리(2019.3.23.)

는 너무 오래되어 가운데가 비어 있었는데, 몇 년전 이곳에 아이들이 불을 놓아 불타 죽었다. 마을 주민들이 정월에 제를 올렸던 당산도 이 마을의 서북쪽에 있다.

마을 안에는 김해김씨, 의령남씨 등이 집성을 이루고 살았으나 원주민은 많이 고향을 떠나고 많은 펜션이 들어서 있다.

④ 4반(사작)

관당1리의 서쪽 끝 지역으로 사작, 당재, 유수물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과거에는 불과 몇 가구가 거주하였으나 근래 가구가 늘어났다. 특히 과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던 유수물에 펜션이 들어섰다. 당재 마을에는 충청남도수자원연구소가 들어서 있고, 예부터 거주하던 주민은 연구소 뒤에 거주한다. 마을 안 은산골에는 경주 김씨들의 입향조 묘와 제향을 올리는 은산재(銀山齋)가 있다.



사작마을(2019.3.23.)



당재마을(2019.3.23.)

당재 마을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당재에 광산김씨가 살았다. 옛날 웅천면장을 했던 김덕원씨 이야기에 의하면, 당재에 살던 광산김씨는 원래 거지로 무창포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당재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나 아들만큼은 절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어느 날 벼락재에 가마가 넘어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자식이 과거에 장일급제하여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이었다. 그 과거에 급제했다는 분이 김인(金勦)으로 당재에 묘소가 있다.



삼정굴마을(2019.3.23)

광산김씨의 후손 김영희씨가 당재에 살았는데, 이장을 할 때도 말을 타고 다녔다. 일본 사람들이 공출을 요구하면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두 땅에 묻어 감추라고 하였고, 줄모를 심으라고 이야기 하면, 아무렇게나 심으라고 해 놓고, 빼풀어졌다고 질책하면 당신 눈이 빼풀어졌다고 둘러대었고 석대성이 자기네 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인이었다.

그의 이모부가 고뿌래 황씨로 면장을 하였는데, 면장도 안타는 말을 이장이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능력 문제라고 했던 일화도 있다. 술을 좋아하여 무창포에서 술을 먹고 집에 올 때 물이 들어와 통개를 건널 수 없으면, 며느리를 큰 소리로 불러 며느리 등에 업혀 건넜다고 한다.

⑤ 5반(삼정굴)

관당1리 각굴마을의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 골짜기의 동쪽 부분에 가옥이 들어서 있다. 경주김씨가 많이 거주한다.

(2) 관당2리(무창포)

무챙이라고 불리는 무창포 포구 마을이다. 윗말과 아랫말로 구분된다. 3리와의 경계는 벼락재-침례교회-관리사무실 옆길이다. 방파제를 만들기 전에는 배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방파제가 만들어진 후, 갓굴 사람들이 윗말로 이주하였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술집을 만들면서 아랫말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관당2리 마을회관(2019년 3월 8일)

마을회관은 1988년 7월 30일 노태우대통령이 당시 국립수산진흥원 보령 수산종묘배양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마을에 하사한 돈으로 관당리 731-5번지에 지상 2층으로 건립했었는데, 2004년 관당-흑포간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2억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현 위치로 옮겨지었다. 현재 마을 회관은 관당리 777-6번지에 2층, 건평 60평으로 지어져 있다. 2006년 5월 8일 준공하였다.

무창포 마을은 1반 윗말, 2반 아랫말로 구분된다.



노태우대통령 무창포 방문(1988.7.30.)

① 1반(윗말)

무창포 포구마을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위뜸이라고도 불린다. 무창포항의 방파제를 만들기 전에는 북서풍에 노출되어 파도가 거세었고 많은 모래를 운반 퇴적하여 술등이라고 불리는 큰 사구를 만들어 놓았다. 작은 골짜기의 입구를 사구가 가로막았고, 안쪽에는 배후습지도 만들어졌다. 마을은 이 사구의 동쪽에 위치하여 북서풍을 피했고, 집 뒤에 대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았다. 윗말골이라고 불리는 작은 골짜기와 배후습지는 논으로 개간되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각굴마을에 살다가 무창포항이 개발되면서 이주했다고 하며, 농사도 짓고 무창포항에서 어업에도 종사하였다.

위말에는 현씨네가 제일 먼저 들어와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현씨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창뜸에 있던 옛 세곡창고를 현씨네가 지어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현씨 집안이 창뜸의 창고와 관련하여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② 2반(아래뜸, 해수욕장)

아래뜸은 관당2리(무창포)의 중심 마을로 아래뜸과 해수욕장의 북쪽을 포함하는 큰 마을이다. 최근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많은 상가가 들어서 큰 마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무창포항의 북쪽에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어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경상도에서 선진어법인 우다세어법(打瀨網, 포준어는 바람돛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크게 발전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구 위에 어업 조합과 위판장이 들어서고, 선원들과 어물장사를 상대로 한 술집이 들어서 일종의 파시를 형성하였다. 술집으로 이용되던 20여 채의 가옥이 2줄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다.

아래 지도와 같이 기생집이 4곳이나 되었고, 막걸리를 팔던 대포집이 9집이나 운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발소, 담배 가게, 잡화상점 등도 운영되었고, 상인들에게 셋방을 내주는 집도 있었다. 양조장도 만들어져 1970년대까지 운영되었다.

무창포 포구에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파시가 형성될 때에는 아래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선을 사거나 바꾸러 온 외지 주민들에게 거들먹거리고, 가을이 되면 생선은 나오지 않고, 주변 농촌의 도움을 받아야 지붕을 새로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굽신거렸다고 해서 붙여진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하고 있다. ‘봄 잡놈, 가을 아저씨’라는 이야기이다.

현재는 옛 포구 밖으로 새로운 포구를 만들어 옛 포구에는 어선이 들어오지 않고, 낚싯배 등이 정박하는 정도로 옛 포구의 기능을 잃었다.

해수욕장의 관리사무소 북쪽 부분은 2반에 속한다. 과거에는 장별로 불리는 사구여서 주민의 거주가 없었으나 근래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 많은 상가가 들어서 주민의 거주가 많다.



윗말골(2019.3.8.)



아래뜰(2019.3.23.)



1960년대 무창포 아래뜰의 상가

1 양조장, 2 염장창고, 3 남씨네대포집, 4 중앙옥, 5 이발소(웅천 막걸리 하치장이었는데 무창포에 양조장이 생기면서 이발소가 됨), 6 경남옥, 7 개성집, 8 꽈씨네대포집, 9 위판장, 10 어업조합사무실, 11 하씨네대포집(어업조합사택이었다), 12 웅천옥, 13 양씨네대포집, 15 현씨네대포집, 16 유씨네대포집, 17 중국집(정성기댁), 18 신성옥, 19 김정준씨 대포집, 20 유씨네대포집, 21 김정원씨 셋방집, 22 김수태씨대포집, 23 석호네가게방. *‘옥’의 상호를 가진 집은 기생집이었음.

(3) 관당3리(간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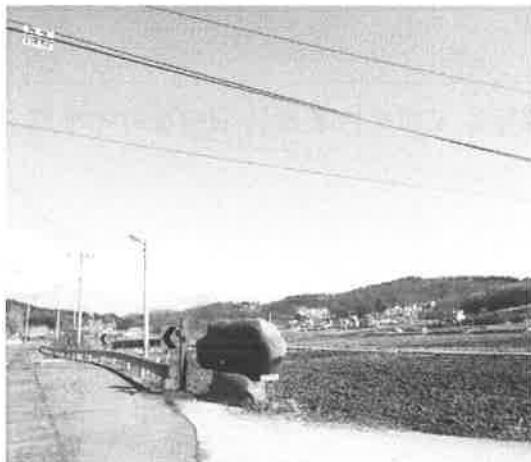
관당리의 남쪽, 골짜기 마을인 간드리와 해수욕장을 포함하는 마을이다. 죽청리·독산리와의 경계는 벼락재-봉오재 뒷고개-태봉재-부엉배-비체펠리스 옆길로 이어지는 선이다. 해수욕장 마을은 최근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들어선 마을이고, 과거부터 주민이 많이 거주한 곳은 간드리 마을이다.

무창포가 항구로 개발되었어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 맨손어업을 하던 마을인데 최근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많은 펜션이 들어서 크게 변하였다. 마을 안에 큰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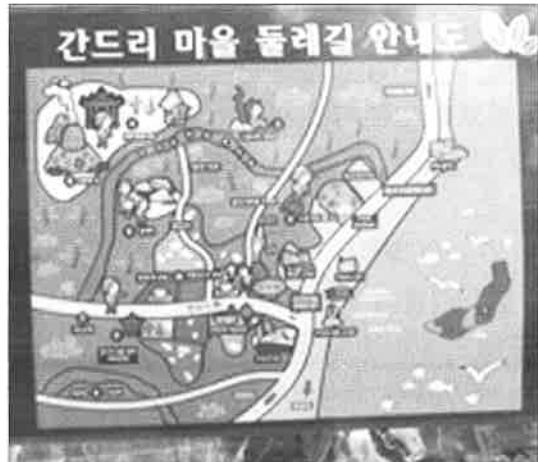
김혜경 이장 때인 2014~2015년에 마을사업으로 폐광기금 5억원을 지원받아 둘레 길도 만들고, 해수욕장에 비사방지시설(飛沙防止施設)을 설치하였다. 그 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경관보존사업을 벌여 포토존 등을 설치하였다.

마을회관은 아랫간드리에 있고 2010년에 지었다.

관당3리는 1반 윗간드리, 2반 아랫간드리, 3반 홀미고개, 4반 욕장으로 구분된다.



간드리마을(2019.3.23.)



간드리마을 둘레길 안내도(2019.3.23.)

① 1반(윗간드리)

벼락재의 남쪽, 간드리 골짜기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근래 죽청리와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벼락재 밑으로 무창포 윗말과 통한다. 몇 채의 펜션이 들어서 있으나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윗간드리 마을(2019.3.23.)



관당3리 마을회관(2019.3.23.)

② 2반(아랫간드리)

간드리 골짜기의 서쪽 부분으로, 간드리마을의 중심이다. 마을회관도 아랫간드리에 있다. 윗간드리 마을보다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바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생활하였고, 근

래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해수욕장과도 많은 관련을 맺으면서 생활한다. 도로 남쪽의 논에는 좋은 샘이 2개나 있어 주민들의 식수원, 세탁장으로 사용하였고, 여름이면 해수욕객의 식수원으로 사용되었다.

③ 3반(홀미고개)

간드리 골짜기의 남쪽지역으로 덕산봉, 새뜸을 포함하는데 최근 덕산봉지역에 대규모 펜션단지가 들어서 있다.

④ 4반(욕장)

간드리골의 서쪽, 해안지역이다. 관리사무소의 남쪽이 관당3리에 포함되는데, 무창포해수욕장의 가장 남쪽 비체팰리스가 위치하는 곳부터는 독산리 지역이다. 구획정리되어 많은 숙박업소와 상가가 들어서 있다.



덕산봉의 펜션단지(2019.3.23.)

3. 성씨와 입향

관당리에 많이 거주하는 성씨는 김해김씨, 경주김씨, 나주나씨, 의령남씨, 밀양박씨, 무송윤씨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성씨는 경주김씨로 관당3리인 간드리 마을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 다음은 김해김씨로 관당1리와 관당2리에 많이 거주하며, 나주나씨는 관당1리와 관당2리에 많이 거주한다. 관당리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성씨와 입향에 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주김씨

경주김씨는 보령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성씨인데 관당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주김씨는 관당1리(각굴) 은산굴에 묘가 있는 김수준(金守俊)의 후손이다. 신도비에 의하면 김수준은 임진왜란 때 이곳 관당리로 낙향하여 거주하였고, 이후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관당리 은산골에는 묘지와 신도비가 있고 은산재(銀山齋)라는 재실이 있다. 후손들의 묘는 벼락재 아래 윗말골에 많다. 김수준 신도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慶州金公守俊神道碑

萬物은 하늘에 根本하고 人間은 祖上에서 根本
하나니 여기에 慶州金公諱守俊神道碑를 세워 後
孫들에게 其由來를 알리고자 함인즉 이곳은 朝
鮮祖開國功臣 鷄林府院君 慶州金公諱 稢의 七
代孫 通德郎 諱 守俊公과 其 後孫들의 墓가 있는
곳이다. 公의 始祖大輔公 諱闕智께서 西紀 65년
3월4일 慶州鷄林에서 誕降하신 後로 子孫이 繁
昌하여 新羅에서는 6代孫 味鄒王을 始作으로 38
왕을 지내셨는데 公은 마지막 王이신 敬順王의
第四子 諱殷說 後孫이며 高麗를 거쳐 李朝初에
太祖를 도와 開國功臣이 되신 47代孫 齊肅公 諱
稢 鷄林君派로 代代에 名聲이 빛났도다. 齊肅公
의 前夫人 安東權氏는 一男一女를 두었으니 諱
孟誠이요. 一女는 辛門에 出嫁하고 後配는 茂松
尹氏로 二男을 두어 諱 仲誠과 諱 季誠이시다.
長房은 無后하고 次房은 매우 繁昌하였으며, 三
房은 榮貴하였다. 墓所는 京畿道 廣州郡 五浦面



김수준 신도비(2019.3.3.)

陵坪里 良坐이며 墓 뒤에 兩位夫人 墓는 前後配를 區別할 수 없다. 公은 謚 季誠의 6代孫으로서 西紀 1650년에 誕生하시여 壬辰倭亂으로 各己分散하여 이곳에 落鄉하셔서 夫人 密陽朴氏 사이에 謚南敬과 謚南斗 兄弟를 두신바 亂中이라 그 많은 苦難을 克服하시고 確固한 基盤을 다져 忠孝와 慈愛로 謙虛한 姿勢로서 勸勉誠實을 기본으로 삼으셨기에 其蔭德이 代代에 繼承하여왔다. 公의 6代祖 謚季誠은 正議大夫散員大卿이시고 5代祖 謚從舜은 훌륭한 德望으로 邑司이 漢城府尹이시고, 六朝清白吏로 贈大臣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에 侍號는 恭胡公이신데 墓는 京畿道高陽郡 碧蹄面大慈里 癸坐이고 高祖諱致運은 贈資憲大夫 吏曹判書로 墓는 龍仁郡 蒲谷面 東釜谷合窓이며 曾祖 謚龜齡은 贈通政大夫 吏曹參議로 墓는 安城郡 寶蓋面 新長里 丁坐이고 祖父諱連壽는 贈嘉善大夫 吏曹參判으로 墓는 瑞山郡 大山邑 大山里 龜井洞 壬坐이며 父親 謚忠元은 嘉善大夫 刑曹參判이신데 墓는 燕岐郡 全義面 冠井里 中台다 公의 後孫中에서 官職과 宗事에 寄與한 분들은 子 謚南敬은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이시고 孫諱蓮振은 贈嘉善大夫工曹參判이시며 曾孫諱 景臣은 增參判과 謚廷臣은 參議이시고 5代孫諱恒大는 贈軍資監正이시며 6代孫 謚思亮은 贈參議이신데, 特히 謚重熙 謚民熙 謚教浩는 日政治下의 掠奪로 이어지는 暗鬱한 時代에 先祖任들의 魂이 흐르는 宗山을 지키기 為하여 獄苦까지 치르면서 守護한바 있어 宗親間에 友愛와 團合이 切實히 要望되어 西紀 1956년 10月에 謚 敎鳳께서 花樹會를 創立하여 初代會長이 되시고 副會長에 謚敎仁과 二代會長에 謚正民과 三代會長에 謚正穆은 公으로부터 11代이다. 其外로 教育界를 為始하여 各界要路의 高位公職에 從事하여 社會에 貢獻들 하였다. 公의 前後系譜는 始祖闕智勢漢 阿道 首留郁甫 仇道 味鄒王 奈勿王 實聖王 訥祇王 慈悲王 昭知王 智證王 法興王 眞興王 眞智王 眞平王 善德女王 眞德女王 武烈王 文武王 神文王 孝昭王 聖德王 孝成王 景德王 惠恭王 宣德王 元聖王 昭聖王 哀莊王 憲德王 興德王 優康王 閔哀王 神武王 文聖王 憲安王 景文王 憲康王 定康王 貞德女王 孝恭王 敬順王 殷說 泰華 正矩 繼芬 漢公壽西 永固 順雄 因謂 元鼎 之銳 舜符 英裕 義公 光俊 南美 純 起淵 智允 稔 季誠 從舜致運 龜齡 連壽 忠元 守俊 南敬 蓮振 景臣 廣衍 恒大 思春 永興 判集 容熙 敎弼 正基 大經 知德 仁植이며 後세에 永久히 기리기 為하여 이 碑를 建立하노라.

서기 1993년 4월 5일

10代孫 敎敦 謹撰
11代孫 正圭 刻
12代孫 宗會長 乃經
外 後孫 一同 謹立



은산재(2019.3.3.)



김수준 신도비와 묘역(2019.3.3.)

2) 김해김씨

관당리의 김해김씨는 1리(각굴)에 주로 거주한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뒷골 마을에 살다가 이곳 웅천읍 관당리 각굴로 이주했다고 한다. 관당리에 거주하는 김해김씨 후손들은 김보현(金輔鉉)을 입향조라고 하고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각굴 깊은다리 뒤 양지바른 곳에 묘를 조성하여 모시고 있다.

비문에 의하면 김보현은 영종(英宗) 임술년(壬戌年)인 1742년 2월 3일 남포면 삼현리 뒷골에서 출생하여 63세인 갑자년(甲子年, 1804)에 사망하여 관당리에 묻혔으므로 18C 후반에 관당리로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김보현은 아들 제원(濟元) 제승(濟承)을 두었고 그 후손들이 마을에 세거하고 있다. 본 조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기섭 님의 8대조이다. 김보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김해김씨 입향조 김보현 묘비
(2019.3.4)

行五衛將金海金公諱輔鉉之墓碑文

府君諱輔鉉 姓金氏 系出金海 大司憲湖南伯謚安敬公諱永貞之後 八世祖諱明祚妣平山申氏 有三男 諱日鉉諱輔鉉諱之子也 諱輔鉉 藍浦三賢里後洞에서 英宗壬戌年 二月三日生甲子9月9日卒 享年63 葬于熊川面 冠堂里 德山下銀床洞後麓亥坐 配淑人青松沈氏 甲子年三月9日生 乙丑年4月5日卒 墓祔左 公以舉2男 諱濟元諱濟承餘不盡

7代孫 榮甕謹識

檀紀4312年(1979)己未十月 日立

3) 나주라씨

관당리에 거주하는 나주라씨의 입향조는 모두 라석좌(羅錫佐) 참판 할아버지라고 증언하고 있다.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참판 할아버지는 나세(羅世)의 후손으로 이 웃한 서천군 서면에서 이주하였고, 남포 고을 원님하고 같이 공부를 한 친구이기 때문에 남포 고을로 이주했다고 전한다. 친구는 원님으로 부임하고, 참판 할아버지는 대원군이 경복궁을 짓는데 기부를 하여 참판첩지를 받아 지위도 함께 높 만하여 날마다 남포에서 원님하고 놀다가 왔다고 한다.

원님하고 종일 놀면 밤에 오개 되는데, 남포 고루머리 고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으면 호랑이가 깨워 등에 태워 데려다주고 대신 집에 있는 개를 물어갔다고 한다. 호랑이는 개를 물어가는 재미로 늘 이렇게 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는 호랑이 타고 다닌 할아버지로 전한다.

라석좌(羅錫佐)의 비문에는 출생 연대나 사망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족보에



나주라씨 입향조 라석좌의 묘(2019.3.4.)

는 1821년 1월 20일 출생하여, 1873년 2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9C 중엽에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과 족보에 의하면 라석좌는 6명의 아들과 10명이 넘는 손자를 두어 후손이 번창하였다.

4) 의령남씨

관당리의 의령남씨는 1리(각굴)과 간드리(3리)에 주로 거주하는데 최초로 들어온 곳은 각굴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간드리 마을에 더 많은 의령남씨들이 거주한다.

각굴에는 의령 남씨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하나는 최근까지 살다가 모두 이주한 의령남씨에 관한 이야기로 옛날 무장포에 군량미를 쌓아두는 해창이 있을 때 남포 군수가 각굴 앞으로 지나다녔다. 그때 각굴에는 백씨가 부자로 살았는데 백씨와 남씨인 남포군수가 장기 내기를 하여 백씨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다고 한다. 그 후 백씨는 망하고, 남포 군수였던 남씨의 후손들이 들어와 살았다가 고향인 당진 대호지면으로 이사 갔다고 전한다.

남포군수의 후손들이 살면서 남포군수의 묘를 포함하여 6기(3부부)도 이곳에 썼었는데 2015년경 당진 내호시면으로 이장하였다. 이때 묘를 파 보니 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관째로 옮겼다고 한다. 묘를 만든 지 300여 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있었던 것은 신비한 일이었다고 마을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현재 관당리에 거주하는 의령남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이분들의 고향은 아산 읍봉으로 선대의 묘가 모두 이곳에 있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분의 11대조 할아버지가 증직으로 판서였는데, 그의 아버지 즉, 12대조 할아버지가 활을 잘 쏘았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4촌을 활로 쏘아 죽이는 바람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났고, 11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1대조 할머니가 아들 2명을 데리고 이곳 관당리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 후 큰아들은 관당리에 정착하여 후손들이 번창하였고 작은 아들은 어디에 정착해서 후손이 퍼져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의령남씨의 후손들은 관당리에 정착한 지 300년 이상 되었다고 믿고 있고, 각골 마을에 있던 종가집을 혈었을 때 굉장히 오래된 주춧돌이 나왔고, 집 앞에 있는 정자나무(느티나무)도 선조의 입향과 관련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의령남씨의 종손이 고향마을에 의령남씨 세천비를 세웠다. 비문을 소개한다.

宜寧南氏世阡碑

여기 忠淸南道 保寧市 熊川邑 冠堂里는 읍에서 서쪽으로 십리요. 西海 武昌浦에서 5里에 위치해 있고 仁川木浦間 西海高速道路가 貫通해 있으며 左側에는 鷹峯이 솟아있고 藍浦烏石으로 有名한 由緒깊은 곳이다. 이곳에는 宜寧南氏 15世로 牙山에 계셨든 贈嘉善大夫 禮曹參判 謚國三公의 配位 贈貞夫人 慶州李氏께서 移居하신 後 16世 謚世寬公17世 戶曹佐郎 謚正九公 以下 後孫들의 墓所가 世葬되어 있는 곳이다. 宜寧南氏는 朝鮮朝 開國一等功臣 領議政 忠景公 謚在와 判尚書事 吏曹判書 剛武公 謚闇이 中央政界 中樞에 오른 後 王室과 戚緣을 맺는 등 政治에 깊이 관여하여 代代로 많은 賢臣과 학자를 배출하였으니 領議政 大提學 謚袞 領議政 大提學 謚九萬 領議政 大提學 謚公轍 左議政 謚智 左議政 謚以雄 大提學 吏曹判書 謚龍翼 大提學 刑曹判書 謚有容 大提學 吏曹判書 謚秉哲公 等과 26세에 兵曹判書에 이른 忠武公 謚怡와 生六臣 秋江孝溫선생과 倭賊을 섬멸하고 林巨正을 생포한 無襄公 謚致勤과 丁卯胡亂 때 殉節한 忠壯公 以興과 學者로 高名한 東岡公 謚彥經과 桐巢公 謚夏正 나비그림으로 有名한 一濠堂 謚啓宇 등 特出한 人物들이 朝鮮朝를 通하여 政丞 6名 大提學 6名 判書24명 名駙馬3명 庭享4명 院享28명 封君28명 諡號33명 文科及第 148名 등과 文章書畫家를 輩出 當代에 威勢를 떨쳤고 現代에도 國務總理 長官 國會議員 道知事 博士 高等考試 出身者 등



의령남씨 세천비(2019.3.4.)

人士를 輩出한 名門閥族. 上系는 新羅때 英毅公 謹 敏의 苗裔로 宜寧南氏 始祖1세 謹
君甫 高麗 樞密院 直副使封 宜寧君 2세 謹 益脈 豊儲副使 3세 謹 天老知靈光郡事 門下
侍中 4세 謹 乙蕃 檢校 門下侍中 5세 謹 在 開國功臣 領議政 6세 謹 景文 贈領議政 7세
謹簡 清白吏 藝文官 直提學 8세 謹 健 上護軍 9세 謹 悅 副司猛 10세 謹 孝讓秉節 校
尉 11세 挿 舜治 壽富護軍 12세 謹 大湖 兵曹議郎 禮賓寺 直長 13세 謹 □學者 14세 謹
斗奎 15세 謹 國三 贈嘉善大夫 禮曹參判 16세 謹 世寔 17세 謹 正九 戶曹佐郎 18세 謹
時成 19세 謹 喜達 20세 謹 啓遷 21세 謹 學元 22세 謹 廷錫 23세 謹 凤熙 漢學者 24세
謹 相云 25세 謹 白祐 26세 基澤 27세 周鉉이다. 15세祖母께서 保寧으로 落鄉하신 뒤
그 後손들이 孝悌忠信과 仁義禮智를 根本으로 以德處世하시고 勤儉成家하며 綿綿히
대를 이어 현재 50餘戶로 繁盛해 京鄉各地에서 國家와 社會에 貢獻하고 있는 것은 오
직 先代祖의 河海와 같은 陰德이옵니다. 이제 그 遺德을 追慕하고 國泰民安과 이고장의
發展과 後孫들의 繁榮을 祈願하면서 이 비를 建立하나이다.

서기 1998년 戊寅 9월 일 의령남씨대종회 회장 성균관부관장 基顯 謹撰

26세손 基澤 謹豎

5) 밀양박씨

관당리의 밀양박씨들은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도화담리 등에 거주하는 밀양박씨들과
같은 집안으로, 도화담리에 효자문이 있는 박승건(朴承健) · 박세주(朴世胄)의 후손이다.

박승건은 1630년(인조8) 중형(仲兄) 승휴(承休)와 함께 진사가 되고, 1650년(효종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에 보임되었다. 이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예조좌랑·병조좌랑 등을 거쳐, 1652년에는 정언(正言)·사서(司書)·직강(直講)·예조정랑을 지냈다.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는 형조판서 허적(許積)을 논핵하였으며, 1661년(현종2)에는 지평(持平)·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를 역임하고, 이듬해에는 장령(掌令)이 되었다. 1663년에는 종부시정(宗簿寺正)에 올라,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들어가다가 지병이 도져서 도중에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그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그 뒤에도 계속 조정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허락되지



박승건 박세주 정려(미산면 도화담리)

않았다. 그 뒤 제용감정(濟用監正)을 거쳐, 1664년 9월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재직하던 중 관곡을 방출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민역(民役)에 충당한 사실로 가자(加資)되었다. 그의 아들 박세주(朴世胄)가 보령 개화리에 입향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고, 박승건의 효자 정려를 옮겨와, 보령에서 아들 박세주가 받은 효자 정려를 함께 현재의 도화담리에 건립하여 놓았다. 박승건의 묘소는 보령으로 이장되어 개화리에 있으며, 묘비와 함께 있다.

박세주는 아들이 3명인데 그중 막내 아들이 박대석(朴大錫)이다. 박대석의 묘는 아미산 덕대봉(德大峰)에 있었는데 후손들이 관당리에 사는 관계로 1995년 각굴 뒷산²⁾으로 이장하였다. 관당리에 거주하는 밀양박씨들의 조상인 박대석의 묘비문은 다음과 같다.

贈嘉善大夫兵曹參判 密陽朴公諱大錫之墓

贈兵曹參判號俄山諱大錫墓碣

嗚呼라 此는 贈兵曹參判 朴公大錫과 其妣貞夫人
海州吳氏之墓也라. 字는 汝龜요. 號는 俄山 貫은
密陽이다. 新羅 始祖王之后로 至高麗하여 司憲糾
正鉉은 三品致仕하시니 寔公之 中祖也라. 再傳에
思敬은 仕高麗하사 典法判書兼 上將軍으로 仍受
推誠翊 謂威功臣之號하시고 是生諱沈하시고 典
儀判事로 麗朝屋社에 與71賢으로 入杜門하사 以
守岡僕之義이러니 朝鮮廟 英陵之世에 追贈戶曹
判書하고 是生諱剛生 號蘿山耕叟는 集賢殿副提
學으로 贈贊成하시고 有遺書爲家訓하여 傳之于
今하니 寔公之第 11代祖考라 제10代祖考 謂切門
하니 校書正字로 贈左贊成 封密山君하고 第9代祖
諱仲孫號栢堂은 禮刑吏曹判書左贊成 封密山君하
고 與季子 檻으로 父子가 俱選入瀛洲18學士하시고 第8代祖考諱楣 號存誠齊는 禮曹參
議贈吏曹參判하고 選東文選하시고 修與地勝覽하시고 第7代祖 謂光榮은 燕山이 將進
崇尹氏에 左修選하여 疏論忤旨로 旨靈光이러니 中廟改玉에 封密城君 授刑曹參判海伯
錦伯 贈吏曹判書하시고 第6代祖考 謂藻字士潔은 以父祖勳業으로 蔭補歸厚別提하니
天資가 端雅하사 不肯進就하시고 好讀聖經賢傳하시며 專以修身齊家로 爲本하사 敎子
以義方하시고 愛族如家人하사 可法於子孫也러니 奄以辛巳棄世하사 朝家禮遇하여 贈
吏曹判書 封凝川君이요. 第5代祖考諱忠元 號駱村은 從舅氏奇版齊受業하여 學業大成



박대석 묘비(2019.3.4.)

2) 이곳은 남포면 월전리이지만 각굴마을 뒷산의 정상 부분이다.

이라 拜文衡吏曹判書 左贊成封密原君 諡文景하고 密山世稿와 嶺海唱酬錄이 行于世하여 曾宰寧越하사 以現夢으로 尋魯陵하시니 以故로 配享 于公州肅慕殿 洪州魯恩祠하니 曾孫承宗이 領議政 密昌府院君이라 高祖考 謚好賢 號華麓은 著文行하사 贈司僕寺正하고 曾祖考諱安行 號石谷은 通禮院奉禮 唐津縣監 旌善郡守 贈通政大夫 兵曹叅議라 在昏朝에 不媚權貴人하여 以自證하고 及世道昌明하여는 以告不第하여 終□下位하니 識者恨之리 仁祖改玉에 以其榜이 多用情不公이라하여 有再試之命하니 公이 又中之려라 始에 領議政承宗이 連姻公室하여 甚張威福일세 而公은 從叔父也라 祖考 謚承健 字子以 號星隱은 庚寅文科皆與仲氏同榜純至□靜自守라 官至宗溥寺正尙州牧使요. 肅宗朝與仲氏 且旋孝于桃花潭이라 先君諱世胄 號靜水堂이 有孝行卓越累薦叅奉不仕하야 賜號處士요. 英廟朝에 旌孝星隱公旌閭 父子上下縣板 后庚申豎碑奉安 桃花潭이라. 乙巳卒이니 壽階通政이요. 長諱台錫 次昌錫하고 公이 叢子이시니 辛亥7월12일 生으로 癸酉初試進士하여 武科宣敎郎 興陽縣監 順天鎮館兵馬節制使 都尉尙州營長 訓練都正五衛都總으로 癸巳12월24일 奉世하시니 葬於我嶧山德大峰이라 配貞夫人海州吳氏는 成均館司成 斗先女로 長深源次熙源長源이요 壬寅10月6日葬于合窓이라. 西紀1992年壬申1月 第11世孫 鍾春 鍾男之議를 諸孫이 允合하여 第10世孫 章圭表誠으로 定地還遷하니라.

西紀1995년 乙亥正月第11世孫鍾□鍾吾와 諸孫表誠으로 立床石豎碑하노라.

乙亥 月 12世宗孫 泰洙

俄山公派宗親會長 11世孫 鍾甲

副會長 10世孫 仁圭 東圭 11世孫 鍾九

理事 10世孫 明圭 11世손 鍾哲 鍾大 鍾旭 鍾汶 鍾國 鍾先

監事 11世孫 鍾樂 鍾熙 鍾天

12世孫 良洙 潤洙 珍洙 萬洙

6) 무송윤씨

무송윤씨는 관당1리 덕메마을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왔다. 무송윤씨의 시조는 윤양비(尹良庇)로 고려 예종 때 보승낭장(保勝郎將)이었고, 2세는 해(諧), 7세는 회(淮), 9세는 자운(子雲), 14세는 순(洵)이다. 무송윤씨가 보령에 세거하게 된 것은 14세인 순(洵)이 1599년에 남포현으로 입향하면서부터이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웅천읍 관당리 덕메 마을로 입향했다고 한다.

무송윤씨들이 입향한 관당리 덕메 마을에는 후손들이 문헌사(文憲祠)라는 사우(祠宇)를 짓고 병조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문도공(文度公) 윤효(尹淮)와 영의정을 지내고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에 봉해진 문헌공(文憲公) 윤자운(尹子雲)을 모시면서 집안

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윤회(1380~1436)는 고려말, 조선 전기의 유학자이자, 조선 전기의 문신, 정치인, 철학자이다. 세종 때의 명신으로 외교 문서를 전담하였으며 신설된 집현전의 조직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1432년 세종의 명으로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신숙주는 그의 문인 중 한 사람이며 그의 손녀사위였다. 하륜·정도전의 문인이다

윤자운(1416~1478)은 윤회의 손자로 1438년(세종20) 진사가 되고, 1444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집현전부수찬으로 있을 때 수사관(修史官)이되어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1453년(단종1)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과 병권을 장악하자 그의 요속(僚屬)으로 활약하였다. 수양대군이 즉위하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이 되어 승정원동부승지·도승지에 올랐다가 1460년(세조6) 어머니 상으로 일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때 세조가 여진족의 모련위(毛憐衛)를 정벌하기 위해 장군감을 구할 때 단연 그가 뽑혀 기복(起復)되어 이조참판이 되고 무송군(茂松君)에 봉해져 군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원정에서 돌아와 인수부윤(仁壽府尹)이 되었는데 3년상을 치르기를 원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 뒤 병조판서, 의정부우참찬에 올랐다.

이 때 마침 함경도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그를 함길도체찰사에 임명해 난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시애가 이미 관찰사·절도사와 여러 진장(鎮將)을 죽이고, 또 그마저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둘러싸 7일이나 지키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적(賊)이 정부를 속이는 위조문서에 서명하고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세조는 그를 위로하고 1469년에 우의정으로 승진시켰다. 그 뒤 곧 좌의정이 되었다가 이듬해 영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성종이 즉위하자 좌리공신(佐理功臣) 등이 되어 무송부원군 겸 예조판서(茂松府院君兼禮曹判書)에 봉해졌다. 그리고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1476년(성종 7) 다시 우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문현사(2019.3.19.)



윤회와 윤자운 사적비(2019.3.19.)

원래 이 사우는 성종 25년(1494)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흥죽리에 부조묘(不祧廟)로 건립되었으나, 그 곳에 사는 윤자운의 후손들이 쇠락하여 관리가 부실해짐에 따라 1725년 응천읍 소황리 지역에 사는 윤자운의 후손들이 위패를 모셔다가 응천 소황리에 재 건립하였다.

그러나 소황리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1992년 현 위치에 옮겨졌다. 이 문현사는 현 위치에 옮겨지기 전까지만 해도 보령지역에서 가장 전통적 사우건축의 양식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이전하면서 새로 만든 것들이다.

7) 광산김씨

현재 후손들은 거주하지 않지만 광산김씨 문정공파에 속한 오래된 묘지가 당재 안에 있고, 주변이 모두 광산김씨의 종중 땅이다.

이곳에 묘지를 만든 광산김씨는 보령지방에서 오랫동안 세거한 김성우(17세)의 후손들은 아니고, 김종량(金鍾亮, 13세) 이후 갈려진 분들이다. 김종량의 아들이 수(須, 14세)와 주정(周鼎, 14세)이 있는데 이들은 수의 후손이고, 김성우는 주정의 후손이다.

이곳 묘지의 비석에는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김공인지묘(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金公勦之墓), 숙부인단양우씨지묘(淑夫人丹陽禹氏之墓)라고 쓰여있고 후면에는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으나 풍화되어 식별되지 않는다. 김인이 1578년생이므로 17C 초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고, 오석이 아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17C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석의 이수부분은 아주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다. 만약 족보 등에서 이 비석의 내용이 밝혀진다면 무창포의 역사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새로 만들어진 비석의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字는 伯剛 西紀 1578年 戊寅生 忌10월16일

高祖參判公性源 曾祖大興公季文 祖는 止庵公緒고 父는 鏞다.

子는 7兄弟인 國寶 國柱 國鉉 國寶 國衡 國重 國老를 두고

그 後孫은 洪城을 根據地로 서울 仁川 龍仁 富川

禮山 靑陽 唐津 保寧 瑞山 公州 天安 等에서 살고 있다.

西紀 2006年 4月 일 謹呈



김인의 묘(당재, 2019.5.24.)

4. 문화유적

1) 고인돌



관당리의 고인돌 분포(1 벼락재 고인돌, 2 각골 고인돌)

(1) 벼락재 고인돌

웅천면 관당리 벼락재 정상 부분에 있던 3기의 고인돌인데 최근 무송윤씨 묘 주변 공사로 모두 훼손되었다. 이곳은 웅천에서 무창포로 통하는 606호 도로의 바로 남쪽, 무송윤씨 묘소의 북쪽이다.

과거에는 도로에 인접해 있었는데 도로를 낮추어 현재는 도로보다 상당히 높은 곳이다. 606호 지방도를 바로잡는 공사 때 주변을 발굴한 결과 청동기 시대 석곽묘(돌닐무덤)이 발굴되고 돌칼이 출토된 바 있다. 고인돌이 위치했던 곳의 해발고도는 65m 정도이다.

① 벼락재 1호 고인돌

웅천면 관당리 벼락재에 있던 고인돌 중 가장 동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덮개돌은 편마암으로 $250\times190\times80\text{cm}$, 둘레 700cm 였다. 동쪽은 높이 80cm 정도로 두껍고 서쪽으로 얇았다. 긴 방향은 동서 방향이었다. 동쪽 부분에 덮개돌과 다른 석질의 펌돌 1개가 보여 고인돌이 확실했다. 2호와는 60cm 떨어져 있었다.

② 벼락재 2호 고인돌

웅천읍 관당리 벼락재에 있던 3기의 고인돌 중 가운데에 있는 고인돌이었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130\times100\times50\text{cm}$, 둘레 420cm 였다. 긴 방향은 남북이고 펌돌은 보이지 않았다. 1호와 60cm , 3호와 50cm 떨어져 있었다.



벼락재 1호 고인돌(2001)



벼락재 2호 고인돌(2001)

③ 벼락재 3호 고인돌

웅천읍 관당리 벼락재에 있던 3기의 고인돌 중 가장 서쪽에 있는 고인돌이었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다듬어진 듯 둥글고 납작하였다. 크기는 $280\times200\times40\text{cm}$, 둘레 840cm 였다. 펌돌은 보이지 않았다.

(2) 각굴 고인돌

관당리 각굴마을, 구수굴 서쪽 산 기슭에 있는 3기의 고인돌이다. 1기가 펌돌과 무덤방이 뚜렷하여 고인돌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2개의 바위도 고인돌로 보인다. 고인돌이 있는 산의 정상 부분에는 고인돌 만들기에 적당한 편마암 노두가 발달해 있다.



벼락재 3호 고인돌(2001)



훼손된 벼락재 고인돌(2019.3.8.)

① 각굴 1호 고인돌

관당리 각굴에 있는 3기의 고인돌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10 \times 140 \times 80\text{cm}$ 이고, 2호 고인돌과는 470cm 떨어져 있다.

② 각굴 2호 고인돌

각굴에 있는 3기의 고인돌 중 가장 전형적인 고인돌이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70 \times 180 \times 90\text{cm}$ 크기이고, 동쪽에 있는 흰 돌은 $120 \times 70 \times 60\text{cm}$ (높이), 서쪽에 있는 흰 돌은 $140 \times 70 \times 30\text{cm}$ (높이) 크기이다. 무덤방의 폭은 95cm이다. 북쪽에 있는 1호 고인돌과는 470cm, 동쪽에 있는 3호 고인돌과는 320cm 떨어져 있다.



각굴 1호 고인돌(2019.3.5.)



각굴 2호 고인돌(2019.3.5.)



각굴 3호 고인돌(2019.3.5.)

③각굴 3호 고인돌

각굴에 있는 3기의 고인돌 중 가장 동쪽에 있는 고인돌이다. 덮개돌만 보인다. 편마암으로 된 덮개돌은 200×80×60cm인데 주변이 침식되어 기울어져 있다. 중심 고인돌인 2호와는 320cm 떨어져 있다.

2) 관당리 석관묘(石棺墓, 돌널무덤)

(1) 발굴과정

관당리의 유적발굴은 1999년 12월 606호 지방도의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 때문에 이루어졌다. 당시 606호 지방도의 벼락재 구간은 경사도 급하고, 구부러진 구간이 많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할 뿐 아니라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벼락재를 파내고 도로를 직선화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벼락재 구간에 문화유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필자는 벼락재를 지나는 ‘토진곳 목장성’이 있으니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긴급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사업을 시행한 곳은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였고, 발굴기관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었다. 발굴 결과 뜻밖에도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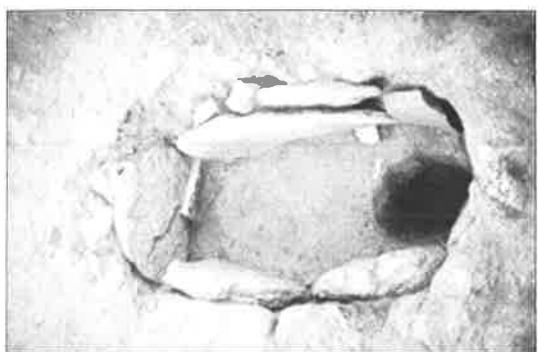
(2) 발굴성과

1999년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25일간 이루어진 발굴에서 토진곳목장성의 축조 현황을 파악하였고, 청동기시대의 석관묘(石棺墓) 3기, 토광묘(土壙墓) 4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 토진곳 목장성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대표적인 유물이 출토된 2호 석관묘를 소개한다.

2호 석관묘는 지표를 조사하는 중에 판상할석 3매가 노출되어 조사하게 되었다. 묘광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풍화 암반을 길이 133cm 너비 85cm, 깊이 48cm로 굴착하고 내부에 석관(石棺)을 축조하였다. 묘광 내부에서 확인된 석관의 규모는 길이 110cm, 너비 50cm 정도로 장단비는 2.2:1이다.

석관의 최대깊이는 37cm정도이다. 석관의 축조는 양단벽의 경우 판상할석 1매를 세워서 축조하였으며, 장벽은 판상할석 2매를 세워쌓기하여 축조하였다. 바닥면은 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서단벽(西短壁)의 바닥에 원형의 소혈(小穴)을 시설하였는데 그 규모는 직경 32cm, 깊이 22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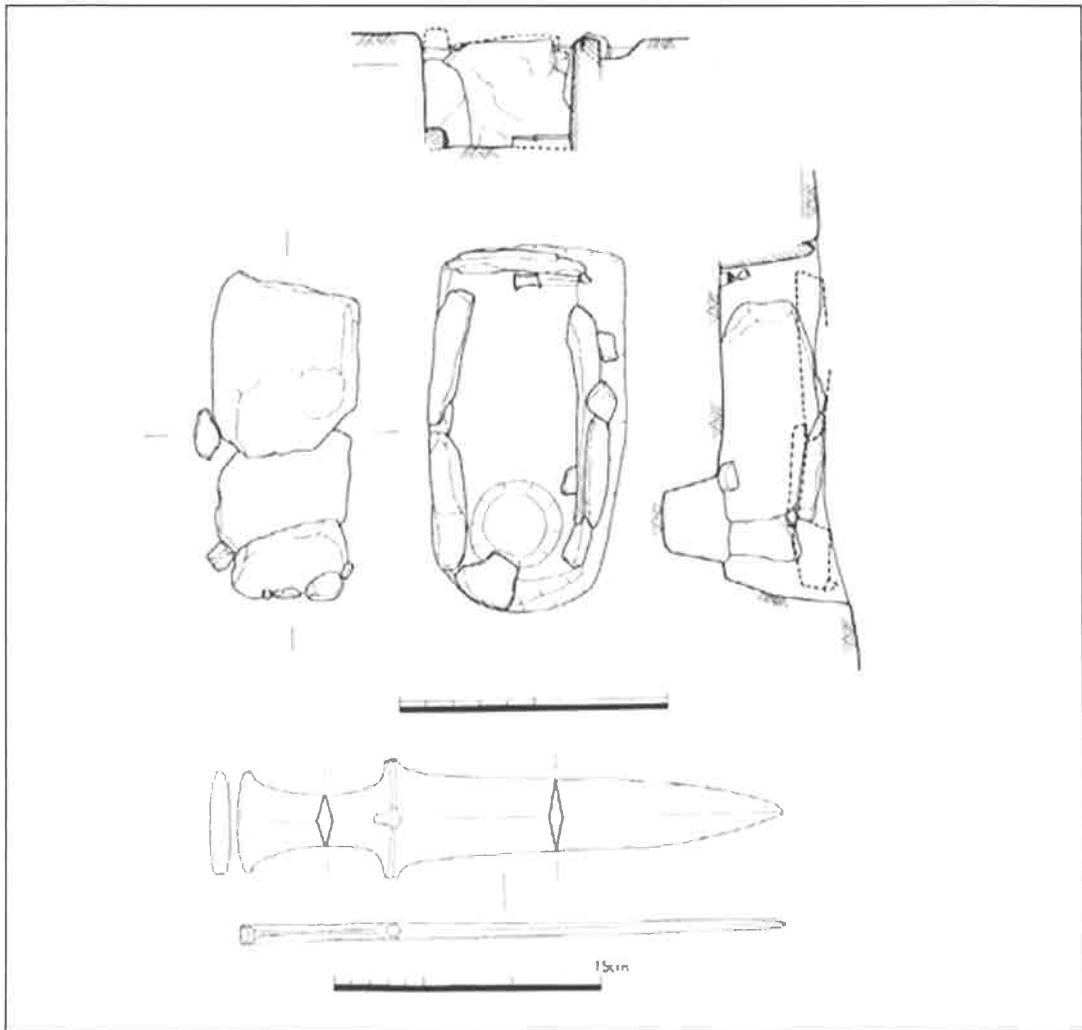
유물은 칼끝이 부러진 유병식마제석검(有柄式磨製石劍) 1점이 출토되었다. 석검의 총 길이는 30.9cm, 검신부 길이 22cm, 검신부 최대 너비 5cm, 두께 0.8cm 이다. 당시 토광묘에서도 부러진 석검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석관묘(1999)



2호 석관묘의 돌칼(1999)



벼락재 석관묘의 평 · 단면도와 출토유물

3) 토진곶 목장성

보령 서남부 지역인 웅천읍 소황리 해안에서부터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 해안까지 약 11km에 이르는 옛 남포현 토진곶 목장의 목장성으로 추정되는 성이 발견되었다. 이 성은 웅천읍 소황리 부사방조제 부근에서 시작하여 웅천읍 소황리 · 황교리 · 독산리 · 죽청리 · 관당리를 둘러싸고 해안으로 이어지는 성으로 석축(石築), 토축(土築), 토석혼축(土石混築)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도 흔적이 뚜렷하다.



토진곶 목장성의 관당리 구간(1966년 항공사진)

(1) 문헌검토

관당리의 중앙을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성이 토진곶 목장성이라는 것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8년 8월 16일 정축조(1426년 丙午年)에

충청도 감사와 절제사가 경차관(敬差官)과 합동하여 계하기를

“도내에 있는 서산(瑞山)의 다리관(多利串) · 흥양(興陽) · 토진(土津) · 맹관(孟串) 등 네 개의 목장(牧場)을 친히 답사하며 살펴보니, 자못 불편한 점이 있어, 위의 목장의 말들을 합쳐 방목(放牧)할 수 있는 곳을 탐문하여 보니, 홍주 구역 안에 있는 대산관(大山串)은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고, 목장을 축조하는 공역도 편이(便易)하게 되었으니, 청하건대 대산관에 거주하는

백성을 다리관·토진·맹관 등지에 자원에 따라 이주(移住)하도록 하고, 추수를 기다려 네 군데의 목장의 말을 대산관으로 옮겨 방목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를 병조에 내리었다. 병조에서는 청하기를, “아뢴대로 땅이 얼기 전에 목장을 축조하고, 정미년(丁未年-1427년) 춘등점마별감(春等點馬別監)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여 큰말은 대산관에 방목하고, 작은 말은 흥양관(興陽串)에 방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3년 3월 28일 임진조(1431년)에 병조에서 아뢰기를 “소는 국가에 있어 그 용도가 심히 큰 것이온데, 관에서 이를 길러 번식하지 않는 것은 실로 궐전(闕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 고을에 황소와 암소를 배정하여 국고의 요두(料豆)로 길러 번식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실려 사복사(寺僕寺)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대로 하라 하고, 이내 본조와 사복사 제조에게 명하기를, “목장으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해 찾으라.” 하여, 지난 정미년에 혁파한 목장을 상고한 바, 충청도 당진현(唐津縣)의 맹관(孟串), 태안군(泰安郡)의 다리관(多利串), 남포현(藍浦縣)의 진관(津串) 등은 모두 소를 놓아기를 만한 곳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 . . . 옛 목장(牧場)이 10이다. 토진곳(土津串)에 있다. 둘레가 16리 34보인데, 안의 토장(土場)이 8리 40보요, 석장(石場)이 7리 36보요, 목장(牧場)이 1백18보이다. 다만 도랑물(渠水)만 있고, 또 띠(茅)와 고사리 풀만 있다. . . .

위 기록에 의하면 세종 초기까지 남포현 두진곳에 진관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남포현에 해당하였던 보령시의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내민 육지인 곳(串)은 웅천읍 소황리 황교리 죽청리 관당리 일대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석성, 토성으로 연결된 약 11km에 이르는 성이 있으니 이것이 조



토진곳 목장성의 위치

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토진곶 목장의 목장성이 분명하다. 그리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목장은 대부분 섬이나, 바다 쪽으로 내민 육지인 곳에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곳 웅천읍 서부 지역은 목장을 설치할 만한 곳이다. 섬은 별도의 목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이도 방목이 가능하고, 곶(串)은 육지 쪽만 막으면 방목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토진곶 목장의 사용 시기는 위의 기록에서 세종8년(1426년)에 진곶목장(津串牧場)의 말(馬)을 서산 대산목장으로 옮기자는 논의와 함께 이듬해인 정미년(세종9년 1427년)에 그대로 시행했다고 하므로 1427년에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세종 13년(1431년) 진곶목장(津串牧場)은 1427년에 함께 폐장되었던 다른 목장들과 함께 우목장(牛牧場)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폐지된 고목장(古牧場)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목장으로서의 기능도 오래가지 못하고 세종 초기에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토진곶 목장의 설치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시대부터 조선 세종 때의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진곶 목장은 고려 시대에 많은 말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토진곶 목장이 있는 남포현은 백제 시대부터 웅천천 하구를 이용하여 서해안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로 알려졌으며, 고려 시대는 남포현 치소가 웅천천 하구인 현재의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목장의 관리나 말의 운반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토진곶 목장은 중앙 평야에 수초(水草)가 무성했을 것이고, 그 수초 사이에 물이 있으며, 특히 통달산 끝자락의 조그만 석호는 좋은 식수의 공급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야산에도 풀이 풍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토진곶 목장이 폐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세종 8년(1426년)의 기록에 의하면 말을 옮기는 이유를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불편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도 목장의 올니니로 쌓은 성벽의 실이가 길이 간리하기가 불편하고 그에 따라 호랑이 등의 맹수가 자주 침범하며 도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었을 것이다.



토진곶 목장성
(관당리 삼정굴 앞, 2019.3.28.)

그리고 말이 낮은 곳의 성벽을 넘어주변 민가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벽의 보수 문제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토진곳 목장의 폐지 이후에 설치된 다른 목장의 울타리인 성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토진곳 목장의 성벽 길이는 위 세종실록의 기록대로 총 15리 184보인 데 비하여, 홍주 흥양곳 목장(興陽串牧場)은 둘레가 49리 339보이지만 성벽의 길이는 불과 토장(土場)이 1리 94보, 목장(木場)이 1리 65보이다. 서산 대산곳 목장(大山串牧場)은 둘레가 90리 170보이지만 성벽의 길이는 토장이 1리 297보, 목장이 2리 270보이다.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세종13년(1431년)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여 우목장(牛牧場)으로 다시 부활되었으나, 풀과 물이 좋지 않아 결국 완전히 폐장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마목장(馬牧場)이 폐장된 후 5년 후에 우목장(牛牧場)을 다시 설치하였지만 그 동안 목자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아 수초(水草)가 나빠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도랑물과 띠풀과 고사리 풀만 있다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고사리 풀이나 띠풀은 가축의 사료용 풀로서는 부적합한 것이다.

조선 초기 남포 토진곳 목장에서 사육되었던 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둘레 49리 339보의 흥양목장이 437필, 둘레 90리 170보의 대산목장이 942필, 둘레 40리의 원산도 목장이 100필의 말을 기른 것으로 볼 때 100-200필 정도의 말을 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성에 관한 전설

토진곳 목장성에 관하여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한다. 하나는 축성에 관한 전설로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사람이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이 서울에 과거보려 올라가자 그동안 딸에게는 빗자루로 쓸어 토성을 쌓으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속으로 아들이 먼저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딸이 먼저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다른 하나는 성의 용도에 관한 전설로 먼 옛날 군마를 키우던 성이며, 성 안에서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무술장터’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것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소를 몰고 마을 뒷산에 오르면 목장성이 한눈으로 내려다 보였다. 당시는 민둥산이라 멀리에서도 성의 윤곽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때 필자의 큰아버지께서³⁾는 늘 “저 성은 옛날 군마를 키우던 성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전설에서 전자는 우리나라 성에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오누이전설’이며 후자는 성의 용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3) 黃憲周(1911 ~ 1970), 응천읍 구룡리 화망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생활함.

(3) 성의 규모

일반적으로 방어를 위한 성은 산정 부분이나 산의 계곡 부분을 둘러싸는 소규모의 성이며, 읍성의 경우도 수백m 또는 수km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연구 지역의 성은 11km에 이르러 방어를 위한 성이나 읍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규모의 방목지를 필요로 하는 목장을 둘러싸는 목장성이 분명하다.

(4) 축성방법

① 성의 폭

토진곳 목장성이 성폭은 상당히 좁다. 현존하는 토축 구간의 하부폭은 4~6m에 불과하여 상부가 침식되어 퇴적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도 더 좁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있는 부분의 상부폭이 가장 좁은 곳은 180cm에 불과하다. 석축 구간에 있어서는 더욱 좁아지는데 황교리 광암 마을 서쪽 급경사 구간에는, 남아있는 하부폭이 180cm에 불과하다. 하부폭이 이 정도면 상부폭은 1m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의 폭이 좁은 것은 높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므로 토진곳 목장성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든 담장에 불과한 것이다.

② 능선 부분

토진곳 목장성이 목장성이라는 증거는 산 능선의 석축 부분에서 더 뚜렷하다. 보령 지역에 있는 비교적 큰 포곡식 산성인 수부리 산성이나 성동리 산성도 산 능선 부분을 이용해서 쌓았으나 축성 방법이 이 목장성과는 전혀 다르다.

수부리 산성이나 성동리 산성에서는 능선의 중앙에 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능선의 중앙에서 밖으로 치우쳐 성을 쌓으므로써 공격해 오는 적에게는 급경사의 곤란함을 주고 내부에 있는 아군에게는 평지의 이로움을 주었다. 토진곳 목장성은 능선의 중앙에 성을 쌓아 성 안팎으로 평지가 형성되었다. 이것도 이 성이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이 아니라 단지 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토축 구간에서도 토진곳 목장성은 주변의 흙을 떠올려 쌓아 양쪽에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황률리 산성이나 달산리 산성의 경우에는 산정부분의 흙을 깎아내려 축성하였다. 성 양쪽에 넓은 평지가 형성되면 아군과 함께 적군에게도 지형의 유리함을 제공하여 방어용 성으로는 부적당한 것이다.

③ 산봉우리 부분

수부리 산성이나 성동리 산성의 경우 산봉우리 부분에서는 방어의 유리함을 얻기 위하여 산봉우리 부분을 성으로 둘러싸 성을 쌓았다. 수부리 산성의 경우 산봉우리를 둘러싸기 위해서 수십m의 성벽을 밖으로 내어 쌓았다. 그러나 토진곳 목장성의 경우는 어떤

곳에서도 산봉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없다.

황교리 구마량진성(舊馬梁鎮城)이 있는 산봉우리, 황교리 광암마을 동쪽 산봉우리, 황교리 부주굴과 노천리 사이의 산봉우리, 죽청리 잠나무굴과 구룡리 사이의 매봉재 산봉우리, 관당리 벼락재에서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매봉재 봉우리에서는 성이 봉우리에 오르지 않고, 봉우리 밑으로 통과하여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것은 방어에 유리한 산봉우리를 성 밖으로 하여, 성안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성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봉우리를 통과하여 성을 쌓는 것보다 봉우리 아래의 급경사면에 성을 쌓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데도 봉우리 아래로 쌓은 것은 산봉우리를 성 안으로 포함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성의 규모

성의 길이를 1: 5000 지형도에서 측정하여 본 결과 11km였다. 이는 경사를 무시한 수치이므로 실제는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여겨진다. 성의 길이에 관하여 세종실록자리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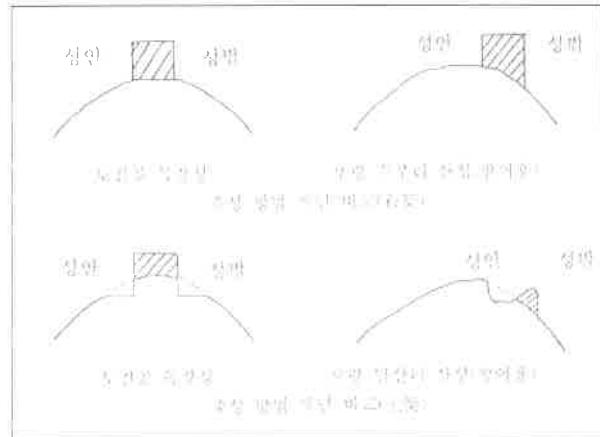
古牧場一, 在土津串, 周回十六里三十四步內, 土場八里四十步, 石場, 七里三十六步, 木場一百十八步, 只有渠水, 又有茅蕨草.

[역] 예전 목장했던 곳(古牧場)이 토진곶(土津串)에 한 군데 있는데 둘레가 16里 34步이다. 그 안에 토장(土場)이 8里 40步, 석장(石場)이 7里 36步, 목장(木場)이 118步인데 도랑물(渠水)이 있을 뿐이고 도토리나무 · 고사리(茅蕨) 같은 것이나 우거져 있다.

위의 기록에서 목장성의 총 길이는 16리 34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세종 때의 등량전척(等量田尺)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약 12km이다. 1:5000 지형도에서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길이 11km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정확하다고 하겠다. 또한 축성 재료별 비율을 계산해 보면, 토장 50.7%, 석장 44.4%, 목장 4.8%이다.

성안의 면적은 1:50000 지형도에 1cm²의 방안을 그려 측정한 결과 약 14.5km²이다.

성의 높이는 무너지고 침식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토축 구간에서 가장 높이 남아



축성방법 개념 비교

있는 구룡리 마차울 ~ 죽청리 큰무술 구간이 235cm이고, 석축 구간에서 가장 높이 남아 있는 노천리 가라티 ~ 황교리 부주굴 구간이 146cm이므로 최대높이는 235cm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말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수직의 벽을 만들기는 석축구간이 유리하기 때문에 석축구간이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석축 구간의 축성 방법도 성의 안쪽을 정교하게 수직으로 쌓고 성의 밖은 정교하지 않게 쌓은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6) 축성 재료

축성은 돌을 구하기 쉬운 구간은 석축으로 하였다. 특히 경사가 급한 부분은 큰 돌로 측면을 쌓고 작은 돌을 속에 채우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돌이 흔치 않은 곳에는 돌로 측면을 쌓고 안에 흙을 채우는 방식을 택하였다. 돌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주변의 흙을 가운데로 걷어 올려 축성을 하였다. 이런 곳에서는 토성 양쪽에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경사가 아주 급하여 돌이나 흙으로 성을 쌓을 수 없는 곳이나 해수가 드나드는 곳에는 목책을 둘러 성을 대신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진곳 목장성의 발굴 (관당리 벼락재 1999)

4) 해창(海倉)

무창포에 있던 해창은 조선후기의 여러 읍지(邑誌)와 지도에 기술되어 있는데 1757~1765년 사이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餘地圖書)의 남포현에는 倉庫 조에 ‘海倉庫 9間 在縣西二十里 熊川面’이라고 하여 해창 9칸이 남포현 치소의 서쪽 20리 응천면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무창포의 해창을 말하는 것이다.

무창포의 해창에 관하여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지도는 1872년에 그린 남포현 지도이다. 이 지도에 의하면 해창의 건물이 4채 그려져 있어 여지도서가 만들어진 1750년대의 9칸보다 창고가 확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포현 응천면의 마을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소개하였다.

龍臥里 花望里 德山里 倉里 看入里 獨山里 篓洞 廣岩里 蕈洞 場基里 營伍里 九龍里
蘆田里 沙近里 大川里 長佐洞 戶 四百九十六戶

위의 마을 이름에서 德山里(덕뫼 마을)과 看入里(간드리 마을) 사이에 倉里를 표기하였다. 이 창리는 현재의 무창포(무챙이)를 말하는 것이다.



해창의 위치(창뜸, 1966년 항공사진)

그리고 1876년에 간행된 광산김씨병자대보(光山金氏丙子大譜)의 김인(金勦)란에 '묘남포 응천면 신해창 당치 임좌 합평(墓藍浦熊川面新海倉堂峙壬坐合竈)'이라고하여⁴⁾ 관당리에 있는 해창을 신해창으로 표기하고 있다. 해창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새로 만들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해창이 있던 곳은 무창포 입구에 남쪽으로 난 골짜기인 창뜸이다. 이곳은 사구나 습지로부터 떨어진 곳이면서, 만조가 되면 바로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쉽게 배에 선적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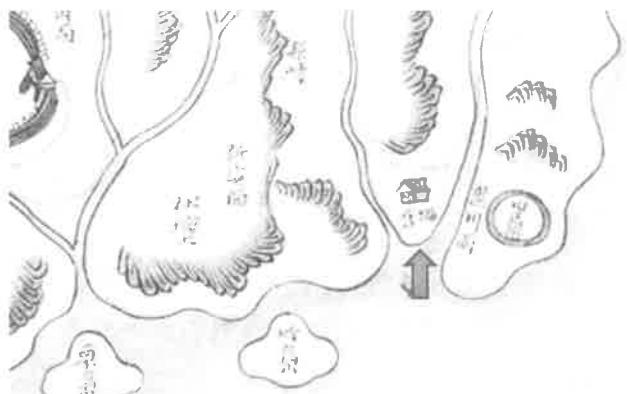
즉 배에 선적하기 유리하면서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소이다.

무창포에 거주하는 현씨 집안에 시집온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창뜸의 창고는 현씨네 증조부가 지어 운영했다고 한다.

무창포에 거주하는 현씨와 창고가 어떤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전설이다. 또 1925년생인 김찬경씨의 증언에 의하면, 창뜸에서 남포고을의 원님이 정월달에 창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 한테서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조선시대 서울로 세곡을 운반할 때에는 출항할 때 순풍제

를 지내고, 항해하는 도중에 용당제, 해약제 등을 지냈다. 이런 제사는 영운관인 현감이 주관하였다. 정확한 내용이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해동지도(1750년대)의 무창포 해창



여지도서(1759~1765)의 무창포 해창

4) 광산김씨대종회, 2000, 광산김씨병자대보(1876년간 영인본), 8권 6쪽.



지방지도(1872)의 무창포 해창

5.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징용

보령시 응천읍 관당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은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응천읍 관당리 출신자를 검색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시피징용자와 귀환·미귀환자 명부(충청남도)
日政時被徵用者及歸還·未歸還者名簿(忠淸南道)-1952년 작성

주소	성명	생년월일(단기)	피징용연월일	귀환연월일	미귀환 이유	비고
보 령 군 응 천 읍 관 당 리	安連興	4254.3.5	4275.9.10		사망	
	南贊熙	4253.3.5	4275.9.10	4277.10.1		
	張明煥	4238.3.24	4270.5.1	4278.9.1		
	曹任德	4240.5.19	4274.8.5	4275.5.30		
	金正泰	4238.10.1	4273.9.13	4276.10.13		
	田龍權	4255.7.3	4276.5.1	4277.7.30		
	金相殷	4254.4.24	4274.5.30	4278.8.9		
	南世熙	4246.1.12	4273.7.8	4276.5		
	金正宇	4256.11.21	4274.6.5	4275.5.30		
	金正老	4249.10.1	4273.5.10	4278.8.9		
	金正魯	4256.11.23	4273.5.10	4278.8.9		
	金乃熙	4255.12.23	4273.8.5	4275.5.30		
	金敬環	4255.9.15	4274.8.5	4275.5.30		
	金正燮	4256.2.2	4275.5.16	4278.5.1		
	田龍玉	4250.1.7	4275.5.16	4276.9.15		
	玄之根	4239.10.16	4272.8.15	4276.8.15		
	金漢鍾	4250.2.28	4274.12.5	4276.1.30		
	金正淳	4235.5.6	4271.5.30	4273.8.6		
	金允吉	4252.9.7	4270.7.16	4273.5.27		
	梁分順	4253.2.25	4274.5.10	4278.5.10		
	金鍾錫	4253.2.25	4275.3.7	4276.5.13		
	金鍾舜	4252.10.10	4276.7.10	4278.6.5		
	金点龍	4238.10.5	4274.6.10	4276.7.13		
	金鳳環	4252.7.22	4274.6.10	4276.5.30		
	金泰俊	4248.5.2	4272.5.1	4275.7.30		
	白烈均	4249.7.8	4274.6.10	4275.5.30		
	金正義	4247.11.19	4273.5.20	4275.2.30		
	金蓮經	4258.6.9	4275.8.10	4278.5.30		

2) 6.25 사변

6.25 전쟁에 관한 내용은 현재 주민들한테서 단편적으로 들을 수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민민군들이 트럭을 타고 벼락재를 넘어와 어업조합 마당에 집결했고 무창포와 간드리 마을 사이에 있는 할미섬에 인민군의 1개 중대가 주둔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석대도에서 미군 포로가 1명 붙잡혔다고 한다. 6.25 사변으로 희생된 분의 명단을 소개하고 석대도에서 붙잡힌 미군 포로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관당리 출신 6.25 전쟁 피랍자 (자료: 보령시지)

이름	성별	연령	직업	피랍일	주 소
金聖泰	남	33	농업	1950.8.15	웅천읍 관당리
金正海	남	22	농업	1950.8.15	웅천읍 관당리
尹成根	남	24	농업	1950.8.15	웅천읍 관당리

(2) 관당리 출신 충혼각 위패 봉안자 (자료: 보령시지)

전사자	계급	전사일	지역	관계	연고자	주 소
남상직	광복	41.1.12	관당	손	남동화	웅천읍 관당리 683
이세교	하사				최명자	웅천읍 관당리 683
이덕봉	순경			모	신천순	웅천읍 관당리 745
정구영	하사			모	라성여	웅천읍 관당리 766
라홍균	병장	64.5.29		모	유증여	웅천읍 관당리 753

3) 인천 상륙작전과 무창포

1950년 6.25 남침으로 부산 부근을 제외한 전국이 북한군의 지배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쟁 상황을 반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이 작전은 7만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1950년 9월 15일 02:00에 개시하였다.

이때 한국군 제1해병연대, 17연대, 미 제5해병연대는 부산에서 출발하고, 미제1해병사단은 일본 고베항, 미 제7사단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각각 출발하였다. 수송선단과 화력 지원함대 및 지휘함은 일본 사세보에서 출발하여 14일에 덕적도 근해로 집결하여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륙부대는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즉 9월 5일부터

북으로는 평양에서부터 남으로는 군산까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상륙작전 가능지역에 폭격을 실시하였다. 9월 12일부터는 미국과 영국의 혼성 기습부대가 군산을 공격하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맹포격을 가하였다.

특히 군산지역에는 9월 14일 해안 주변의 주민들을 철수하도록 종용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주위 50km 이내의 도로와 철도 등에 실제 상륙작전 전에 가하는 폭격을 방불케 하는 폭탄을 퍼부었다. 또한 미군과 영국군의 연합기습부대가 군산 해안에서 전투정찰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양동작전은 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폐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양동작전을 한 것이다.⁵⁾

한편, 관당리 무창포 해안은 군산항에서 직선거리로 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모래 해안이 많아 상륙하기 좋은 곳으로, 북한군도 이를 인식하고 모래해안 주변에 참호를 파고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해수욕장을 통해 상륙할 것을 예상하고, 간드리 마을 남북의 산에 호를 구축하고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무창포항 북쪽 산에는 기관총 진지를 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웅천으로 통하는 606호 지방도 주변에도 호를 파 상륙작전에 대비하였다.

9월 12일 밤, 무창포 해안에는 포 사격과 공습이 있어 게를 잡으려 목⁶⁾으로 들어가던 주민이 기총소사(機銃掃射)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일본에서 출발한 HMS Whitesand Bay 호는 미군과 영국군의 혼성부대 130여 명을 태우고, 덕적도를 향해 항진하다가 무창포 부근에 이르러 잠시 정지하고, 특수부대원 8명씩 탄 고무보트 3척을 내려, 무창포 해안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석대도, 하나는 무창포, 하나는 독산쪽 해안으로 접근하였다. 해안에 접근하여 소란만 피워, 인천상륙작전을 숨기려고 하는 양동작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무장을 하고 들어왔고 바로 큰 배로 돌아가 복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불운하게도 한 보트가 인민군의 기관총에 피격(被擊)되어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보트와 함께 석대섬에 남게 되었다.

이때 Noreen 중위가 석대섬에 상륙하여 유해와 부상자를 발견하고, 모르핀과 권총을 주고 복귀하였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군인들은 모선으로 복귀하였고,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는 시간 때문에 부상자를 낙오시킨 채 복상하였다.

다음날인 9월 13일 무창포의 인민군들이 배를 타고 석대섬에 건너와 부상당한 미군을 포로로 잡아갔고, 전사한 미군의 시신도 무창포로 옮겼다. 전사한 미군은 인민군들이 김양봉씨를 시켜 현재의 씨싸이드 호텔 부근에 묻었는데, 1954년 김재순이 신고하여 미군측에서 정중하게 발굴해 갔다.

5) 왕수정, 2013, 한국전쟁, 132쪽

6) 요즘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석대섬과 무창포 사이의 바위너덜. 사리 때 썰물이 되면 넓은 바위너덜이 노출되어 게,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는 곳이다.

포로로 잡힌 미군은 대위였는데, 권총을 2자루 차고 있었고,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걸을 수도 있었다. 인민군들이 철산이네 마당에 데려다 놓고 심문을 하였다. 당시 인민군들은 북한군은 별로 없었고, 흥성농고, 예산농고 등에 다니다가 의용군으로 나온 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아 통역을 하여 심문을 하였다.

심문하면서 학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왜 들어왔느냐는 질문에는 지형을 정찰하기 위해 왔다고 하고,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동료가 심한 부상을 당하여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남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말로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였다고 한다.

4) 제2연평해전과 한상국 상사

제2연평해전(第二延坪海戰)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다.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 30분 가량 진행된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큰 손상을 입었다.

1999년 6월 15일 참수리 고속정이 선체로 밀어내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입하는 북한 해군을 막아내던 중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3년 후인 2002년 6월 9일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이날은 2002년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로 온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된 시기였다.

북의 함정을 차단 기동하던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를 북한의 등산곶 684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함포로 공격하여 시작된 전투는 약 30분간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도중 침몰하였고, 정장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상병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겪었다. 북한의 등산곶 684호도 우리 해군의 반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예인 당했다. 뒤에 밝혀진 바로는 북한군 해군 13명이 전사하고, 25



광천제일고 교정에 있는 한상국상사 동상
(2018.2.24.)

명이 부상당했다

한상국 상사는 웅천읍 독산리 217번지(동뒤마을)에서 출생하여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에 거주하였다. 1987년 2월 황교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웅천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93년 광천상업고등학교(현, 광천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광천제일고등학교(구 광천상고, 정보고) 총 동창회에서는 모교 39회 동문인 한상국 상사를 기리고자 2012년 6월 22일 교정에 동상을 세웠다.

한편 보령시에서도 2019년 6월 26일 한상국상을 기리는 조형물을 만들어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옆에 세웠다. 보창산업 권혁영님의 후원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세웠으며 비문은 황의천님이 썼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한상국 상사릴 기리는 조형물(웅천읍 관당리, 2019. 7.23)

한상국 상사를 기리며

한.일 월드컵 열기와 응원으로 대한민국이 불게 물들었던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의 빛발치는 포탄과 불길 속에서 해군 참수리 357정 조타키를 끝까지 잡고 침몰해 가는 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조타장 한상국 상사, 그러나 그는 적의 포탄에 배와 함께 차디찬 바다 속으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애국심과 전우애로 대한민국의 바다와 전우를 지켜낸 한상국 상사의 필사즉생(必死卽生) 위국

현신(爲國獻身)의 정신은 대한민국 참군인의 표상이며 영웅이었습니다.

한상국 상사의 고향은 이곳 보령 무창포입니다. 그동안 한상국 상사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도 많았고, 대한민국 해군 유도탄 고속함 한상국 함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기에 보령에서도 한상국 상사가 자란 고향 마을 무창포에 제2연평해전 참전상(參戰像)을 건립하고 몸 바쳐 나라 지킨 감동과 교훈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고통과 그리움으로 세월을 지내고 계신 유가족, 그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 뿐인 남편, 하나 뿐인 아들을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바친 존경스러운 유가족께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정 조타장으로 제2연평해전에서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조국의 바다를 지키며 전몰한 한상국 상사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유가족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6일

보령 시장

□ 故 한상국 상사 약력

● 출신

1975년 1월 31일, 보령시 웅천읍 출생

● 학력

웅천 황교초, 웅천중학교, 광천상업고(현 광천제일고) 졸업

● 군 입대

1995년 6월 17일, 부사관 155기로 임관.

● 군경력

- 포항함, 충주함, 부산함 조타사로 근무.
- 2001년 12월 1일, 참수리 고속정 357호의 조타장으로 부임 근무.
- 2002년 6월 29일, 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전사.
- 2002년, 해군 중사 계급과 화랑무공훈장이 추서.
- 2009년 12월 1일,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570톤 유도탄 고속함(PKG)인 한상국 함(艦)이 진수됨.
- 2015년 7월 10일, 해군 상사로 추서.

5) 이장 명단

이장명단은 웅천읍사무소에 있는 이장발령대장을 참조하였다. 대장에는 1963년부터 기록되었다. 그 이전 명단은 아쉽게도 분실되어 찾을 수 없었다.

(1) 관당1리

번호	이장명	날 짜	발령사항
1	金榮奭	1963.1.12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2	朴鍾甲	1963.1.12	冠洞里長에 임함
3	朴鍾甲	1966. 4. 7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4	朴鍾甲	1966. 4. 8	관당리 이장에 임함
5	金正有	1966. 8. 5	읍면리 행정지도원에 힘함. 월수당 3000원을 급함. 관당리 근무를 명함
6	金正有	1967. 11. 10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7	朴鍾甲	1968. 2. 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8	朴鍾甲	1968. 2. 1	冠洞 이장에 임함
9	박종갑	1970. 11. 5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0	김경재	1970. 12. 7	관동 이장에 임함
11	김경재	1973. 6. 1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2	박종갑	1973. 6. 17	관동리장에 임함. 월 5000원을 급함.
13	박종갑	1973. 11. 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4	라타호	1973. 11. 20	관동 이장에 임함. 월수당 5000원을 급함.
15	김영진	1979. 2. 28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6	김영진	1979. 3. 1	관동 이장에 임함
17	김영진	1979. 6. 30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8	라풍균	1979. 7. 1	관동 이장에 임함
19	라풍균	1980. 7. 3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	한인원	1980. 8. 1	관당1리 이장에 임함
21	한인원	1987. 12. 31	원에 의한 면직
22	한인원	1988. 1. 1	관당1리 이장에 임함
23	한인원	1988. 12. 31	원에 의한 면직
24	안철수	1989. 1. 1	관당1리 이장에 임함
25	안철수	1991. 2. 27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26	안철수	1991. 2. 28	관당1리 이장에 임함

27	안철수	1991. 9. 27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8	라영균	1991. 10. 25	관당1리 이장에 임함
29	라영균	1993. 2. 5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30	이영우	1993. 2. 5	관당1리 이장에 임함
31	이영우	1995. 4. 1	임기만료 및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32	이영우	1995. 4. 1	관당1리 이장에 임함
33	이영우	1996. 4. 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34	이영우	1996. 4. 1	관당1리 이장에 임함
35	이영우	1997. 2. 24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36	김기섭	1997. 2. 25	관당1리 이장에 임함
37	김기섭	1999. 2. 24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38	김영진	1999. 2. 24	관당1리 이장에 임함
39	김영진	2001. 2. 24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40	김영진	2001. 2. 24	관당1리 이장에 임함
41	김영진	2003. 2. 24	관당1리 이장에 임함
42	김영진	2004. 2. 24	관당1리 이장에 임함
43	김영진	2007. 2. 24	관당1리 이장에 임함
44	김영진	2012. 3. 14	관당1리 이장
45	김영진	2015. 3. 13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46	김병호	2015. 3. 14	관당1리 이장에 임함-현재

(2) 관당2리

번호	이장명	날 짜	발령사항
1	金正有	1966. 4. 7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2	朴鍾甲	1966. 4. 8	관당리 이장에 임함
3	金正有	1966. 8. 5	읍면리 행정지도원에 힘함. 월수당 3000원을 급함. 관당리 근무를 명함
4	金正有	1967. 11. 10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5	朴鍾甲	1968. 2. 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6	李鍾殖	1968. 2. 1	武昌 이장에 임함
7	이종식	1971. 12. 3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8	김지덕	1972. 1. 1	무창 이장을 명함
9	김지덕	1974. 6. 30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0	김진의	1974. 7. 1	무창 이장에 임명함, 월 수당 5000원을 급함.
11	김윤곤	1979. 2. 28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2	정성기	1979. 3. 1	무창 1구 이장에 임함
13	정성기	1982. 1. 4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4	정성기	1982. 1. 6	관당2리 이장에 임함
15	정성기	1982. 7. 27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6	김교민	1982. 7. 31	관당2리 이장에 임함
17	김교민	1984. 5. 1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8	김서경	1984. 11. 15	관당2리 이장에 임함, 월 수당 45000원을 급함
19	김서경	1987. 12. 31	원에 의한 면직
20	김서경	1988. 1. 1	관당2리 이장에 임함
21	김서경	1989. 12. 31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22	김서경	1990. 1. 1	관당2리 이장에 임함
23	김서경	1992. 4. 30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4	정진한	1992. 5. 1	관당2리 이장에 임함
25	정진한	1994. 7. 1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26	나인균	1994. 7. 1	관당2리 이장에 임함
27	나인균	1996. 5. 2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28	나인균	1996. 5. 2	관당2리 이장에 임함
29	라인균	1998. 7. 1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30	라인균	1998. 7. 1	관당2리 이장에 임함
31	라인균	1998. 9. 3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32	김학태	1998. 9. 3	관당2리 이장에 임함
33	김학태	2002. 9. 10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34	김학태	2002. 9. 10	관당2리 이장에 임함
35	김석환	2004. 9. 3	관당2리 이장에 임함
36	김석환	2008. 8. 8	관당2리 이장에 임함
37	김석환	2011. 9. 5	관당2리 이장
38	김석환	2014. 9. 4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39	김홍집	2014. 9. 5	관당2리 이장에 임함
40	김홍집	2017. 9. 4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41	김양경	2017. 9. 5	관당2리 이장에 임함-현재

(3) 관당 3리

번호	이장명	날 짜	발 령 사 항
1	김진용	1979. 2. 28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	김진용	1980. 3. 14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3	김진의	1980. 3. 15	무창2구 이장에 임함
4	김진의	1987. 12. 31	원에 의한 면직
5	김진의	1988. 1. 1	관당3리 이장에 임함
6	김진의	1988. 1. 31	원에 의한 면직
7	김혜경	1988. 2. 1	관당3리 이장에 임함
8	김혜경	1990. 1. 31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9	김혜경	1990. 2. 1	관당3리 이장에 임함
10	김혜경	1992. 3. 1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11	김혜경	1992. 3. 1	관당3리 이장에 임함
12	김혜경	1994. 2. 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3	김지호	1994. 2. 1	관당3리 이장에 임함
14	김지호	1996. 3. 8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15	김지호	1996. 3. 8	관당3리 이장에 임함
16	김지호	1997. 1. 2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7	남창우	1997. 1. 23	관당3리 이장에 임함
18	남창우	1999. 1. 22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19	남창우	1999. 1. 22	관당3리 이장에 임함
20	남창우	2001. 1. 22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21	남창우	2001. 1. 22	관당3리 이장에 임함
22	남창우	2001. 3. 8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23	김혜경	2001. 3. 8	관당3리 이장에 임함
24	김혜경	2003. 3. 8	임기만료로 그 직을 면함
25	김혜경	2003. 3. 8	관당3리 이장에 임함
26	김혜경	2005. 3. 8	관당3리 이장에 임함
27	김혜경	2007. 3. 8	관당3리 이장에 임함
28	김혜경	2009. 3. 8	관당3리 이장에 임함
29	김혜경	2012. 3. 8	관당3리 이장
30	김혜경	2015. 3. 7	임기 만료로 그 직을 면함
31	김승훈	2015. 3. 8	관당3리 이장에 임함-현재

6) 각종 비석

(1) 이장·노인회장 비

이장들의 공덕비는 각골(1리)마을에만 있다. 1리 덕메 마을에서 각골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4기가 있다. 각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장 김공영석 기념비(里長金公榮奭記念碑)

성품강직(性本剛直) 인숙불흡(人孰不欽)
성품이 본래 강직해서 누군들 공경하지 않겠는가?
직재십년(職在十年) 청결위본(清潔爲本)
10년 재직하는 동안 맑고 깨끗함을 근본 삼으며
입이봉접(入而奉接) 출즉현공(出則獻公)
집에 온 손님 받들어 접대하고 밖에서는 공익 위해 했네
극념성신(剋念誠信) 시기여사(是其餘事)
신의와 정성으로 사사로운 마음 이겼으니
이런 것은 나머지일 뿐이다.
西紀一九六二年 1月 日 里民一同



이장 김공영석 기념비

②이장 김공영진공적비(里長金公榮振功績碑)

성본강정(性本強正) 취임사년(就任四年)
성품이 본래 강직해서 이장 4년동안
이민봉의(里民奉意) 정무무감(政務無感)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이장 일에 유감없게 하였고
선각자인(先覺自認) 공사견지(公私堅持)
먼저 깨우치고 스스로 알아서 공과 사를 굳게 지켜서
노공여산(勞功如山) 영구불망(永久不忘)
공로가 산과 같으니 오랫동안 잊지 말자



이장 김공영진 공적비

옥마산 뻗어내려 옥영봉 뭉쳤으니 그 정기 받은 몸
강증정신 아낄소랴 里政四年 맡으실 때
불고가사 헌신노력 하시여시 태산같이 높은 공직
살기좋은 우리마을 천추만대 잊지말자
一九七九年 八월 일
리민 일동 건립

③이장 한인원 불망기념비(里長 韓仁元 不忘記念碑)

천름고귀(天稟高貴) 성직후덕(性直厚德)

하늘이 고귀함을 주어 성품이 곧고 후덕하며

봉공리조(奉公里助) 불고가사(不顧家事)

마을 일을 위하여 집안은 돌보지 않았으며

리민지애(里民之愛) 위형위제(爲兄爲弟)

마을 주민 위하기를 형제처럼 하였다

이우불망(以寓不忘) 편석각명(片石刻銘)

뒤에 잊지 않으려고 작은 돌에 새긴다

檀紀四千三百二十二年 己巳正月初二日

冠堂一里民一同 謹豎



이장 한인원 불망기념비

④노인회장 김경재 공적비(老人會長 金敬在 功績碑)

우리 관당1리 부락은 풍요로운 바다와 육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야은 속에 묻혀 생활하는 순박한 우리 고장이기에 이십여 성상을 몸 담아온 노인회장님은 강직한 성품으로 굳은 일에는 항상 앞장 서시고 양보하는 미덕을 베푸시어 주민간의 화목과 노인회 분위기를 조성하심은 물론 노인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 마을 노인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오늘에 즈음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앞날을 기원하면서 관당1리 주민의 따뜻한 정을 모아 표시하나이다.

서기 二00一年 八월 일

관당 一리 주민 일동 세움



노인회장 김경재 공적비

(2) 면장·이사 비

① 면장 권공대식 공적비(面長權公大植功績碑)

공(公)은 1921년 10월 13일 성동리(城洞里)에서 출생(出生)하여 20세 연령(年齡)으로 흥성군(洪城郡) 결성면서기(結城面書記)로 공무원(公務員)의 첫발을 드려 놓은 후 30여년간(餘午間) 요직(要職)을 두루 거쳐 지난 1976년 3월 16일에 웅천면장(熊川面長)으로 부임(赴任)하여 오년간(五年間)의 면장(面長) 재임기간중(在任其間中)에는 본면(本面)의 지역사회(地域社會) 개발(開發)을 위(爲)하여 헌신노력(獻身勞力) 함은 물론(勿論) 매년(毎年) 하계(夏季) 무창포해수욕장(武昌浦海水浴場)의 자연보호운동(自然保護運動)

을 역점시책(力點施策)으로 강력(強力)히 추진(推進) 매일(毎日) 본운동(本運動)을 선도(先導)하여 오고 있으며 무창포(武昌浦) 어민(漁民)들의 숙원사업(宿願事業)인 방조제(防潮堤) 오백(五百)미터를 1800만원의 예산(豫算)을 투입(投入)하여 지난 3월에 완공(完工)하여 영세어민(零細漁民)들 노임산포(勞賃散布)는 물론(勿論) 70여 세대(世帶) 어민(漁民)의 생명재산(生命財產)을 보호(保護)케 하였으며 지난 겨울 폭풍(暴風)으로 붕괴(崩壞)된 방파제(防波堤)를 삼천오백만(三千五百萬)원의 예산(豫算)으로 완공(完工)되었으며 무창포(武昌浦) 주민(住民)과 관광객(觀光客)의 편익(便益)을 도모함은 물론 환경기반조성사업(環境基盤造成事業)을 활발(活發)히 추진(推進)한 성과(成果)로서 잘 사는 어촌(漁村)으로 발돋움케 하였으며 무창포해수욕장(武昌浦海水浴場)의 무궁(無窮)한 발전(發展)을 위하여 복지(福祉)로운 어촌(漁村)의 면모(面貌) 갖추게 된 공(公)의 공적(功績)이 끊임없는 목민(牧民)의 집념(執念)에서 기인(起因)된 소치라 믿고 끝없이 넓고 푸른 해변(海邊)에 공(公)의 업적(業績)을 흡모(欽慕)하는 무창포(武昌浦) 어민(漁民) 일동(一同)의 적은 정성(精誠)으로 이 비(碑)를 건립(建立) 합니다.

서기 1981년 5월 14일(西紀一九八一年五月十四日)

무창포어민일도(武昌浦一區漁民一同)

정성기(鄭聖基) 지음 김정유(金正有) 씀



면장 권공대식 공적비

전 이사 김덕원 기적비

② 전 이사 김덕원 기적비(前理事金德元紀蹟碑)⁷⁾

포개무창(浦開武昌) 선리조사(善理組事)

무창포 포구를 열어 어업조합 일을 훌륭히 처리한 것이

임무육재(任務六載) 이공명시(以功明試)

육년 임무의 공으로써 분명히 찾았지네

기본적립(基本積立) 방파축제(防波築堤)

기본을 적립하여 방파제방을 쌓았으며

장어일면(長於一面) 우영전리(又榮轉泣)

면의 수장으로 영전하여서도

위궐어민(爲厥漁民) 복리증진(福利增進)

어민을 위해 힘을 다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래영거사(來映去思) 여불진록(餘不盡錄)

와서는 도움주어 돌아가니 생각나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檀紀四千二百七十八年 二月 八日 立

武昌浦漁業組合員 一同

(3) 김해김공송암(金海金公松菴) 비

각골마을 뒤 산봉우리 아래쪽에 있는 비석이다. 관당리의 이장이었던 김영석(金榮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1965년 아버지 생일날에 세운 비석이다. 남포면 월전리 멸월에 사는 백명균이 글을 지었다.

玉藍之間有一奇石而如亭如樓 奇岩絕壁可
爲壯觀奇景處也

옥마산 남전 사이에 기암 괴석이 하나 있는데 정자 같고 누각 같으며, 기이한 바위 절벽은 가히 장관이어서 경치가 기이한 곳이다.

金海金公松菴恒愛其在因以名之曰盤石之亭也公平生聾其

김해 김공 송암이 항상 좋아하여 거기에 있으면서 반석정이라 하였다.
공이 평생 속세에 귀를 닦고



김해김공송암(金海金公松菴) 비(2019.3.3.)

7) 전 이사 김덕원 기적비는 원래 작은 비석으로 현 위치의 동쪽 정자가 서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근래 후손들이 큰 비로 다시 세웠다. 소화 연호만 단기로 바꾸었고 내용은 전에 있던 비와 같다.

塵累朝登斯亭一觴(술잔상)一吟雖無管絃竹之盛啞(재갈함)盃成趣爲詩以
아침마다 이 정자에 술상 하나로 올라와 읊조렸다. 비록 통소나 현악기가 없어도 음악소
리 성대하였고, 술잔 기울여 흥취를 돋우고, 시를 짓고 노래를 이루었다.

歌以此忘世無憂之樂斯皆所助此亭之歸趣哉故因以銘之曰

이로써 세상을 잊고 근심이 없이 즐거웠으니 이것은 모두 이 정자가 도와준 결과인 것인
다. 그런 까닭으로 명을 지어 말한다.

登亭酒風頓忘塵累率性爲道人恒敬振

정자에 올라 술과 풍류로 문득 속세를 잊고 하늘이 준 성품을 따라 도를 이루어 사람들
이 항상 떨쳐 공경하였다.

百事無垢可謂聖仙公之遺跡萬歲寶鑑

모든 일에 티끌이 없었으니 가히 신선이라 이를 만하고 공이 남긴 자취는 만세의 본보기
로다.

乙巳年(1965)五月二十日白明均記

(4) 관당초등학교의 비

관당초등학교 교문 옆에는 총 7개의 비석
이 서 있다. 그중 2개는 관당초등학교와 관
련된 비석이고, 4개는 황교국민학교와 관련
된 비석이며, 1개는 황교국민학교가 통폐합
되면서 비석을 이전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
이다. 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관당초등학교 앞 비석군(2019.3.20.)

① 백광균선생 공적비(白瑈均先生功績碑)

白瑈均先生은 1973년 5월 10일 開校이전 이후 30
여 성상 冠堂初等學校에 근무하면서 불모지 와지였
던 죽청리 진등의 한복판에 관당, 독산, 소황, 황교,
구룡, 죽청리 거주 아동들의 배움의 전당을 포근한
보금자리로 다듬어 온 先生의 功績은 이 學校와 더
불어 빛나고 있습니다.

校舍의 기초 닦기를 등짐으로 햇불을 밝히며 밤늦
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냈으며 운동장, 생울
타리, 校庭에 심어진 나무들 해마다 예쁜 꽃을 가꾸
어 연중 꽃피는 아름다운 學校만들기 등 先生의 손
길이 스쳐온 흔적입니다. 그 功績 너무나 크기에 學



백광균선생 공적비(2019.6.15.)

父兄一同은 작은 성의지만 함께 이 碑를 세웁니다.

2001년 12월 20일.

운영위원회 회장 김학태.

위원 김홍빈, 김창현, 이종길, 송미숙, 김진오, 정진한, 송동섭.

② 황숙주선생 교육공적비

어린 꽃송이들의 알뜰한 보금자리를 다듬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친 그의 공적은 이 전당과 더불어 기리 빛나리.

1973년 5월 10일 세움

학부형일동

③ 전 훈도 김제원 공적비(前訓導金堤元功績碑)

金堤元 先生은 篁橋里 出生이고 日帝時訓導로 育英에 從事하다가 隱退中 小篋禮拜堂 全云女史의 招聘으로 敎鞭을 다시 들었으나 意合치 못하여 自宅에서 成人教育을 하던 中 四個里 志僉位의 協力を 얻어 草家數間을 建築하고 私立學院이 成立된 것이 簡易學校로 다시 國民學校로 昇格되었으니 우리 篁橋學校의 基本 創立功勞者가 先生임으로 茲에 功積을 表한다.

四個里住民一同

西紀1973年12月 日立



황숙주선생 공적비(2019.6.15.)



전훈도 김제원선생 공적비(2019.6.15.)

④ 최돈목선생 공적비(崔燉穆先生功績碑)

崔燉穆先生은 小篆里에 居住하며 教育誠意가 깊은 분으로 金琨元 先生이 自宅에서 成人教育함을 感歎하고 率先 金錢을 많이 내고 四個里 有志僉位와 協議하여 金錢을 酿出하여 草家數間을 建築하는 동시에 當時 老齡으로 自身이 勞力監督하여 이루어진 私立學院이 簡易學校로 昇格하고 解放后 國民學校로 昇格되었으니 篁橋學校의 創設 功勞者가 많으나 最高의 功績을 永遠不忘하기 為하여 茲에 樹碑略記한다.

四個里住民一同
西紀1973年12月 日立



최돈목선생 공적비(2019.6.15.)

⑤ 전 사친회장 최창규기념비 (前師親會長崔昌圭記念碑)

學而務本 行可爲眞
校基喜捨 誠堪動人
推而勤勉 一心獻身
校運昌盛 為美里仁
滿腔情血 足濟速津
片石可語 厥功永新



전사친회장 최창규 기념비
(2019.6.15.)

⑥ 공적비

사랑스런 후배들이여, 통달산 정기어린 우리의 배움 터 황교의 등우리에서 더 슬기롭고 더욱 씩씩하게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라. 선배 동문 일동

착하게 자라고 알뜰히 배우며 큰 뜻을 펼쳐가는 후배들의 밑거름이 되도록 도와준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공 길이 빛나리.

황교초등학교 학부형 대표 최종오.

⑦공적비 이전

1993년 3월 1일자 황교국민학교가 관당국민학교로 통폐합 되므로 황교국민학교에 있는 공적비를 관당국민학교로 옮겨 그 뜻을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전함
1993년 10월 관당초등학교장.

7) 굴 따러 갔던 배 전복 사건

1955년 1월 9일, 이날은 음력으로 12월 16일이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관당리, 독산리, 황교리 등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다에서 굴을 따다 팔아 생계를 돋고 있었다. 그해 무창포 석대목 등에는 굴이 많지 않았고 황직이(황죽도)에 굴이 많았다. 1월 8일에도 무창포 사람들이 들어가 굴을 많이 따왔다.

1월 9일은 음력으로 12월 16일이라 ‘여덟매’ 날로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었다.⁸⁾ 특히 설달에는 물이 많이 빠지고, 굴을 따면 설달 대목에 팔기도 좋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직이에 굴을 따러 갔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관당리 각굴 마을에서 배 2대, 무창포 마을에서 최소한 1대 이상, 광암 마을에서 2대가 들어갔다.

그날은 물때가 일려 새벽에 출발하였다. 관당리 각굴마을에서 떠난 배는 박종옥씨(1935, 현재 생존하심) 댁 배하고 나씨네(당시 사망) 배하고 2척이었다. 배는 모두 바람과 노를 저어 움직이는 풍선배였고 길이는 28자 정도되었다(박종옥씨 배). 박종옥씨 배에는 친척과 이웃을 태웠는데 모두 13명이었다. 배삯은 받지 않고 그냥 태워 준 것이었다. 나씨네 배에는 20명 이상이 탔을 것으로 보인다.⁹⁾

새벽에 출발할 때는 새카만 구름이 끼었는데 물은 잔잔하였다. 황지기에 도착하고 나니까 눈바람이 일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모두 배에 타라고 하고 출발하였다. 관당리 각굴 마을 나씨네 배는 이미 출발했었다. 그런데 박종옥씨 배에 문제가 생겼다. 황지기에서 출발할 때 사람들이 모두 타니까 배가 무거워져 돌에 걸친 것이다. 그래서 선주인 박종옥씨가 물로 뛰어내려 어깨로 밀어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다. 항해를 계속하여 석대 앞에 이르니 눈보라가 매우 심하였다.

석대 앞을 통과해서는 안목을 지나야 무창포 포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러려면 안목의 물이 얕아 삿대질을 해야 하는데 배에 삿대가 없었다. 웬 일인지 출발할 때부터



황죽도와 사고지점

8) 2019년 1월 22일(음12월16일)은 저조가 9:55분에 22cm였다.

9) 당시 동아일보 1955년 1월 14일자 기사에 36명이 출발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나씨네 배에는 23명이 탄 것으로 보인다.

삿대가 없었다. 그래서 배에는 작은 둑을 세워놓고 둑에 있는 대막대기를 빼내어 삿대로 사용하여 석대안목을 건넜다.

그러다보니 황직이에서도 시간을 지체하고 석대 앞에서도 시간을 지체하였다. 그 시각에는 물이 들어와 석대안목을 바듯이 넘을 수 있었다. 황직이에서 먼저 출발한 나씨네 배는 안목을 통과할 수 없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석대 뒤로 돌아 선창 앞으로 왔다.

박종옥씨 배는 석대 안목을 넘어와 먼저 출항한 나씨네 배를 관찰하였더니 둑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선창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선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물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종옥씨 배가 선창을 향해 들어가는데 앞서 간 나씨네 배가 은산여에서 엎어져 있었고, 배 바닥에는 남자 몇 사람이 올라타고 있었다. 여자들은 벌써 사망하여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박종옥씨 이름을 부르면서 배를 대라고 하였다. 그러나 배를 댈 수는 없었다. 박종옥씨 배에 탄 사람들을 선창 안에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고지점인 은산여의 위치(1948년 항공사진)

그때 좌초를 염려하여 둑을 내리고, 키를 빼고 노를 저어 접근하여야 하나 엎어진 나씨네 배를 보고 모두 당황하였다. 순간적으로 키가 바위에 걸려 배가 빼떨어지고 파도를 맞아 순식간에 넘어갔다. 배가 넘어진 것은 신창에서 약 50m 떨어진 곳이 있다. 이때 박종옥씨는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양쪽 어깨에 한 사람씩 붙어있었다. 박종옥씨 판단이 파도를 등지면 앞으로 밀릴 것이고, 그러면 선창에 닿아 살아나올 것 같아서 파도를 등지고 섰는데 발이 땅바닥에 닿았다. 그리고 파도에 의해 밀려 선창 안으로 들어왔다.

등 뒤에 붙었던 사람도 같이 나오게 되었다. 나왔다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또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려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황죽도에 굴따리 갔던 무창포의 이종순씨 댁 배는 황지기에서 각굴 배보다 늦게 출발하여 오는데 파도가 심하여 동뒤 장별에 사람들을 내려주고 석대도에 배를 정박하였다. 이종순씨에 의하면 동뒤에서 걸어오는데 목에서 사람들이 굴을 따고 있었고, 집에 와서는 난파된 각굴 배와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큰 파도가 몰아쳤고 파도가 칠 때마다 사람들이 배에서 떨어지고, 또다시 기어오르고 하다가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배까지 모두 부서져 선창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박종옥씨의 증언에 의하면 나씨네 배는 선창에 물이 들어온 줄 알고 왔으나, 선창에 물이 없어 들어갈 수 없자 선창 밖에 있는 ‘은산여’ 주변에서 멈칫거렸을 것이라고 한다. 이때 파도에 밀려 키나 배의 바닥이 바위에 닿았고, 파도가 쳐 순식간에 배가 뒤집혔을 것이라고 한다. 사고를 일으킨 바위는 은산여 중에서도 밖은산여¹⁰⁾라고 한다.

박종옥씨는 집으로 와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배에 탄 사람 중 둘째 형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어 다시 바다에 나갔더니, 시체 3구가 떠밀려 들어왔다고 한다. 그 중에 형수도 있었다. 당시 날씨가 추워 몇 사람은 배 안의 ‘간’¹¹⁾에 들어가 있었는데 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못하여 희생되고, 밖에 있던 사람은 생명을 건진 것이다. 13명 중 3명만 사망하였다. 나씨네 배에 탄 사람은 배 주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당일 광암 마을 주민들도 24명이 배 2척을 타고 황지기(황죽도)에 들어갔다. 광암 사람들은 황죽도에 일찍 도착하여 배를 정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곳에 배가 있었다. 갑자기 눈보라가 치자 광암마을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배가 물에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창포나 각굴 배에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해 그대로 있었다. 더구나 배가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왔으나 파도에 의해 배가 파선되고 말았다. 무인도에서 배가 폭풍에 깨져 버렸으나 나갈 도리가 없었고, 마을에서도 구조선을 띠울 수가 없었다. 꼼짝없이 섬에 고립된 것이다.

몸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쳐 얼어 죽을 수도 있었으나, 천만 다행으로 낫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다. 그는 굴을 따려 간 것이 아니라, 황지기(황죽도)에 많은 대나무를 베어다가 ‘조랭이(조리)’를 만들려고 낫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 그리고 배 주인이 성냥을 가지고 있었다.

10) 은산여 가운데에 물골이 있고, 물골 밖에 있는 은산여를 밖은산여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11) 배에 고기나 짐을 넣는 방.

광암마을 사람들은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무를 베어다가 불을 놓고, 옷을 말리고 배가 고프면 굴을 까먹고, 갈증이 나면 눈을 먹고 버텼다. 여자들은 불 옆에, 남자들은 그 뒤에 앉아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도 바람이 세어 나갈 수 없었다. 2일 동안 잠도 잘 수 없었다.

11일 새벽, 바람이 잦아들자 마을에서 배를 타고 황지기(황죽도)에 들어갔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황지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난리가 났고, 시신을 처리할 ‘깨치’¹²⁾를 가지고 들어왔다. 당시 광암 마을에 있던 가족들은 굴따려 갔던 가족들이 모두 죽은 줄 알았다. 각굴마을 사람들이 20명이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섬으로 들어온 마을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두 살아있었으므로 환호하였고, 사람들을 싣고 배대기가 편리한 포구인 무창포로 들어갔다. 무창포에서는 관계당국에서 나와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귀가하였다. 당시 황죽도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미군 헬리콥터도 출동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경찰들은 황지기 맞은편에 있는 독산 해안에 불을 피우고 격려하였다. 당시 황지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기억에 의하면 7끼니를 짖고 나왔다고 한다.

박종옥씨는 형수의 시신을 집으로 옮긴 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보니 다음날 새벽이었다고 한다. 박종옥씨 배에서는 13명 중 3명이 죽고, 10명이 생존하였으며, 나씨네 배에 탔던 사람들은 선주를 포함하여 대부분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헤엄을 잘 쳐, 물에 들어가면 윗도리는 물에 젓지도 않는다는 사람도 사망하였다. 겨울이라 솜옷을 입었고 물이 차가웠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시신은 바로 찾지 못하고 떠밀리는 대로 수습하였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여 통개 안에 있는 모래톱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각 집안의 사정에 따라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당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었다. 굴은 여자들이 주로 땄기 때문이다. 배를 파도가 없는 석대에 대지 않고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아이가 딸린 젊은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박종옥씨 형수의 경우에는 아이가 2명(6살, 4살) 있었고 남편은 군대에 갔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제대를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웠다.

나씨네의 경우는 7명이 배를 타고나가 모두 사망하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 각 시, 시누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사망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한 가족이 모두 없어진 셈이다.

12) 송장을 두루말이 하는 것

또 다른 집에서는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부인과, 부인의 동서가 사망하였다. 남겨진 아이들은 어린 남매였다. 남겨진 어린 남매는 할머니가 키우고, 시아버지까지 모시게 된 것이다. 어린 남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돌보게 된 것이다. 마을이 온통 참혹함이었고, 비극이었다.

이에 마을에서는 이제까지 지내던 당제를 없앴다. 당제를 지냈는데도 이런 참혹한 사고가 났으니 소용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후 당제는 부활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이러한 상처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회복되어 갔다. 젊은 부인을 잃은 남편들은 후에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박종옥씨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며칠 후 보령경찰서에서 배 주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주로 운임을 받고 사람들을 태워주었느냐고 물었는데 당시 운임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운임없이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워주었다고 한다.

이후 김영선 의원의 도움으로 무창포항에 양쪽으로 방파제를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사망한 분들의 제삿날은 설달보름날로 주변 마을에서 보통 ‘굴제사’라고 부른다.

※ 당시 신문기사(동아일보, 1955년 1월 14일자)

二十名이溺死『굴』따다가

보령군 응천면 무창포에서는 지난 9일 오전 6시경 동면 관동부락 거류 빈민 36명이 앞바다로 굴(石花)을 따려고 목선 두척으로 출범하여 “황직도”라는 섬에서 작업 중 폭풍이 돌발하므로 집으로 돌아오려다 동일 오후 1시경 해안에 이르자 목선들은 산산히 파손되고 二十명은 수중 고환이 되었으며 나머지 16명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다.

급보에 접한 충남경찰국 주(朱) 보안과장, 경(慶) 보령서장 등의 진두지휘로 다음날 겨우 시체는 일곱을 색출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시각에 역시 응천면 광암부락에서도 빈민 二十四명이 역시 무인도인 황직도에서 굴을 따던 중 목선 두척은 삽시간에 파손되어 상육해 나올 여지없이 앙천통곡 중 四十八 시간만인 十一일 오전 六시경에야 다소 바람이 개이어서 구조선으로 구출하였는데 다행히 동사자는 없었다 한다.

6. 지명

관당리(冠堂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응천면(熊川面) 서부지역이다.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에 관동(冠洞), 당현리(堂峴里), 간입리(看入里)를 병합하여 관동 당현의 이름을 따서 관당리라 하여 보령군 응천면에 편입하였다. 관동은 각굴의 한자표기이며, 당현리는 오늘날 당재라고 부르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911년에 일제가 만든 조선지지자료에 의하면 당현리(堂峴里)라고 한자로 쓰고, 밑에 한글로 ‘무청포’라고 기재하였으므로, 무창포항 근처와 당재를 합하여 당현리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간입리(看入里)는 간드리 마을의 한자 표기이다.

○가사녀 : 가사니의 다른 말. 바위너덜임을 강조해서 부르는 말이다.

○가사니 : 배체팰리스 서쪽에 있는 작은 섬. 시멘트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독산리에 속한다.

洞里村名		種別地名	志清南道藍浦郡熊川面
下	上	者	洞
九	九	入	里
里	里	峴	里
巴	巴	洞	里
차	차	巫	吳
울	울	드	都
公	公	예	耶
全	全	도	道
		소	所
		소	所
		公	公
			在熊川面

조선지지자료의 관당리 부분(1911)



가사니(2018.12.17.)

○가운데봉 : 석대섬의 가운데에 있는 봉우리이다.

○각굴 : 관당리 북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안뜸, 사작, 짚은다리를 통칭하기도 하고, 사작과 안뜸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김해김씨 집성촌이다.

○간드리 : 관당리의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현재의 관당 3리이다. 골짜기가 크고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샘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이 많고 마을이 크다. 윗간드리와 아랫간드리로 구분된다. 옛날 어른들은 피병소라고 불렀다고 한다. 피병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드리골 : 간드리 마을 안에 있는 들.

○갓굴 : 각굴의 다른 표기. 각굴을 '갓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 갓굴이라고 부르고 표기하는 사람들은 각굴을 한자로 관동(冠洞)이라고 쓰는데, 冠은 갓을 의미하기 때문에 갓굴이라고 해야 옳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본 각굴 사람들은 '갓굴'로 불렸고 '갓굴'로 부르지 않았다. 따라서 '갓굴'로 표기한다.

○갯뿔논 : 간드리골의 가장 서쪽에 있는 논. 장별 안쪽에 있는 논으로 비가 오면 물이 모여들었고, 바닷물이 범람하면 피해도 입었다. 갯뿔로 된 논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갱구할매바위 : 각굴 주산골과 구수골 사이에 내민 산줄기의 북쪽 능선. 남포면 월전리와의 경계 지역에 있는 큰 바위이다. 바위 가운데에 파인 자욱을 갱구할매가 오줌싼 자리라고 하였다. 근래 예비군들이 바위에 의지하여 참호를 만들었다.

○관동(冠洞) : 각굴의 한자 표기.

○구수굴 : 밧덕뫼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61.8m 산지 남쪽으로 나 있고, 골짜기 안은 밭으로 이용된다.

○꿩말림 : 무챙이 마을과 윗간드리 마을 사이에 있는 언덕. 최고 높이는 42m이다.

○끌봉 : 석대섬의 남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끌봉독살 : 석대도에 있던 2개의 독살 중, 끌봉 밑에 있는 독살이다. 깊어서 물이 많이 빠져야 노출되었다. 김황오장네 독살이었는데 김황오장이 이사간 뒤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오장이라는 이름은 수운교와 관련된 이름이라고 한다.

○너명굴 : 죽청리 진등 마을과 안덕뫼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할미재의 서쪽이다. 이곳에 무송윤씨의 사우(祠宇)인 문현사가 있고 주민도 거주한다. 골짜기 입구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난다.

○노랑바위 : 유수물에 있던 바위. 남쪽 제방의 안쪽에 있었다.

○노적바위 : 석대도 평풍바위 밑에 있는 바위. 노적가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닭벼슬 : 가사니의 다른 이름.

○담배밭 : 석대선 첫봉 동쪽에 불여진 이름.

○담배밭모탱이 : 석대섬의 첫봉 동쪽 해안.

○당산 : 무창포의 당산은 2곳이다. 북쪽에 있는 큰 당산은 개인 소유로 별장(상화헌)이



상화헌이 있는 무창포 당산(2019.3.23.)

들어서고 주변을 돌담으로 둘러싸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당산의 서쪽에는 산도래라고 부르는 넓은 돌너덜이 노출되어 있었고, 북쪽으로는 옛 방파제가 연결되어 있다.

○당산 : 무창포(관당2리)에는 당산이 2개이다. 남쪽에 있는 작은 당산은 마을 소유로 되어있다. 값비싼 애석으로 되어있으나 주민들이 당산으로 위하던 곳이고,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소유였다가, 마을 주민 5명 이름으로 하였고, 1985년 4월 9일 관당2리 대동계로 소유권 보존되었다. 면적은 978m²이다.



무창포 당산(2019.3.17.)

○당산 : 안덕뫼와 밧덕뫼 사이의 산이다. 해발고도는 약 50m이다.



간드리마을 당산재의 산제 지내던 바위
(2019.4.4.)

○당산재 : 간드리마을 동남쪽, 태봉산과 봉오재고개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산봉우리 꼭대기 바위에서 당제를 지냈다. 간드리 마을의 당제는 1950년대까지 이루어졌다. 당산의 돌이 있는 곳에서 지냈는데 제일은 정월 14일 밤, 즉 15일 새벽이었다. 건립을 하여 제물을 장만하였고 돼지머리를 사용하였다. 당주는 생기복덕을 보아 뽑았고 풍물과 함께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낼 때 마을 깃발을 가지고 갔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당재 : 유수물고개에서 납포면 월전리 용머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1950년대 중반 까지 당집이 있었다.

○당재 : 현재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 마을이다. 과거에도 3-4가구가 거주하였고, 현재도 2가구가 거주한다. 무창포에서 각굴마을 북쪽에 있는 당집으로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당집 : 각귤 마을 북쪽에 있는 당집이다. 함석집이었고 안에 제기가 있었다. 원래는 마을 바로 위 의령남씨네 산에 있었는데 자기들 묘지 위에 있다고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한다.

○당현(堂峴) : 당재의 한자 표기. 당재와 무창포를 함께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였다.



당재(2019.3.8.)

○대뜰: 각귤마을 앞에 흐르던 하천으로 천정천화 되어있어 주변의 논바닥보다 하천바닥이 더 높았다. 새똑이라고도 불렸다. 대뜰은 내의 크기를, 새똑은 제방의 토양 성질을 나타내어 부르는 이름이다.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덕뫼 : 관당리의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로 무송윤씨가 세거하였다. 안덕뫼와 밧덕뫼로 구분되며 서해안고속도로가 마을 가운데로 지난다.

○덕뫼들 : 덕뫼마을 남쪽에 동서로 뻗은 골짜기에 형성된 들이다. 논으로 이용되고 근래 모두 경지정리 되었다. 이곳의 물은 모두 무창포로 배수된다.

○덕산(德山) : 덕뫼의 한자표기이다.

○덕산봉 : 간드리 덕산봉 마을 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65m이다.

○덕산봉 : 윗간드리 남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는 2-3가구가 거주했으나 현재는 10여 개의 펜션이 들어서 있다.

○덤수박굴 : 윗간드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독구데기 : 유수물 큰독살과 아랫독살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화강암 노두로 비석의 재료로 채취하였다. 화강암을 캐내던 곳이라 독구데기라고 불렸다.



석대섬의 독배(2019.3.23.)

○독배 : 석대섬 남서쪽에 있는 물속 바위. 썰물이 되어도 건너갈 수 없다.

○동뒤 : 무창포해수욕장의 남쪽 끝, 비체팰리스가 있는 마을이다. 행정구역으로는 독산리에 속한다.

○돼지골짜기 : 당재 마을 서쪽 해안의 골짜기. 산에 나무가 없을 때인 1960년대에는 침식이 심해 깊은 골짜기를 이루었고 무서운 곳이었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을 때 이곳에서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을 안에서 잡으면 부정했기 때문이다.

○두명바위 : 석대섬의 동북쪽 끝에 있는 큰 바위. 큰 사리 때 물이 빠져도 바위 안쪽에

물 웅덩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글재 : 유수물고랑 북쪽에 있는 봉우리로 남포면 월전리와 경계한다. 1960년대 박정희대통령이 방문하여 해안침투 및 방어훈련을 참관한 곳이다. 해발도도는 55.4m이다. 해안에 장군배가 있다.

○드렁미 : 새뜸 서쪽에 있는 언덕. 높이 36.4m이다.

○드렁미골 : 드렁미 남쪽에 있는 작고 낮은 골짜기. 과거에는 논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펜션이 들어서 있다.

○드문돌 : 밧목 북쪽에 나타나는 바위. 남북방향으로 줄서 있어 들어가려면 깊은 목을 건너야 된다.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건너 들어간다. 장벌에서 들어가려면 연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깊은 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섬 : 비체팰리스 앞에 있는 작은 섬. 시멘트 축대로 연결되었다. 가사니라고 부르고 닭벼슬이라고도 부른다.

○마당바위 : 석대섬 평풍바위 앞에 있는 평평한 마당과 같은 바위이다. 석대섬에 살던 주민들은 여름날 저녁이면 이불을 가지고 마당바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낮에 햇빛으로 가열되어 따뜻하고 좋았다고 한다.

○말밑 : 윗마실골과 삼정굴 사이에 있는 안산의 북쪽 끝, 토진곶 목장성의 밑을 부르는 이름이다. 목장성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으로 보인다.

○매봉재 : 각굴마을 동북쪽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이다. 주산골의 북쪽이다. 해발고도는 59.3m이다.

○목 : 무창포 장벌과 석대섬 사이에 간조 때 나타나는 바위 너덜이다. 굴, 조개, 게, 낙지, 해삼 등이 많다. 무창포 주민들이 주로 어로활동을 하는 곳이고, 각종 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무창포 쪽 길을 ‘밧목’, 석대섬 쪽 길을 ‘안목’이라고 부른다.

○목여 : 아랫간드리 앞에 있는 바위 너덜. 이 바위 너덜과 연결되어 석대섬으로 통하는 목이 갈라진다.

○무창포(武昌浦) : 관당리의 포구마을과 해수욕장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해창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방파제를 막아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1990년대까지도 주민들은 ‘무챙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대부분 ‘무창포’라고 부른다.

○무챙이 당제 : 1950년대까지 포구 옆 당산에서 이루어졌다. 제일은 7월 7일이었다. 당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석대섬의 마당바위(2019.3.23.)

○무챙이 : 무창포를 부르던 순수 우리말이다.

1960년대까지는 무창포라고 표기하기는 해도 누구나 ‘무챙이’라고 불렸다. ‘무챙이’의 ‘챙이’는 무창포에 있던 조선시대 해창(海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창이 있던 곳을 지금도 ‘창뜸’이라고 부른다. 1872년의 지방지도에도 웅천면에 창리(倉里)라는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 붙은 ‘무’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무창포에는 고려시대의 토진곶 목장성이 지나가고 있고, 토진곶 목장성이 지나는 곳에 ‘무성굴(황교리)’ ‘무술(죽청리)’ 등의 지명이 있으므로 토진곶 목장성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윗말과 아랫말로 구분된다.



바구녀(등대있는 곳, 2019.3.23.)

○무청(蕪菁) : 조선시대 무챙이의 한자식 표기.

○바구녀 : 무창포항 밖, 등대가 있는 곳이다.

바위너덜이기 때문에 위험하여 등대를 설치하였다. 썰물이 되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바깥양알 : 양알 마을의 동쪽 부분. 터진목 쪽을 일컫는 말. 각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밧덕뫼 : 덕뫼 마을의 서쪽 부분이다.

○밧목 : 무창포 장별에서 목으로 건너기는 입

구 쪽을 말한다. 목에서 석대섬으로 건너가는 안목보다 높아 안목을 빠지지 않고 건너면 밧목도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다. 사리 때에는 강한 조류가 흐른다. 썰물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들물은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주변에 해산물이 많다.



밧목(2019.3.23.)

○밧성껄 : 등대가 있는 바구녀 서쪽, 안성껄의 서쪽에 있는 물속에 있는 바위너덜이다. 사리때 물이 많이 나가도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배가 다닐 때 매우 위험하다. 부표를 띠워 표시하고 있다.

○배씨네 독살 : 유수물에 있던 독살. 납포면 월전리 배도현씨 소유의 독살이었다.

○벼락재 : 606호 지방도가 무창포로 통하는 고개이다. 현재는 산을 절개하여 낮은 고개이지만 과거에는 높고 경사가 급한 고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불편하였다. 고갯마루의 해발고도는 70여m에 불과하지만, 특히 무창포 쪽의 경가가 급했다.

벼락재라는 지명도 경사가 급하다는 ‘벼랑’에서 온 것이다. 지명의 어원을 모르는 주민들은 보통 벼락을 맞아 ‘벼락재’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과거에 자동차는 산허리로 돌아다녔지만, 사람들은 현재 도로가 뚫린 곳으로 걸어 다녔다. 경사가 급해도 단거리였기 때문이다. 도로를 바로잡을 때 토진곳 목장성과 돌널무덤을 발굴하였다. 고인돌도 있었다.

○봉오재고개 : 윗간드리 마을에서 죽청리 봉오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태봉산 북쪽의 낮은 곳으로 넘어간다. 독산 사람들이 얇은목을 지나 봉오재고개를 넘어 웅천장에 다녔다.

○부엉배고랑 : 관당리 서쪽 독산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 봉산재의 서쪽 골짜기이다. 과거에는 한적한 골짜기였기 때문에 애장을 많이 했다고 한다.

○북문재 : 웅천읍 대천리에서 무창포로 통하는 606호 지방도와 솔모랭이에서 웅천읍 죽청리로 통하는 길이 교차하는 4거리를 일컫는 지명이다. 토진곳 목장성의 북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북문재의 동쪽부분에 토진곳목장성이 남아 있다.

○북적끝쪽뿌리 : 아랫간드리 당산의 서쪽 끝이다. 바다와 접한다.

○사작 : 각굴마을 남쪽에 있는 가옥과 밭을 통칭하는 지명이다.

○사작굴 : 관당리의 북쪽, 은상굴과 각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산도래 : 무창포 당산(밖에 있는 당산) 서쪽에 돌출된 바위너덜. 현재 어촌계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산조개’라고도 부른다. 경치가 좋아 많은 소풍객이 모이던 곳이다.

○산신각 : 석대섬의 북쪽 봉우리 정상부분에 있는 바위. 이곳에서 석대 주민들이 정월에 산제를 올렸다.

○산제당 : 유수물재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71.3m)이다. 이곳에는 1950년대 중반까지 함석 1간의 산제당이 있었다. 제일은 정월 14일 밤, 즉 15일 새벽이었다. 당집이 있던 자리에 그릇과 기왓장이 있었다고 한다.

○산제말랭이 : 각굴 산제당이 있는 산 정상을 부르는 이름

○산조개 : 산도래를 부르는 다른 이름.

○삼정굴 : 무챙이 마을의 동쪽, 벼락재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다. 마을 안에 비교적 넓은 눈이 있어 과거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했으나 현재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관당리에서 가장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삼파래(2019.4.20.)

- 삼정굴재 : 삼정굴 마을에서 동쪽의 양알 마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삼파래둠벙독살 : 유수물에 있는 독살 중 가장 남쪽에 있는 독살이다. 독살 안에 삼파래둠벙이라는, 썰물 때도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삼파래둠벙 : 유수물에 있던 낮은 지형이다. 낮은 곳이라 간조가 되어도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다. 길게 자라는 ‘삼파래’가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삼파래둠벙이라고 부른다.
- 새뚝 : 관당리 북쪽, 갓골들 남쪽과 북쪽에 있던 거대한 천정천이다. 남쪽에 있는 새뚝이 더 컸는데 양알 마을, 삼정굴 마을 앞을 지나 통개로 들어갔다. 이곳의 새뚝은 각골들에 논을 만들면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원래의 하천은 각골들의 가운데로 흘렀는데 논을 개척하면서 개울을 양쪽 산 밑으로 돌려내었고, 비가 오면 산에서 침식된 토사가 하천 바닥에 퇴적되었다. 이후 큰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제방을 계속해서 높여 큰 새뚝이 만들어 진 것이다. 새뚝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오면 흘렀고, 둑이 무너지면 주변의 토사가 모두 몰려와 순식간에 모래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골칫거리였다.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새뚝의 제방을 길로 이용하였다. 새뚝은 모래로 된 둑이라는 의미이다.
- 새뜸 : 아랫간드리 남쪽에 있는 마을. 드렁미의 동쪽이다.
- 샘굴 : 벼락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윗간드리 동쪽이다. 샘이 있고, 아래에 작은 논이 있었다. 인가와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로 쓰지는 않았다.
- 서낭댕이 : 현재 덕뫼에서 남포면 월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에 있었다. 남포면 월전리 쪽의 도로 서쪽에 있었는데, 덕메 마을 주민들이 위했다. 현재는 없어졌다.
- 서낭댕이고개 : 관당리 먹뫼 마을에서 남포면 월전리 댈월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 부분의 서쪽에 성황당이 있었다.
- 석대독살 : 석대섬의 중앙, 동쪽에 있는 독살이다. 김평오장¹³⁾ 집에서 운영했는데, 그분들이 석대섬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이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 서수고개 : 간드리 마을에서 죽청리 봉오재 마을로 넘어가는 봉오재고개를 부르는 이름. 주변이 암소의 엉덩이처럼 생겼고, 산 밑에 있는 논의 양쪽에 늘 습기가 차 있는 모습이 암소의 살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석대섬의 샘 있던 곳(2019.3.23.)

13) 수운교에서 부르는 이름

○석대샘 : 석대섬의 가운데봉 동쪽 해안에 있었다. 돌 틈에서 물이 나왔는데 만조가 되면 바닷물과 함께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 품어내고 사용하였다. 바닥도 돌이라 물이 깨끗했고 물맛이 아주 좋았다. 수량이 풍부하여 4가구가 식수로 쓰고, 빨래도 하였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 샘 옆에는 바위 구멍이 있어 비 올 때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석대섬 : 무창포 서쪽에 있는 섬이다. 사리 때가 되면 무창포와 연결되는 소위 육계도이다. 좋은 샘과 평평한 땅이 넓어 주민이 거주할 수 있다. 최고 4가구까지 거주했다가 2가구가 거주했는데 1970년대 독가촌 철수 사업으로 모두 무창포로 이주하였다. 석대섬에는 이사 가서 10년을 넘으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과거에는 석대섬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고가기도 하였다.

○선창 : 무창포 포구를 보호하는 방파제. 북쪽 선창이 먼저 만들어지고 남쪽 선창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어업조합 앞에 있던 배를 대던 곳을 말하기도 한다.

○솔모랭이 : 덕뫼마을 남쪽, 북문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거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외지에서 이주한 많은 주택이 들어서 있다.

○수랑논 : 밧덕뫼 마을 앞에 있는 논이다. 수렁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수랑배미: 삼정굴 앞에 있는 수렁논.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술등 : 무창포 양조장이 있던 사구를 부르는 이름. 과거에는 모래만 있었는데 방풍림으로 소나무를 심었다.

○승날 : 덕산봉과 당산재골 사이에 뻗어 나온 작은 산줄기.

○승어바위 : 무챙이 당산의 북쪽에 있던 바위. 만조가 되어도 물에 잠기지 않는 바위로 만조 때 승어 낚시를 하였다. 주변을 모두 매립하여 없어졌다.

○승어바위 : 유수물 동쪽, 장벌 앞에 있는 바위. 만조 때 승어를 낚던 바위이다. 현재도 남아있다.

○승어바위 : 유수물 북쪽 장군배 근처에 있는 바위. 만조 때 승어를 낚는 바위라 붙여진 이름이다.

○신진마당 : 유수물고개 북쪽의 산봉우리. 봉우리 아래에 산제당이 있었다. 삼각점이 있고 높이는 71.3m이다. 산제당말랭이라고도 한다.

○심교곡(深橋谷) : 깊은나리의 한자 표기.

○아랫간드리 : 간드리 마을의 서쪽 부분. 현재는 해안에 가옥이 많지만 과거에는 해안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언덕 남쪽에 주로 거주하였다.



유수물 동쪽 장벌 앞에 있던 승어바위
(2019.3.5.)

- 아랫덕미 : 덕매마을 논 중에서 남포면 월전리로 통하는 도로 서쪽에 있는 논.
- 아랫독살 : 유수물의 가장 서쪽에 있던 독살이다. 큰독살 서쪽에 설치하였다. 김기섭 씨 댁 소유였다. 김기섭씨 댁에서는 독살 2개를 운영하였고, 봄·가을로 3매날 독살제를 지냈다고 한다.
- 아랫말 : 무챙이의 포구가 있는 마을이다. 원래 사구였었는데, 바다 쪽으로 선착장을 만들어 배를 정박시켰다. 어업조합과 공판장이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술집이 들어서 있었다. 1960년대까지는 파시가 형성된 곳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현재는 물양장, 공판장, 횟집 등이 새로운 방파제 쪽으로 이동하여 한적한 마을이 되었다.
- 아랫장벌 : 각굴마을에서 무창포 양조장이 있던 장벌을 부르는 이름.
- 아랫장벌 : 무창포 장벌의 남쪽 부분.
- 안덕뫼 : 덕뫼 마을의 동쪽 부분이다.
- 안뜸 : 각굴 마을의 북쪽 부분. 유수물고개를 통하여 유수물로 넘어간다.
- 안목 : 무창포 목에서 석대섬으로 건너가는 길이다. 큰 돌들로 덮여있는데 파도의 영향으로 돌들이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다. 조류가 세고 밀물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썰물 때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북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룬다. 무창포 주민들의 주 어장이다.



안목(2019.3.23.)

- 안산 : 덕뫼 마을과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산이다. 덕뫼 마을 앞에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에는 나무가 없고 잔디 정도만 있었다. 잔디같은 낮은 풀도 낫으로 바짝 까고, 갈퀴로 굽어 땜감으로 썼다. 이런 땜감을 ‘북데기’라고 하였다. 1970년대까지 골짜기에는 침식이 심하게 일어났으나 현재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다.
- 안산 : 무창포항 남쪽에 있는 산. 무창포 위뜸, 아래뜸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안산 : 삼정굴과 무창포 사이에 있는 산. 삼정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안산재 : 짚은다리 북쪽에 있는 산줄기이다. 각굴마을 앞에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회관이 있다.
- 안성껄 : 등대가 있는 바구녀 서쪽에 있는 바위너덜이다. 물이 많이 나가면 약간 노출된다.
- 안양알 : 양알 마을의 서쪽, 삼정굴 쪽을 일컫는 말. 각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원양알이라고도 한다.
- 알변 : 원양알과 넘은양알 사이에 있는 달걀 같은 봉우리.
- 앞독살 : 산도래 남동쪽에 있던 독살.
- 애덜독살 : 유수물의 가장 동쪽, 해안가에 숭어바위와 연결해서 쌓은 독살이다. 낮은 곳에 설치한 독살이라 고기는 많이 들지 않았고,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놀던 곳이라 애덜독살이라고 불렀다.
- 양알 : 덕뫼마을 서남쪽, 벼락재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60여 년 전에는 단 3가구만 거주하였으나, 근래 무창포와 가까워 수십 가구의 외지인들이 들어와 거주한다.
- 양알고랑 : 덕뫼마을 서남쪽, 양알 마을이 있는 골짜기이다. 벼락재의 북쪽에 형성된 골짜기이다.
- 양화(陽花) : 양알의 한자표기 각굴 주민들이 앞에 있는 양알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 얕은목 : 태봉산과 덕산 사이의 낮은 곳. 독산리 후망굴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 봉오재 고개를 넘어 웅천장에 다녔다.
- 용구멍 : 당재마을 서쪽, 바닷가에 있던 구멍
- 용구멍 : 석대섬 큰봉의 서쪽에 있는 구멍이다. 이곳에 사는 용은 남포면 월전리 대섬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전한다.
- 우력바위 : 무창포 목의 입구에 있는 줌방바위 서남쪽에 있는 바위로 낚시질 하는 사람들이 목에 들어가기 전에 우력을 잡던 바위이다. 우력이 잘 잡혀 부르는 이름이다.
- 원논 : 각굴마을 앞에 있는 논 중에서 통개 동쪽에 있는 논이다. 간척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던 논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



석대섬의 용구멍(2019.3.23.)



목 입구의 우력바위(2019.3.23.)

- 원양알 : 삼정굴 동쪽 골짜기. 안양알이라고도 한다.
- 윗간드리 : 간드리마을의 동쪽 부분.
- 윗덕미 : 먹메마을 앞에 있는 논 중에서 남포면 월전리로 통하는 도로 동쪽에 있는 논을 말한다. 마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논을 말하는 것이다.
- 윗말 : 무창포 마을의 북쪽 부분. 술등이라고 불리는 사구 동쪽에 위치해 있다. 사구에 소나무 방풍림을 심고 집 주변에도 대나무로 방풍림을 조성하여 집을 지었다. 무창포 마을에 들어온 지 오래되는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였다.
- 윗말골 : 무창포 윗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구 안에 형성된 습지이기 때문에 논으로 이용되었으나 수원(水源)이 없어 가물면 농사짓기 어려웠다. 윗말골의 동쪽 산 기슭은 경주김씨 종중산으로 많은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윗마실골이라고도 부른다.
- 윗장벌 : 무창포 장벌의 북쪽 부분.
- 유수물 : 유수물고랑 서쪽에 있는 바다를 말한다. 무창포처럼 넓지는 않지만 해안에 깨끗한 모래 백사장이 있었고, 백사장 서쪽에는 바위들이 많아 해산물도 풍부하고 바다도 깨끗하였다. 여름이면 구룡리 고뿌래 사람들이 와서 모래찜질을 하였다. 여가 20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 유수물고개 : 각굴마을 서쪽, 유수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곳에서 당재를 통하여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 마을로 통하고, 월전리 댸월마을로도 통한다. 고개의 북쪽에는 산제당이 있었다. 1952년생 주민이 어렸을 때 산제당은 보지 못하고, 기왓장과 사기 그릇을 보았다고 한다.
- 유수물고랑 : 유수물로 통하는 골자기에 있는 논이다. 샘이 있었으나 가물면 농사짓기 어려웠다. 현재 옛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나 있다.
- 은산골 : 각굴마을 서쪽에 있는 평평한 골짜기이다. 안에 경주김씨 입향조의 묘와 재실인 은산재(銀山齋)가 있다.
- 은산여 : 무창포 북쪽 선창 밖에 있는 바위 너덜. 바위가 높아 물이 빠지면 쉽게 노출되지만 건너가려면 상당히 깊다. 이곳에 새로운 북쪽 방파제를 만들었다. 1955년 1월 9일 이곳에서 굴따러 갔던 배가 전복되어 20여명이 사망하였다.
- 음고개 : 관당리 북쪽 밧데메에서 남포면 월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포장도로가 시나고 있으며 서낭댕이가 있다. 서낭댕이고개라고도 부른다.
- 작은덕뫼 : 밧데뫼를 부르는 다른 이름.



은산여(2019.3.23.)

- 작은독배 : 석대섬 남서쪽에 있는 바위인 독배 중에서 썰물 때 물 밖에 나오는 바위. 주변에 등대가 있다.
- 작은독살 : 유수물에 있던 독살.
- 장군배 : 유수물 북쪽, 남포면 월전리와의 경계지역에 있는 바위이다. 장군바위라고도 한다. 1968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라고 한다. 당시 김종갑씨가 국회의원 할 때이고, 박대통령은 비인 동백정에 다녀서 이곳에 왔다. 부근에서 최상급의 애석이 나온다.
- 장벌 : 무창포 해안의 사빈과 사구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 윗장벌과 아랫장벌로 구분하였다.
- 장벌 : 유수물의 동쪽 해안. 옛날 모래찜질을 많이 하였다.
- 장벌독살 : 유수물에 있던 독살.
- 주낙바탕 : 유수물 큰독살과 백씨네독살 사이에 있는 모래로 된 곳으로 각굴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놀던 곳이다. 주낙을 놓아 붙여진 이름이다.
- 주산골 : 구수골과 짚은다리 사이에 있는 골자기이다. 현재는 집이 2채 들어서 있다.
- 줌방바위 : 무창포 장벌과 석대섬 사이에 있는 목의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바위. 문지방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 줌방바위 : 무창포 장벌에서 목으로 건너가는 입구에 있는 바위. 문지방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진등 : 관당리 덕메마을과 죽청리의 경계지역이다. 낮고 평평한 능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관당리 마을 주민들이 응천장에 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방앗간과 상점이 있었다.
- 진지랏바탕 : 밧목 남쪽에 간조 때 나타나는 갯뻘. 넓게 나타나고 바지락 등 어패류가 많다.
- 짚은다리 : 갓골 동쪽 마을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다. 마을 안에 큰 정자나무가 있고, 20여 채로 구성된 바로빌리지 팬션이 있다.
- 짱안여 : 현재 유수물 제방의 남쪽 부근에 있는 물속 바위이다. 보통 때는 썰물이라도 건너가지 못하고 큰 사리가 되어야 건너갈 수 있다. 건너가는 목이 깊어 명주꾸리 3개 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짱안여에는 굴, 게, 해삼, 개조개 등과 미역, 돌김 등 해조류도 많다. 과거에는 뜰베기, 세모 등도 많았다고 한다. 옛날 각굴에 살던 사람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장'자 들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응천장에도 가지 않았는데 짱안여에 갯것을 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과거에도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16년경에도 게를 삽으려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매우 위험한 바위이다.
- 짱안이 : 짱안여의 다른 이름.



짱안여(2019.3.23.)

○창뜸 : 무챙이 마을 남쪽에 있는 낮은 골짜기이다. 조선시대 세곡(稅穀)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곳이다. 해발고도 10여m 되는 곳으로 적색의 풍화토로 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바닷가의 평지이면서도 바닷물의 침수가 없고, 만조가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창고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말이라고도 한다. 1872년에 만들어진 지방지도에 4개의 건물이 그려져 있다. 무창포에 거주하는 현씨 집안에 시집온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창뜸의 창고는 현씨네 증조부가 지어 운영했다고 한다. 무창포에 거주하는 현씨와 창고와 어떤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전설이다.

또 1925년생인 김찬경씨의 증언에 의하면, 창뜸에서 남포고을의 원님이 정월달에 창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조선시대 서울로 세곡을 운반할 때에는 출항할 때 순풍제를 지내고, 항해하는 도중에 용당제, 해약제 등을 지냈다. 이런 제사는 영운관인 현감이 주관하였다. 정확한 내용이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창포의 해창에서 정월에 세곡선이 출항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창말 : 창뜸의 다른 이름.

○큰덕뫼 : 안덕뫼를 부르는 다른 이름

○큰독배 : 석대섬 남서쪽에 있는 바위인 독배 중에서 썰물 때 크게 나오는 바위.

○큰독살 : 유수물 애델독살과 독구데기 사이에 있는 큰 독살이다. 원래 남포면 월전리 용머리 사람 소유였는데 화폐개혁 직후에 김기섭 댁에서 5만원에 샀다고 한다.

○큰독살 : 유수물에 있던 독살.

○큰봉 : 무창포에서 석대섬을 걸어 들어갈 때 목을 지나 처음에 닿는 봉우리. 석대섬의 북쪽 봉우리이다.

○태봉산 : 월간드리 남쪽에 있는 해발 100여m의 높은 산이다. 죽청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고, 정상부분에는 봉수대가 있었다. 현재도 봉수대와 봉수대를 둘러싼 흔적이 있다. 정상 부분을 토성으로 둘렀기 때문에 ‘태봉산’라고 부르다가 ‘태봉산’으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 터진목 : 벼락재를 현재 부르는 이름이다. '벼락재'가 벼락을 맞아 붙여진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하여, 깎아 낸 지형이므로 터진목이라고 부른다.
- 터진목 : 북문재를 각굴·덕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토진곳 목장성이 뚫려 있는 곳이라 터진목이라고 하였다.
- 통간 : 통개에서 바닷물을 막고, 민물을 배수하던 시설.
- 통개 : 덕뫼, 각굴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부분. 뱀장어 참게 등이 많았다.
- 통개 : 아랫간드리에 모인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큰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곳에서 아랫간드리 주민들이 거리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 평풍바위 : 석대섬의 서쪽에 있는 병풍처럼 생긴 바위이다.



석대섬의 평풍바위(2019.3.23.)

- 피병소 : 옛날 어른들이 간드리를 피병소라고 했다고 한다.
- 할미녀: 장벌과 석대섬 사이에 있는 목의 북쪽에 있는 큰 바위이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큰 사리 때만 들어갈 수 있다. 게가 많다.
- 할미섬 : 무챙이 마을과 간드리 마을 사이에 있는 언덕 중 무챙이 쪽 마을을 부르는 이름이다.
- 할미재 : 관당리의 가장 동쪽에 있는 산이다. 남포면 월전리 웅선읍 죽청리·구룡리의 경계가 되며 정상에는 삼각점이 있다. 높이는 179.0m로 정상부분에는 급경사이



할미녀(2019.3.23.)

다. 구룡리의 뒤쪽에 각씨바위, 신랑바위 등이 있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민속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관당리 쪽에서만 할미재라고 부르고, 구룡리에서는 신안재라고 부른다.

○함박굴 : 은상골과 당재 사이에 있는 골짜기. 낮은 골짜기로 밭으로 이용되었다. 큰 밭이라는 의미로 ‘한밭골’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홀미고개 : 아랫간드리에서 독산리 후망굴로 넘어가는 고개. 독산의 순수 우리말 이름이 ‘홀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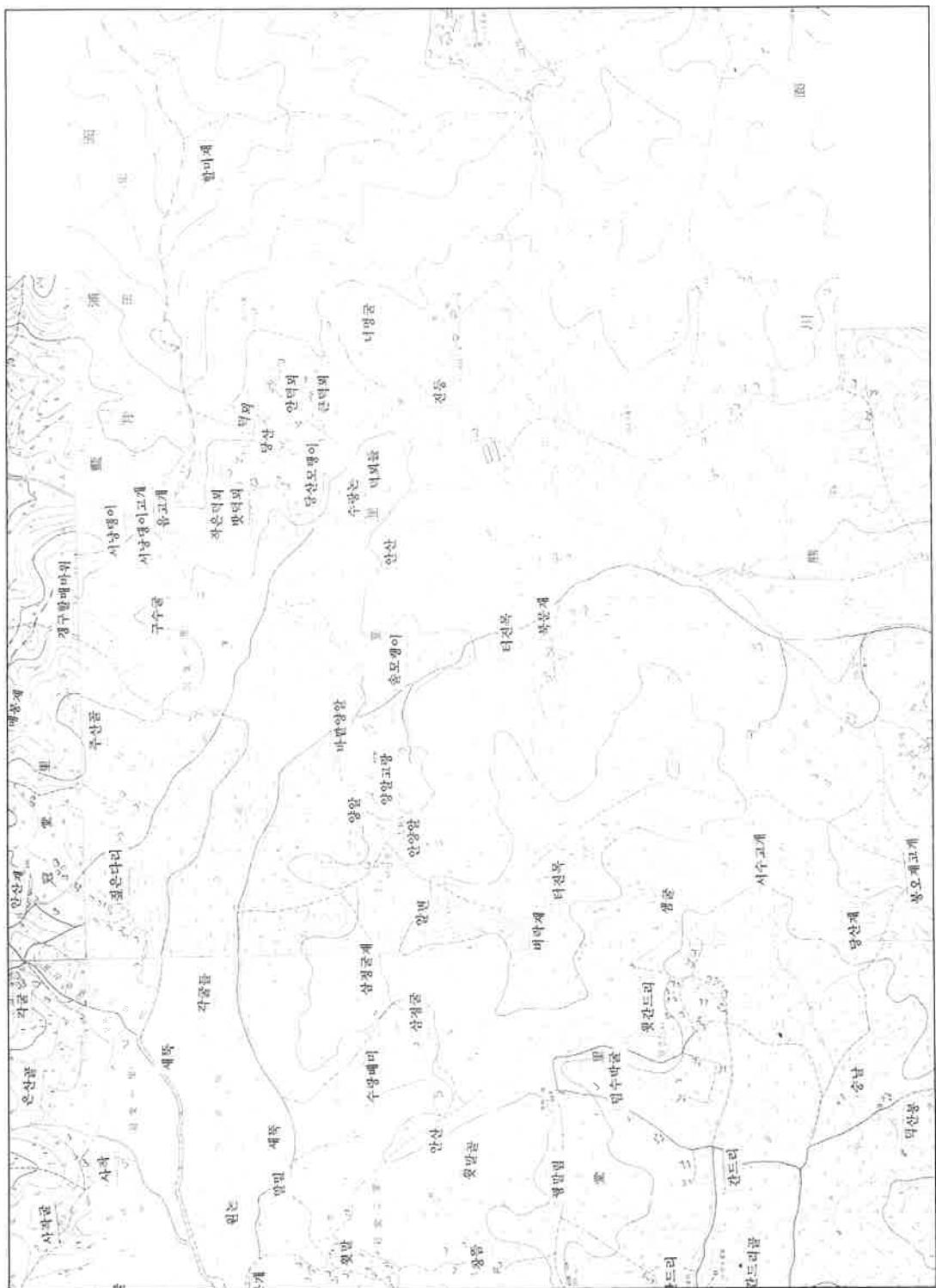
유수물의 해안에 붙은 지명(1966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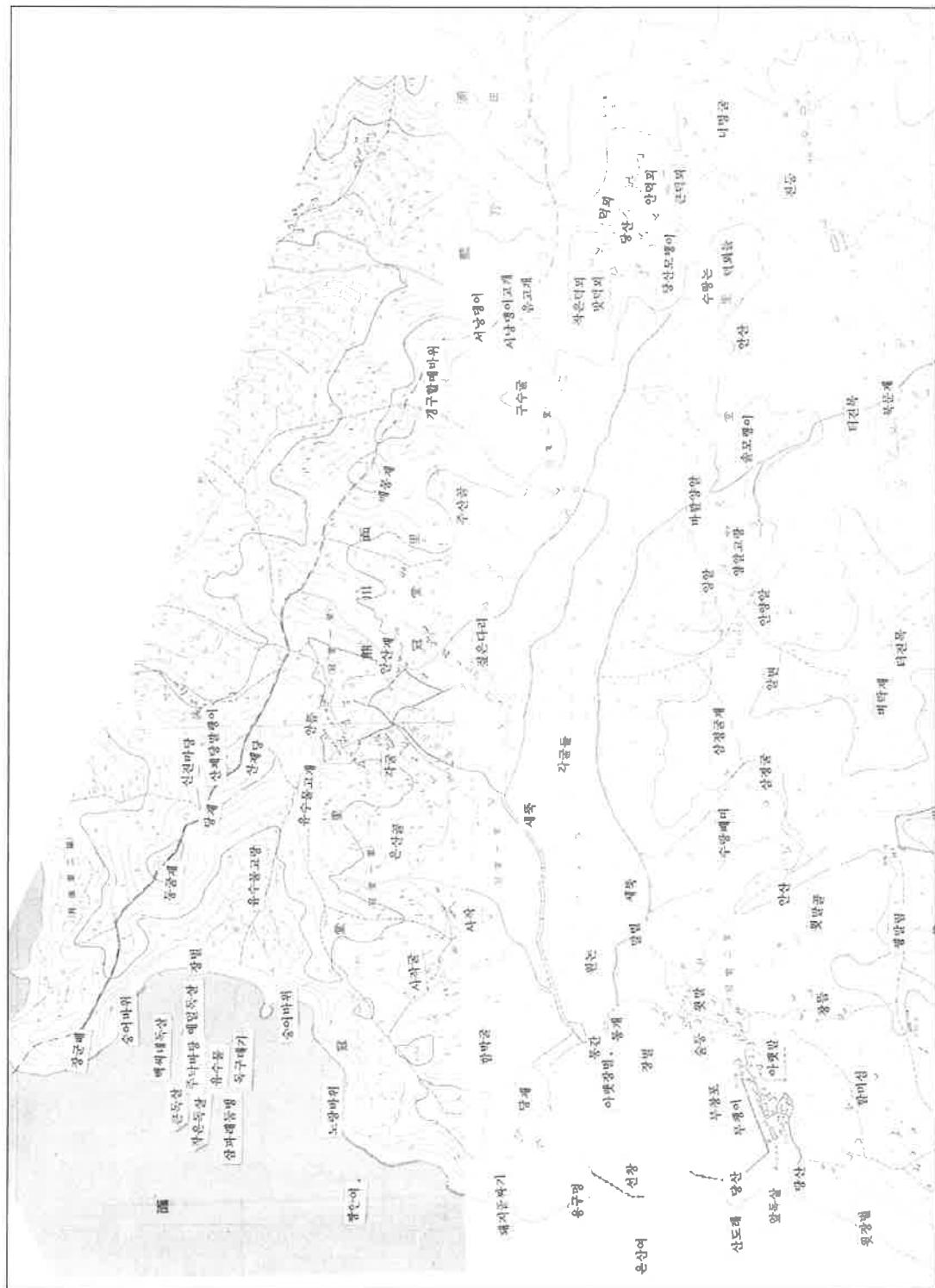
은산여 부근의 지명(1966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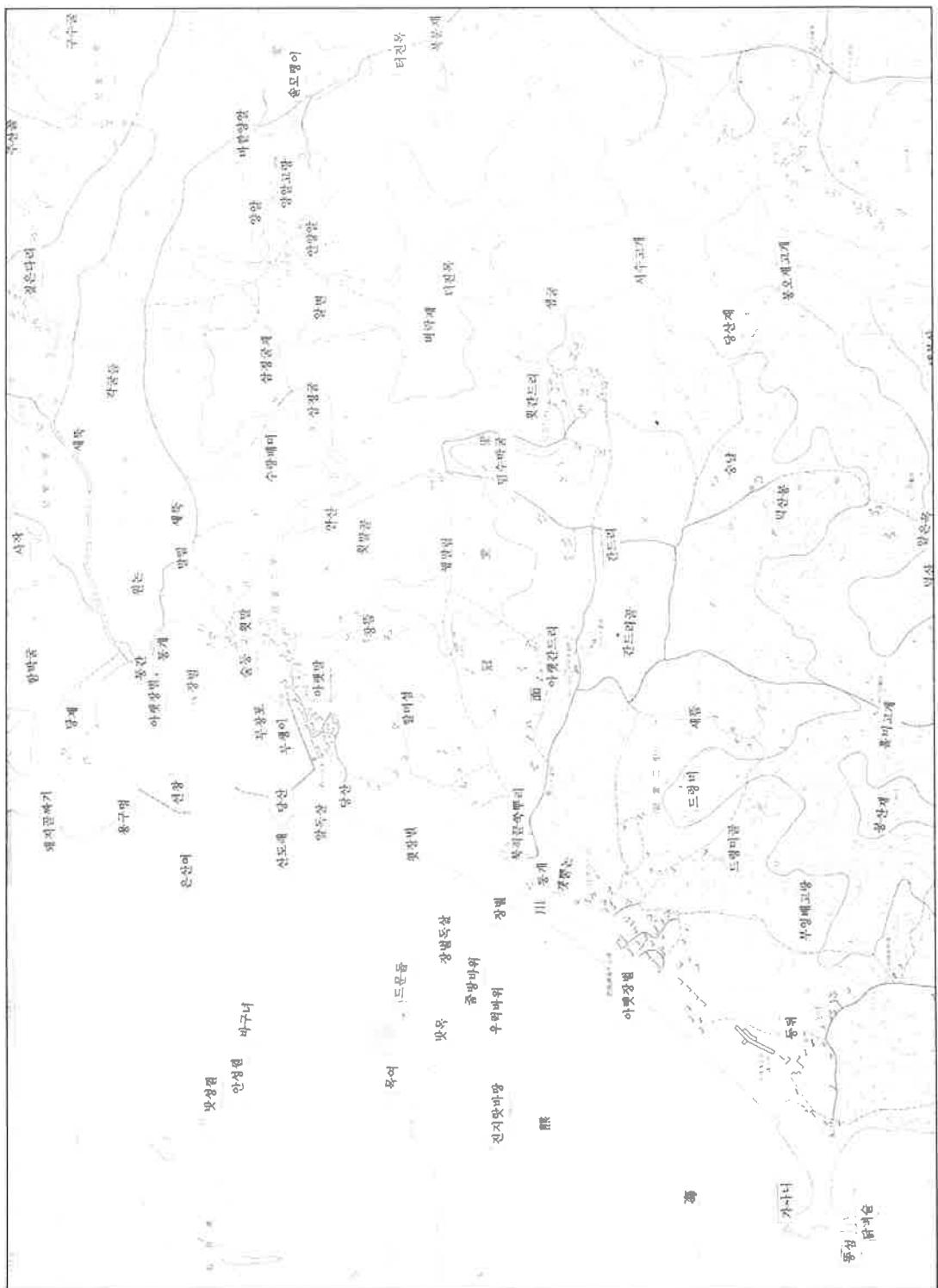
목 근처의 지명(1966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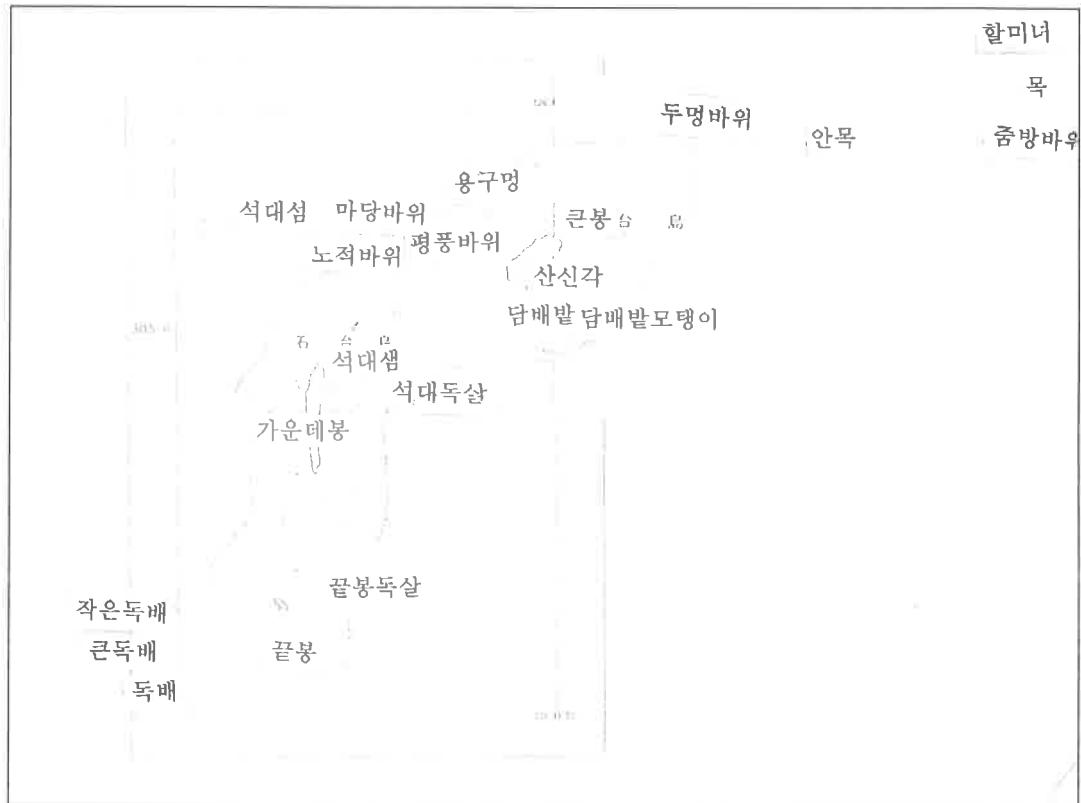
관당리의 지명(북동쪽)



관당리의 지명(북동쪽)



관당리의 지명(남서쪽)



관당리의 지명(석대섬)

7. 민 속

1) 성황당

관당리 마을에서는 보통 ‘서낭댕이’라고 불렸다. 관당리 마을과 주변마을이 연결되는 고갯마루에 있었으며, 서낭댕이를 지나갈 때 누구나 돌이나 솔가지를 던져놓고 지나갔기 때문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돌무더기에는 특별한 나무는 없었고 그저 잡목만 있었다고 하므로 신수(神樹)로 위하던 특별한 나무는 없었던 것 같다.

정월에는 각 가정에서 성황당에 떡, 밥, 북어, 과일 등을 진설해 놓고, 오색 천을 걸고 1년 신수를 빌었다. 이때 제물을 서낭에 남겨 놓았으며, 쌀과 북어를 묶어 나무에 걸어놓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성황당은 마을의 수호신이며 개인을 보호해주는 성역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별한 것은 무창포 마을에 성황당이 없었다는 점이다. 마을에 당집은 있어도 성황당은 없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다가 일제강점기에 항구가 개발되면서 주민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당리 마을의 당집과 성황당(1 각골 마을 당집, 2 각골 마을 성황당, 3 은고개 성황당, 4 무창포 안당산, 5 간드리 성황당, 6 간드리 당산)

(1) 각굴 성황당

각굴 마을회관이 있는 언덕 위 능선을 따라 남포면 월전리 댸월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의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었다. 이곳에는 돌무더기와 잡목, 등이 있었고, 각굴마을 주민들과 남포면 월전리 마을 주민들이 위했다. 1960년대 박정희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군사도로를 내어 훼손되고,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도 위하지 않는다.

(2) 은고개 성황당

은고개는 관당1리 덕뫼 마을에서 남포면 월전리 댸월마을로 넘가는 포장도로가 지나는 고개이다. 고개의 꼭대기 서쪽에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큰 성황당이 있었다. 신수(神樹)로 위해지던 특별한 나무는 없었고, 그대로 덤불이었다고 한다. 관당1리 덕뫼 마을 주민들이 주로 위했고, 남포면 월전리 댸월 사람들이 위하기도 했다.

(3) 윗간드리 성황당

윗간드리 사람들이 위하던 성황당이다. 윗간드리 마을에서 벼락재 꼭대기로 오르던 길가에 있었다. 산의 정상부는 아니고, 밭의 끝이었다고 한다. 주로 윗간드리 주민들이 위했다.

2) 동제(洞祭)

현재 관당리 지역에서 동제를 지내는 곳은 없지만, 주민들의 전언이나 지명으로 당제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은 덕뫼마을, 각굴마을, 무창포마을, 간드리마을 등 4곳이다. 장승이나 장승제는 찾아볼 수 없다.

(1) 덕뫼마을 당제

관당1리 안덕메와 뱃덕뫼 사이에 있는 낮은 산을 당산이라고 하고, 당산의 남쪽 끝단을 당산모탱이라고 불러 과거 덕뫼마을에서 당제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당제에 관하여 아는 주민은 없다. 지명으로만 남아있다.

(2) 각굴마을 당제

각굴마을 당산은 각굴마을에서 남포면 월전리 댸월로 넘어가는 산의 정상부분에 있다. 이곳에 1칸의 당집이 있었는데, 1955년부터 지내지 않아 허물어졌고 현재는 흔적도 없다. 1948년생인 주민이 어렸을 때 다 허물어져가는 합석집으로 된 당집을 보았다고 한다.

당제를 재닐 때에는 각골 앞에 있던 샘에서 목욕재개하고, 이어서 유수물에 있는 샘에서도 목욕재개하고, 떡, 초, 삼색실과 등을 놓고 제를 올렸다고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을 가져가 제물로 놓았다고 한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했고, 주민들이 모여 풍물을 치면서 지냈다고 한다.

산제를 마친 후에는 각골 마을에 있던 정자나무(현재는 죽음)에서도 제를 올렸다고 한다.

당시 당제를 주도했던 분들은 박종래, 김경학, 김영찬, 김경재 씨 등이었다고 한다.

1955년 굴을 따러갔던 배가 돌아오다가 전복되어 주민 2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뒤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당제를 잘 지냈어도 마을에 큰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1960년대 박대통령이 방문할 때 공병대들이 와서 공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한다. 이때 다친 이유가 당집 주변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돌았다.

(3) 무창포마을 당제

과거 무창포 안당산의 동쪽 기슭에 당집이 있었고, 주로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당제를 지내고, 이어 뱃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1925년생인 주민이 10살 정도 되었을 때 무창포에서 당제 지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당제를 지내지 않고 있고, 당집을 불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분들이 불태웠다고 한다.

당집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당집에서 당제를 올리고, 집집마다 배에서 뱃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당집이 없어진 뒤로는 배에서 뱃고사만 지낸다. 뱃고사 지낼 때 당재마을에서 각골마을 산제당에 이르는 산줄기가 지네의 형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붉은 장닭을 제물로 사용했다.

현재도 안당산 1790m²는 관당2리 대동계 소유로 되어있다. 보령시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대정3년(1914) 5월 22일 사정에 의해 국유지로 등록되었고, 대성8년(1919) 8월 11일 구룡리에 사는 황창현(黃昌顯)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25년 1월 9일 관당리 467번지 김중희(金重熙), 751번지 김봉희(金奉熙), 655번지 김영희(金永熙), 753번지 라계석(羅桂錫), 744번지 현순칠(玄順七) 씨 명의로 등기되었다. 그 후 1985년 4월 1일 법률 제



무창포 당산(2019.3.17.)

3562호에 의거 관당2리 대동계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과거의 마을 당산이 마을 대동계 소유로 확실하게 이전된 것이다. 무창포 마을(관당2리)에는 당산 외에도 관당리 408번지(전) 400여 평의 밭이 있다고 한다. 옛날 어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마을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4) 간드리마을 당제

간드리 마을에서도 당제를 지냈다. 당제는 간드리 마을과 죽청리 봉오재 마을의 경계가 되는 산꼭대기 바위 있는 곳에서 지냈다. 당집은 없었다. 현재 간드리 마을에서 당제를 기억하는 주민은 없다. 1934년생인 주민도 당제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1998년 발간한 『보령의 지명』에 의하면 마을에서 건립을 하여 제물을 마련하였다. 제일은 정월 14일 밤, 즉 15일 새벽이었다. 당주는 생기복덕을 보아 뽑았으며, 제물로 돼지 머리를 사용하였다. 당제 지낼 때 풍물을 치고 마을의 깃발도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3) 무속

무창포 출신 라민호 목사가 쓴 『하나님의 은혜로 三節인생』에¹⁴⁾ 1950년대 무창포의 무속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라민호에 의하면 1955년경 무창포에만 5명의 무당과 2명의 점쟁이가 있었다. 5명의 무당 중에는 삼대에 걸쳐 무속인이었던 분도 있었다고 한다.

무창포에만 7명의 무속인이 있었던 것은 당시 어업이 성하여 뱃고사를 지냈고 집집마다 안택을 했기 때문에 무속인의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무창포에만 7명의 무속인이 있었으므로 각굴, 덕뫼, 간드리 등에 있는 무속인까지 합하면 10명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민호씨의 책에 의하면

‘정월 보름날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서 농악을 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립을 하여 쌀을 모아가지고 떡을 빚고 음식을 준비하여 짚으로 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깃발을 만들어서 저녁에 무당들이 갓굴로 가는 삼거리 길에서 거리제를 지내는데, 말에다가 떡과 밥을 실어서 먼 곳으로 보내는 굿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가 미신이라고 못하게 해서 못하다가 해방이 되니 다시 부활해서 온 동네가 공동으로 무당굿을 하고 산제당에서 굿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여, 여느 동네처럼 무창포에서도 정월 보름에 거리제를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14) 라민호, 2002, 하나님의 은혜로 삼절인생, P67

2019년 3월 5일 관당2리 마을회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창포에서는 무당을 ‘영신’이라고 불렸고 영신은 시영 아들, 시영 딸을 많이 두었다고 한다. 시영 아들은 수양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를 때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렀다. 대개 점을 쳐서 영신을 어머니로 모셔야 명이 길다든가, 출세한다든가 하면 관계를 맺었다. 영신은 수양 아들 딸에 대하여 1년 동안 치성을 드려주는데 그 대가로 대략 쌀 1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1) 거리제

마을 입구의 거리에서 가정의 액운과 악귀를 보내고, 집안의 안녕과 대주(호주)와 가족의 출행길 안전과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것으로, 무창포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주로 지냈으나 택일하여 지내기도 하였다.

거리제의 순서는 먼저 길바닥에 벗장을 깔고, 삼색나물(무우, 시래기, 당근)과 떡, 과일을 차려놓고 이바지쌀이라 하여 쌀을 한 그릇 담아 놓는다. 쌀 위에는 무의 속을 파내어 기름을 붓고 불을 켜 놓는다. 이어서 소원을 비는 비손을 한 후, 소지를 올리고 떡과 과일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앉은 놈 너도 먹고, 선 놈 너도 먹고, 모두 물러가라” 외치고 마친다.

(2) 안택

과거 무창포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모두 안택을 하였다. 이것을 ‘정성들인다’ ‘경읽는다.’라고 하였다.

안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 앞에서 대문 앞까지 황토를 양쪽으로 정성들여 놓고, 대문 위에는 금줄을 쳐 놓는다. 안택은 창호지를 접은 고깔을 쓰고, 장구를 치며 독경을 하는 법사와 신의 내림을 받은 명도라는 사람이 진행한다. 하루에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3~4일동안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3~4일 진행하는 것을 ‘큰정(큰경) 읽는다’라고 하였다.

경을 읽는 순서는

① 지신경(地神經)을 읽는다. 지신경은 법사가 마당의 한 가운데서 대문 쪽을 보고 앉아 독경하는데 제단에는 정화수만 놓는다. 모든 부정을 풀고, 강림하실 신령을 모셔오는 경이다.

② 당산경(堂山經)을 읽는다. 당산경은 울안의 장독대에서 읽는다.

③ 조왕경(竇王經)을 읽는다. 조왕경은 부엌에서 읽는다.

④ 성주경(城主經)을 읽는다. 성주경은 집의 수호신인 성주에게 올리는 경으로 안방에서 읽는다.

(3) 신당에서의 굿

신당을 모신 무속인이 신당에서 읽는 경이다. 처음 강신경(降神經)을 읽는데, 법사는 질문을 하고 신도는 대나무를 잡고 신의 명령을 받는다. 신의 의사는 대나무의 흔들림으로 아는 것이다.

이어서 잡귀가 있으면 신장을 불러 잡아내고, 살이 있으면 제살굿으로 살풀이를 하고, 동티가 있으면 동티막이를 하고, 떠나 보내야 할 한 많은 영혼이 있으면 해원풀이로 달랜다.

이후 축원경을 읽는데, 이는 나쁜 액을 몰아내고 복을 비는 경이다. 마지막으로는 안심경을 읽는다.

4) 뱃고사

무창포 마을의 뱃고사는 다른 마을과는 좀 달랐다. 외연도나 남포면 제석리 조잠 같은 포구에서는 뱃기를 가지고 마을의 당집으로 올라가서 당제를 지낸 후, 자기 배로 뛰어와서 당제를 지냈는데 무창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당제는 당집에서 지내고, 뱃고사는 정월을 세고 도다리를 잡으러 출항하기 전에 각 배에서 지내는데, 끝을 자르지 않은 대나무에 오색 깃발을 걸어 놓고 제를 올렸다. 제물은 팥고물 떡과 삼색실과, 대추, 밤, 명태 등이었고 특히 붉은 장닭을 잡아 사용하였다. 소머리나 돼지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붉은색의 큰 장닭을 잡아 사용하였다. 무창포 포구의 북쪽 당재 마을에서 각굴마을 당산에 이르는 산이 꼭 지네같이 생겼기 때문에 지네의 상극인 닭을 제물로 썼고, 닭 중에서 가장 큰 장닭을 제물로 쓴 것이다.

5) 독살제¹⁵⁾

각굴 마을에서는 유수물의 독살을 경영하였고, 독살제를 지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지냈는데 반드시 초사리인 3매 날 지냈다. 젯날에는 집 앞에 황토를 놓고, 저녁에 들 물 때 지냈는데, 3매 날이기 때문에 어둑어둑 할 때이다. 3매 날은 조금이 계속되다가 이 날부터 물이 살아 사리로 바뀌는 때이다. 다가오는 사리에 고기가 많이 잡히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삼조일(三潮日)은 귀신이 활동하는 불길한 날로 여겼다고 하는데¹⁶⁾, 이 삼조일이 3매 날이고 이날이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를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

15) 김기섭(1948) 보령시 응천읍 관당리 각굴 증언

16) 문경호, 2018, 『조행일록』을 통해 본 19세기 성당창 조운선의 항해술과 항해의례, 도서문화 제51집.

독살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독살강구’라고 불린 독살 주인이다. 제물은 백무리, 명태, 삼색실과였다. 밥은 없었다. 용왕님께 지내는 것으로 독살에서 지내지 않고 바닷가 바위 밑에서 지냈다.

6) 상여

관당리의 상여는 원래 1개를 가지고 사용하였다. 마을이 분구되지 않고 이장이 한 사람 일 때에는 각굴, 무창포, 간드리 마을에 상여가 1개 있었던 것이다. 이때 상엿집은 무챙이 위뜸 솔밭, 경주 김씨네 종산에 있었다.

(1) 갓굴 마을 상여

갓굴마을 상엿집은 관당리가 분구되면서 생겼다. 분구된 뒤 처음으로 생긴 상엿집은 진등으로 올라가는 언덕의 밑, 또랑 밑에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삼정굴과 양알마을 사이의 산기슭으로 옮겼다.

상엿집 부지가 개인소유였는데 펜션을 짓게 되어 2011년쯤 철거하고, 상여는 소각하였다. 옛 상여부터 모두 보관되어 있었으나 사용하지도 않고 개인 소유의 땅에 있어서 철거했다고 한다.

(2) 무창포 마을 상여

원래 상엿집은 포구 안쪽의 사구 동쪽, 통개에 있었다가 종묘배양장 동쪽, 현재의 해안도로 자리(함박굴)로 옮겼었다. 마을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옮긴 것이다. 그러나 남포면 월전리와 무창포를 해안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상엿집을 지나게 되어 철거하였다.

(3) 간드리 마을 상여

상엿집은 간드리 마을회관 북쪽 산기슭인 관당리 367번지에 있었다. 블록벽에 합석을 엮었고 $26.4m^2$ 크기였다. 2012년 보령시 상엿집 정비사업으로 철거하였다.

간드리마을 상여는 죽청리에 사는 김화제씨가 만들었다고 전한다. 김화제씨는 기술 좋은 목수였고, 구룡리 고뿌래 등 여러 마을의 상여를 만들었다.



간드리마을 상엿집(2012)

7) 흉년의 적응

보령지방 주민들이 기억하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흉년은 해방 직후부터 1952년 사이에 겪은 소위 7년 가뭄이었다. 가물어서 모를 심을 수도 없었고, 전쟁 중이라 나라에서도 어 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관당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흉년의 고통이 컸다. 라민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동리에 구씨 댁이라고 경상도에서 흉년을 견디다가 속칭 떼거리들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에 같이 떼거리로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동네에서 살게 된 사람들인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살다가 흉년이 드니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다가 복어 알을 끓여 먹고 중독되어서 죽는 광경을 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준 사건이 있었다. 1945년 해방 직후 독산리 마을 앞 백사장에 중국무역선이 수수를 한 배 가득싣고 들어온 것이다. 이 수수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다 삫아 말렸다가 밥을 해 먹었다.

관당리 주민들이 흉년에 먹었던 특별한 음식은 ‘말밥’이었다. 겨울에 나오는 해초인 ‘말’을 잘게 썰어 넣고 밥을 해 먹었는데 말은 잘 소화되지 않았다. 그나마 바닷가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8. 종교생활

1) 무창포 침례교회

관당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가 무창포침례교회이다. 무창포침례교회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한국침례회’이며 미국 남침례회와 연대하고 있다. 무창포에 침례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해수욕장의 적산가옥에 침례교회 수양관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수양관에 1953년 11월 1일자로 박약한(朴約漢)이란 침례교 전도사가 처음으로 부임하여 선교활동을 하였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다. 박약한 전도사가 금요일 저녁 덕산봉 너머에 있는 신도 집으로 가정심방을 가는데 여자 집사를 데리고 갔다. 저녁을 먹고 오는 길에 여자 집사가 발을 헛디며 개울에 빠졌고, 전도사가 개울로 들어가서 건져내 주고, 부축하여 밀어 올렸다. 이렇게 올라오고 털어주고 하는 광경을 지나가던 남자가 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여자 집사의 아들에게 “네 어머니가 전도사와 개울에서 껴안고 둥글더라”라고 해서 이후 아들이 예배를 방해하였다.

예배당에 돌을 던지고, 유리를 깨고 하는 바람에 몇 번 예배를 못 보았고, 술만 먹으면 와서 다 죽인다고 난리를 쳐서 견디다 못한 전도사가 세간을 모두 그대로 두고 가족만 데리고 도망간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본부의 선교부에 들어가고 수양관 교회를 부수었다고 하니까 본부에서는 교회를 폐쇄시켰다. 당시 교인이 30여 명이었는데 예배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때 교회 청년회장 라민호와 김윤곤, 김진구, 손옥환 등은 60자 광목 한 통을 준비하여 지게에다가 종(산소통)과 말뚝 20개를 준비하여 주일날에는 양지바른 곳에 말목을 박고 광목으로 두르고, 산소통 종을 치면 교인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는데, 70명씩이나 모였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집전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레이 선교사가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는 무창포교회 건축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여 교회건축 작성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후 1959년 10월 11일에 천안시 봉명동 레이 선교사가 거주한 선교부에 가서 교회 건축지금 78,000환을 받아가지고 와서 김용태로부터 현 무창포침례교회 대지 320평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라민호 청년회장이 기여하였다.

박약한 전도사 이후 부임한 전도사는 북한에서 피난온 김명근 전도사였는데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임하였고, 이어서 김완진 목사가 부임하여 70세로 정년하였고, 이후 정무진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창포침례교회(2019.3.17.)



무창포침례교회(2019.3.24.)

무창포침례교회

교회소개
우리 무창포교회의 교단명은 「기독교한국침례회」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신교단인 미국 남침례회(Southern Baptists)와 연대하고 있는 복음적이며, 신교중심의 전통있는 교회입니다.
설립교단에는 미국의 카메론 「한국침례회」, 제자촌 제임스, 유헨리, 청교도, 하스, 스웨덴, 현대 천국의 이색지, 월터밀, 페터, 장세종, 청도자 박제, 그레이엄, 앤디우드가인, 바운, 부란, 캉, 흰기 빙원, 대월류, 자이, 카트, L.E. 웨스트리, 부리 니라에=, 길当局총, 이사장 김광희 목사(수원종합교회), 문성선 목사(한국침례회), 이동환 목사(서울구룡교회), 화경동 목사(대전충동교회) 등이 있습니다.

헌금안내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직접 넣어 주세요(별도의 헌금시간은 없습니다).
온라인 헌금
농협/ 351-0737-6310-93(무창포침례교회)
송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제목 기입
①「**2019.5.30(일)**」「**헌금증명서**」

**무창포교회가
남기는 교회와 선교사**

1. 이식로직(慈母心) 교회
2. 꿈리던 마닐라침례신학교
설립한 선교사
3. 라오스 앱민유기증&조종학교
(한국인·미국인 선교사)
4. 군부대선교(예수교) 144
5. 97연대소양교회(이종관 목사)
6. 대질농아인 교회(한국교민 전도부)

교회 소식

◆ 40일 창정새벽기도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육신)
일시: 3월 4일(월)~4월 20일(토)
다니엘회개기도회
날짜: 4월 8일(월)~4월 19일(금)
시간: 오전 10:00(월~금), 10일간

◆ 옥회자세미나
일시: 2019년 3월 25일(일)
장소: 현대 GSCE

◆ 중보기도
•이연희 감독 → 홍세호 원사

◆ 4월 헌금위원
1부→ 3. 협재, 김재, 2부→김술, 권사

<무창포침례교회: 비잔>
무창포를 복음의 관광도시로 만드는 교회

1. 성도들이 이 지역에는 교회
2. 1천명이 넘어야 무창포를 살기는 교회
3. 임차를 압착하여 휴식에 도장을 주는 교회

제 05권 12호 | www.koreachurch.org
2019년 3월 24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고
무창포를 착용해 한 강도식으로 만드는
무창포침례교회

2019년 표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관왕도서 경 우 경(平賀)

KOREA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02) 540-0000 ~ 540-0000 / FAX 010-3029-1758
E-mail: 540-0000 ~ 540-0000

무창포침례교회 주보 1

- 1995. 3. 3. 입당 예배.
- 1999. 5. 9. 옥상 조립식 건축(34평)
- 2001. 2. 4. 군선교(무창포 소초)
- 2003. 4. 13. 식당(창고) 조립식 건축(23평).
- 2003. 3. 16. 교회부지 779-3번지 일부(5.6평), 종교부지를 77-8번지(5.6평)와 교환.
- 2009. 2. 이기영 전도사 목사안수(임시목사 청원)
- 2010. 11. 이수건 목사 부임.
- 2011. 2. 군선교(154R/S)
- 2011. 7. 무창포 작은도서관 개관.
- 2011. 8. 무창포 작은도서관 등록.
- 2013. 2. 군선교(154R/S 및 무창포 소초)
- 2013. 3. 창립28주년 제1회 작은음악회.
- 2014. 3. 창립29주년 제2회 작은음악회.
- 2014. 5. 충청남도 & 보령시 지원사업 주말학교 운영.
- 2014. 5. 토요 기타교실 & 바둑교실 운영.
- 2015. 3. 군선교(무창포 소초)
- 2015. 1. 새 성전 건축하기로 하다.
- 2015. 2. 새 성전 건축(2015. 7 입당예배 / 2015. 9 준공).
- 2015. 8. 광복 70주년 역사탐방(중국).
- 2015. 11. 2층 본당(보일러실 및 사랑방 증축)
- 2016. 3. 창립 31주년 제3회 작은음악회.
- 2016. 6.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 지역주민 작품전시회.
- 2016. 7. 무창포타워 지역주민 작품전시회.
- 2016. 10. 웅천읍 주민센타 지역주민 작품전시회.
- 2016. 12. 무창포 놀이터(비닐하우스)설치.
- 2017. 3. 창립32주년 제4회 작은음악회.
- 2017. 5. 28. 힐링음악회 국악연주(해금연주 은한).
- 2017. 7. 15. 지역주민 작품전시회.
- 2017. 8. 1. 중고등부 제주탐방(3박4일).
- 2017. 9. 9. 신비의 바닷길 지역주민 작품전시회.
- 2108. 3. 4. 제5회 무창포 작은음악회.
- 2018. 7. 14.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 및 제1회 장기대회.
- 2018. 8. 10.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작품전시회.
- 2018. 12. 24. 사랑의 천사(1004) 만두 나누기.
- 2019. 3. 3. 제6회 무창포 작은음악회.
- 2019. 6. 3-8 3.1운동 100주년 북중 접경지역 역사 탐방



무창포 장로교회(1992)



무창포 장로교회(2019.3.31.)

교회소식

2019년 표어
"영적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히13장12-16, 암3장2절)
새로 오신 훈장을 헌영 합니다!

기도제목 : 1. 국가의 평화를 위한
2. 농촌32서 무창포소초 복지비아 선교자
3. 지역사회를 위한
4. 교회를 위한

교회력 : 금주는 제작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연찬도회 : 모임 오후6시에 후 연찬도회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합기도회 : 4월5일(금)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 : 삼주제일교회, 시간 : 저녁8시.

봉화일정 : 4월1일(월) 부처모임 오후 여관연장
2일(화) 서울 수선교회(오전9시)
3일(수) 보봉사 식육암 대무성기(오전9시)
4일(목) 강천고개(2전동문설령유원)(10시30분),
5일(금) 연합기도회
6일(토) 무창포소초

지난주 현금
입출조 :
선교현금 : 김상태 김순득 김소근 이점희 오세숙
건축현금 : 김종경 송재순 이점희 오진희
감사현금 : 김상태 김순득 김성선 김홍식(오정순) 박수정
이동금 이승재 윤은수

2019년 3월 31일
(통일 1955년 3월 3일)
제 34권 13호

**내한여수회
장로회** **무창포교회**
MU CHANG PO PRESBYTERIAN CHURCH

영광 구원과 회복이 있는 온누리가 창강한 교회 (엡1:7)

예배 균형과 있는 교회 /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 성교의 비결이 있는 교회
영광 구원과 회복이 있는 온누리가 창강한 교회 (엡1:7)

당임목사 : 이수건
355 ~ 851 충남 부여군 옹천읍 널린마을로 267
전화번호 (041) 935-3524 / 팩스번호 070-7745-3524
이메일 010-2884-9078 / E-Mail : isugun26@gmail.com

무창포장로교회 주보 1

주 일 낮 예배			
		일도 : 이수건 목사	
1부 오전08:30 2부 오전11:00			
* 전 주(보상기도) * 말씀기원(본전4:13-14절)..... <small>“다른가?” 그들은 노트 그림에 묵어두었는 것처럼 묵어두었지만 그들이 영광을 나누었을 때에 묵어두었고 친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으로의 사랑으로 차별을 되찾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어주었을 때에 너희 모두에게 카불하라.”</small>		반 주 사 인도 : 이수건 목사	
* 김대중(창 21장) * 성시고독(교 127번/사순절4) * 신왕고백(사도신경) 찬송(539회) 기도(창 16-21절/신230) 주기도문(창 50장) 찬양(본 - 여호와 우리 주여) 설교(임금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기도(이수건 목사) 찬송(창 50장) 복(유복: 박주희 목사) 교회소식(창 489장) 학성기도(창 620장) * 김서창(창 489장) * 축도(성도간에 서로 기도를 나누며) * 회화(성도간에 서로 기도를 나누며)		반 주 사 인도 : 이수건 목사	
* 표는 절어서는 표시 / 현금은 둘러쓰는 때 청탁함에.			

오우 전양예배			
		인도 : 이수건 목사	
오후 1:30			
* 찬송 기도(인13장 30-33절 / 구약217) 성경말씀 현금간증 교회소식 축도 <small>이수건 목사</small>		다 갈 이 악금증 5 이수건 목사 다 갈 이 인도 재 이수건 목사	

수요기도회			
		인도 : 이수건 목사	
오후 7:00			
* 찬송 기도 성경말씀(요10:31-42절/신약164) 교회소식 축도 <small>이수건 목사</small>		다 갈 이 박주희 목사 이수건 목사 인도 재 이수건 목사	

새벽기도회			
		예배안내 시간	
예배장례 - (오전 6:00)		새벽기도회 매일 6:00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전당 오후 1:30 성요 저녁 7:00 기도회 5:00, 7:00 현금이자금 오전 9:30 축복 오후 1:30 중고등부 오후 1:30	
4월 새벽기도 교제장소			
		구역 예배 1. 이천동, 가로리, 3. 속진동, 6. 주체 2. 이문동, 표도동, 4. 오정동, 5. 평화동	

무창포장로교회 주보 2

3) 무창포 제일교회

무창포 제일교회는 기쁜소식 선교회 소속의 교회이다. 교단하고 상관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념으로 1987년 라은호 장로님이 토지 182평을 기증하여 설립되었다. 라은호 장로님은 무창포 침례교회를 30년 동안 다니다가 무창포 제일교회를 설립하였다.

교회가 설립된 후로 10명의 목사님이 근무하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학철-이현호-조근용-우승기-김진곤-양운기-이종열-우병석-노양수-유만복(현)



무창포 제일교회(2019.3.31.)

9. 오래된 나무

1) 각굴 정자나무

관당리 짚은다리 마을에 있는 큰 느티나무이다. 1991년 설치한 비석에 의하면 둘레는 3.7m이고 수관폭은 14m, 추정 수령은 160년인데, 2019년 5월 24일 측정한 결과 둘레가 428cm였다. 28년동안 58cm가 늘어난 것이다. 이 정자나무 안집에는 의령남씨가 살았는데, 11대조 할머니가 아들 2명을 품에 안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300여 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 의령남씨 집안에서는 이 정자나무가 집안의 이주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868년생인 분이 어렸을 때도 현재와 크기가 같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각굴 정자나무(2019.3.3.)

2) 각굴 감나무

각굴마을 북쪽 산기슭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이다. 줄기의 절반은 썩고 한쪽만 살아있다. 쪽두리감(작고 많이 여는 감)인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홍시를 즐겨 따 먹었고, 우려먹기도 하였다. 잘 우러나는 감이다. 올라간다고 꾸지람도 많이 들은 추억의 감나무라고 한다. 흉고둘레는 200cm이다.



각굴 감나무(2019.3.5.)

3) 무창포 윗말골 왕소나무

무창포 윗말골 경주김씨 묘역에 있다. 가슴둘레가 205cm에 이르는 홍송이다. 경주김씨 종중 묘역에 있어 잘 보호되고 있으며 수세도 좋다. 앞으로 관당리의 명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양알 느티나무

벼락재 북쪽, 큰양알에 있는 큰 느티나무이다.
벼락재에서 알배기산으로 뺀어내린 산줄기의
목 부분에 있다.

1991년에 세운 비석에 의하면 둘레 620cm, 수
관폭 30m, 수령 28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019년 5월 24일 측정한 결과 둘레가 663cm였
다. 28년 만에 43cm가 늘어난 것이다.

느티나무 부변에는 청풍김씨들이 사는 마을이
었으나 현재는 모두 이주하고, 별장같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 나무가 매우 크고 세력이 좋
다.



윗말골 왕소나무(2019.3.8)

5) 덕뫼 느티나무

덕뫼 마을 앞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근래에 심었지만 위치가 좋아 빨리 자
라 거목이 되었다. 2019년 5월 24일 현재 둘레 220cm이다.



양알 느티나무(2019.5.24.)



덕뫼 느티나무(2019.5.24.)

10. 수 산 업

1) 독살

(1) 독살의 형태

독살은 썰물 때 드러나는 간석지에 돌담을 쌓아 들물 따라 들어온 고기가 썰물 때 나가지 못하게 만든 시설로, 관당리에는 많은 독살이 있었다. 유수물에 5개이 있었고, 밧당산 옆에 1개, 석대 목 건너가는 데에 2개, 가산여에 1개 등 9개에 이르는 독살이 있었다. 독살은 돌이 많은 해안에 만들기 때문에 유수물 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특히 유수물은 돌이 많은 작은 만으로 중앙으로 바닷물이 밀려와 양 옆으로 퍼지는 지형으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독살을 만들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억으로는 독살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논이나밭처럼 서로 거래된 것만 알고 있다.

큰 재산으로 여겨지던 독살은 1995년경부터는 이용되지 않았다. 어족자원의 고갈로 ‘독살을 보려’¹⁷⁾가더라도 ‘들은고기’¹⁸⁾가 없기 때문이다.

독살은 간석지의 높은 두 지점에서부터 돌을 쌓아 깊은 곳에서 만나도록 만든다. 양쪽의 사리(독살의 섬창에서부터 끝까지를 말함)가 만나는 지점을 ‘섬창’이라고 하는데, 섬창이 가장 깊은 곳이고,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면서 고기를 잡는 곳이기도 하다. 돌담장의 높이도 섬창에서 가장 높아 약 250cm 정도 된다. 섬창에서부터 가장자리로 가면서 담장의 높이는 낮아지고, 담장의 상부는 수평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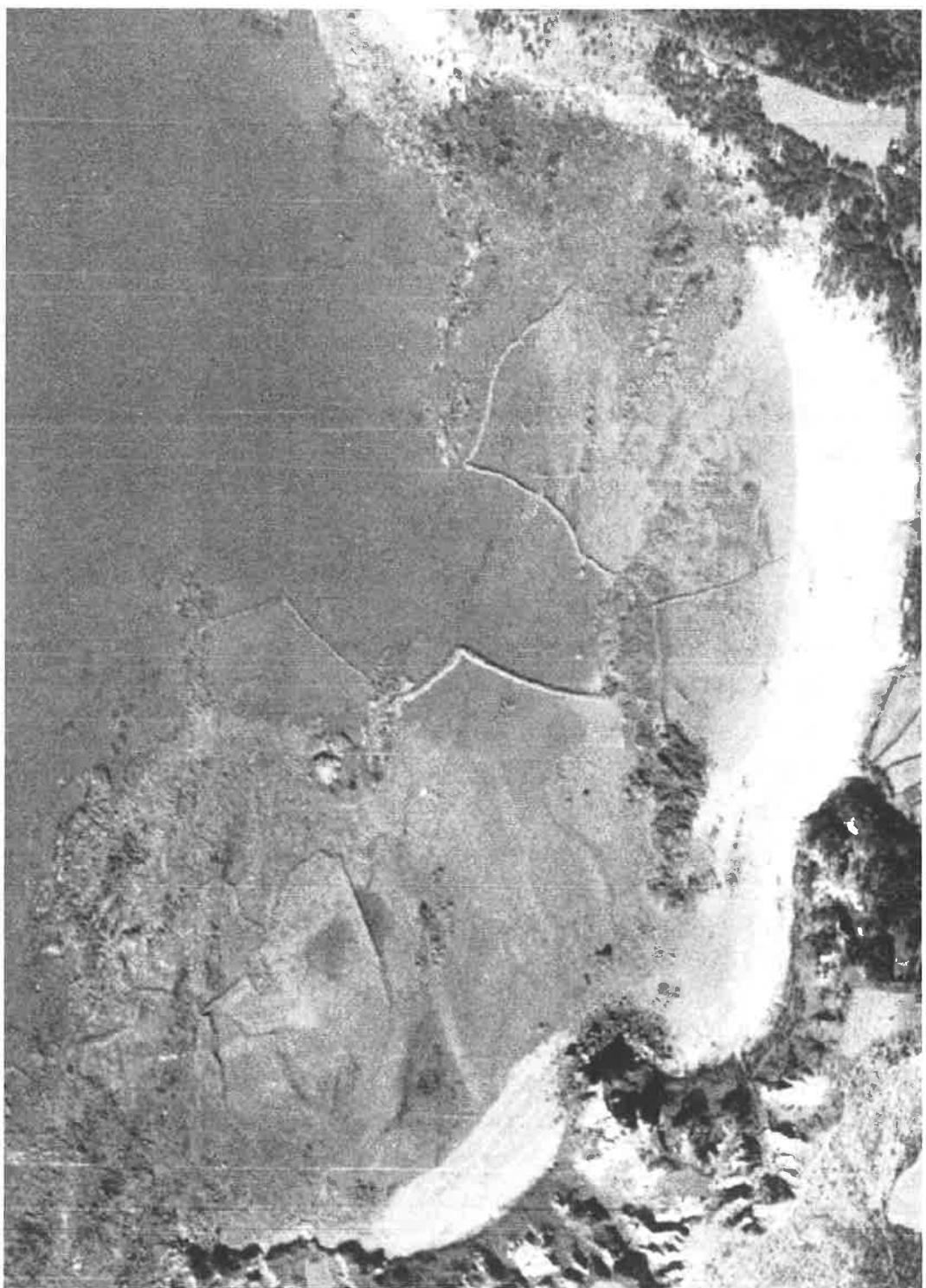
돌 담장의 기울기는 바다쪽은 완만하게 쌓고, 안쪽은 수직으로 쌓는다. 밖에 경사를 주어야 파도에 견딜 수 있고, 인쪽에 수직으로 쌓아야 고기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독살을 쌓는 돌은 독살 주변에 있는 돌을 사용하였다. 바다에서 침식된 돌을 사용해야, 물도 잘 빠지고 고동같은 생물도 잘 붙는다. 산에서 가져온 모난 돌은 섬창의 아랫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어도 날개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독살의 담장 폭은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졌는데 상부폭이 150cm 이상은 되었다. 또한 큰 돌은 가장자리에 쌓고 작은 돌은 안에 집어넣어 물은 잘 빠지지만 물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섬창의 아래에는 물이 나가는 섬창구멍(100×50cm정도)이 있고, 여기에 대나무로 옆은 ‘섬창발’을 쳐 놓아 고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섬창은 큰 돌로 쌓아 튼튼하고, 통나무를 걸치고 섬창발을 쳐 놓으며, 돌로 눌러놓는다. 섬창발은 1년에 2번 정도 새로 만들어 설치하였다.

17) 독살로 고기잡으려 가는 것을 ‘독살을 보려간다’라 했음

18) 독살 안에 들어있는 고기.



유수물 독살(1966)



목독살(1966)

(2) 독살에서의 고기잡이

① 독살에서 사용한 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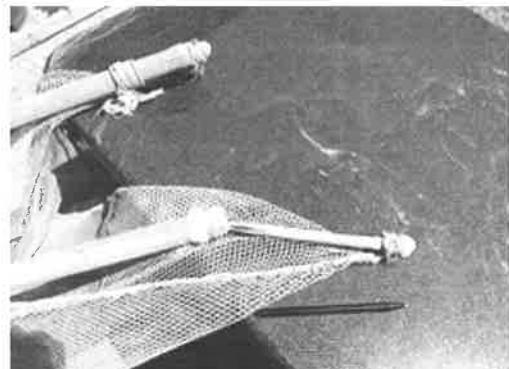
○ 독살그물 : 독살에서 사용한 어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살그물'이다. 폭 300cm, 길이 190cm의 상당히 촘촘한 그물을 2개의 대나무(길이 300cm)에 매달아 만들었다. 손잡이 쪽 대나무 끝에서 26cm 떨어진 곳에 못을 박아 두 대나무를 손잡이 쪽에서 고정시켜, 벌렸다 좁혔다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에 손잡이쪽 끝에서 53cm 떨어진 곳에 작대기(길이 53cm)를 대어 그물을 넓히고,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그물의 끝에는 대나무 속에 길이 20cm의 소나무 막대기를 찔러넣고, 소나무 막대기에 그물을 매달아 대나무가 들려도 그물은 그대로 바닥에 있어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꽃물¹⁹⁾이나 증물²⁰⁾ 볼 때 사용한 그물이다.

- 쪽대 : 독살의 그물코는 사방 0.5cm이고 그물 부분은 33×32cm, 자루부분은 37cm이다. 딸 물 볼 때 사용한 도구이다. 그물코가 1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 독살다람치 : 독살 보려갈 때 지고가는 대바구니이다. 47×32×39(높이)cm로 바닥에 2개의 나무를 대어 바닥을 보호하였다.
- 바가지 : 독살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퍼 담는 도구이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보통 바가지 를 사용하였다.



독살그물(2019.4.17.)



독살그물의 끝 부분(2019.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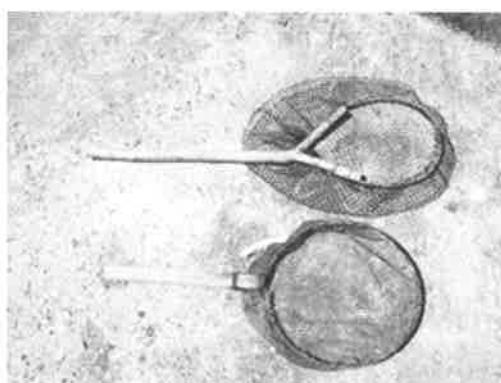


그림 쪽대(2019.4.17)



독살다람치(2019.4.17.)

19) 독살이 노출된 직후.

20) 독살에 물이 중간쯤 나갔을 때.

② 계절에 따른 고기잡이

○ 겨울 : 겨울에는 우럭, 잠뱅이, 몰치, 숭어 등을 잡았는데 날이 좋고 잔잔한 날이면 숭어가 많이 들었다. 겨울에는 춥고 낮물이 많이 나가고 밤물은 적게 나가기 때문에 낮에만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물에 떠다니는 작은 물고기는 없어 물이 거의 빠져나갔을 때(딸물) 쪽대로 고기를 잡았다.

○ 봄 : 음력 3월부터 실치, 까나리를 잡았다.

○ 여름 : 여름에는 멸치, 빈댕이(턱지래기), 등퍼리, 학꽁치 등을 잡았다.

○ 가을 : 가을에는 자하(紫蝦), 전어, 오징어, 숭어, 깔때기(작은 농어), 아나고 등을 잡았다.

하절기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날씨도 춥지 않아 밤물도 본다. 특히 아나고는 밤물에 잡힌다. 밤에 독살에 나갈 때는 으스시했다고 한다. 특히 장벌을 지날 때에 비린내도 나고, 노린내가 나는 경우도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일단 독살에 도착하면 안방같이 아늑했다고 한다.

하절기에 떠다니는 고기는 꽃물로 잡았고, 아나고나 오징어는 중물로 잡았으며, 숭어나 우럭, 놀래미, 깔때기 등은 딸물로 잡았다.

꽃물은 독살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즉 독살에 물이 많았을 때 잡는 것이다. 중물은 물이 중간쯤 빠졌을 때 잡은 것이고, 딸물은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잡는 것이다.

독살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선 꽃물을 보려 독살로 들어가는데, 낮에는 논두렁처럼 독살의 사리가 노출되면 들어가고, 밤에는 독살의 사리가 20~30cm정도 높이로 노출되면 들어간다. 녹살의 사리를 밟고 들어가지만 옆으로 빠지면 깊은 바다이기 때문이다.

③ 물때에 따른 고기잡이

독살에서는 조금 때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것은 3매 날부터이다. 3매 날부터 물이 빠져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3매나 4매 날은 물이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꽃물과 중물만 본다. 딸물을 볼 수 있게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는 물고기가 독살 안에 들어와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구경만 하는 것이다.

잡기 어려운 고기가 숭어인데 숭어는 약아서 사람이 들어가 흙탕물을 일으키면 뒤따라와서 흙탕물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런 때는 꽃물에 작살로 잡는다.

김기십씨 댁의 경우는 독실을 2개 소유하고 운영하였다. 하나는 높은 곳, 하나는 낮은 곳에 있었는데 처음 바다에 나가서 윗독살의 꽃물과 중물을 보고, 아래독살로 옮겨 꽃물을 보고, 다시 윗독살로 옮겨 딸물을 본 후, 아래독살로 옮겨 딸물을 보았다.

아래독살은 깊어 큰 사리 때만 딸물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④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우

독살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우는 대개 장마철이다. 이때 멸치가 들어오는데, 멸치를 따라 갈치도 들어온다. 독살에 가득 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가다구했다’라고 한다. 가다구하면 독살강구(독살주인)는 즉시 마을에 알리고 마을의 전 주민이 독살로 달려가 고기를 가져온다. 이때는 독살그물을 돌로 눌러놓고 고기가 빠져나가지만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펴 담아 나르는 것이다.

그야말로 독살에 고기가 가득 차는 것이다. 이때 잡은 고기는 10가마니도 되고 20가마니도 된다. 이런 경우는 1년에 1번이나 몇 년에 1번 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기대하고 1년 내내 밤이나 낮이나 독살을 보러 나간다고 한다. 잡지 못하는 날이 많지만 희망을 가지고 매일 나가는 것이다.

독살에 고기가 많이 들면, 고기비늘이 떨어져 바다로 나가고, 자연적으로 비린내도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우럭, 농어, 깔다귀(농어 새끼), 장어 등이 몰려와 낚시질도 잘 된다.

마을 주민들이 가져간 고기는 독살 주인 것이 아니고, 모두 자기 집으로 가져가 젓을 담근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말리지 못하고 젓을 담그는 것이다.

김기섭씨의 기억에 의하면 독살에서 가장 큰 고기를 잡은 경우는 약 20kg정도 되는 청나비(큰 가오리)를 잡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살 물 보러가서 식인상어같은 큰 상어가 독살 밖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에 관당리 마을회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산리 마여독살에서 큰 상어를 잡아, 3집에서 나누었는데도 다 먹지 못하고 결국 젓을 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필자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는 가사니 독살에서 상어를 잡아 4명이 목도를 해서 운반했다고 한다. 이렇게 큰 고기도 잡히는 곳이 독살이다.

⑤ 독살에서 잡은 고기의 가공

독살에서 잡은 고기는 젓갈을 담는 것이 가장 많다.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잡히고 대개 작은 고기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소금에 벼무려 독에 넣는다. 큰 고기는 소금에 절여 말려 먹는다.

(3) 독살의 보수

독살은 봄 가을로 보수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밤물이 많이 빠지는 시기로 바뀌기 전에 보수를 하고, 가을에는 밤물이 많이 빠지기 전에 보수를 한다. 낮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낮물이 많이 빠질 때 보수를 하는 것이다.

독살을 보수할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와준다. 독살을 보수하는 일은 돌을 주워다가 독살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돌을 운반하는 일이다. 돌은 등에 져 운반한다. 가마니를 반으로 접고, 아래쪽에 막대기를 대고, 안쪽에는 멜빵을 만들어 지게처럼 지게 만들어 돌을 얹고 등짐으로 져 운반한다. 독살 주인은 이것을 몇 개 만들어놓고 일을 시킨다.

독살을 보수하는 데 도와준 마을 사람들은 독살에 고기가 많이 들을 때 잡아다 먹어 서로 돋는 것이다.

(4) 독살의 소유

독살은 모두 개인 소유였고, 토지처럼 매매되었다. 관당리 유수물에 있던 윗독살의 경우에는 1960년대 화폐개혁 직후에 매매되었는데 8만원이었다고 하고, 당시 8만원은 밭 500평정도의 값이었다고 한다.

2) 어업

(1) 1910년경의 어업

① 무창포 항구의 위상

무창포에는 조선시대 해창이 있어 조운선은 출입하였지만, 어항으로서의 기능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경 일제에 의해 발간된 한국수산지의 남포군 기록에 의하면 연안(沿岸) 마을로 석치리(石峙里), 방축동(方築洞), 광암리(廣岩里), 오수(午水), 독산(獨山, 獨洞), 관동(冠洞), 실산리(實山里), 송촌(松村), 원장포(院長浦)²¹⁾, 소황리(小皇里), 무창리(武昌里), 용두(龍頭), 방목리(方墨里), 양아교(梁牙橋), 평촌(平村), 제석동(帝錫洞), 조척리(造尺里), 삼현리(三賢里), 신대(新岱) 등 19개 마을을 소개하고, 언제든지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산리, 소황리, 용두리, 조척리 등 4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즉 연안의 19개 마을에서 어업을 하고 있지만, 포구가 있어 언제나 어업을 하는 마을로 4개 마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창포는 연안마을에는 속하지만 언제나 어업 할 수 있는 4개 마을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주변에 있는 독산리, 소황리, 용두리보다 어업 중심기능을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21) 응천 완장내

② 주요 어획물

한국수산지에 1910년경 남포군의 주요 어획물로 조기, 갈치, 도미, 가오리, 농어, 숭어, 상어, 대구, 뱕어, 삼치, 가다랑어 패류를 소개하고 어획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조기 : 조기는 남포군의 중요한 어류의 하나로 도미가 끝날 시기인 5월초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의 약 9개 월 간은 권자망(卷刺網)이나 저자망(底刺網)을 사용하여 어획한다. 다른 시기에는 어전(漁箭)으로 잡는다. 연중 근해에서 서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 갈치 : 갈치는 조기에 다음 가는 중요 어종으로 어전(漁箭)이나 외줄낚시로 잡는다. 잡는 시기는 2월부터 6,7월까지다.
- 도미 : 도미는 3월 하순부터 5월까지 연승(延繩) 또는 자망(刺網)으로 잡으며, 또 어전으로 다른 고기와 같이 혼획(混獲)한다.
- 가오리 : 가오리는 백가오리와 적가오리의 2종이 가장 많고, 연중 근해에서 서식한다. 겨울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어청도(於青島)에서 3월부터 이후의 여름까지는 연안의 하구(河口) 또는 충남이나 경기도의 연안, 또는 인천 방면의 연안에서 연승(延繩)이나 공조(空釣)를 사용하여 어획한다. 종종 자망(刺網), 어전(漁箭), 주목망(柱木網)을 사용하기도 한다.
- 농어 : 농어는 늦봄부터 여름까지 가장 많이 잡는다. 가을에도 나타난다. 앞 바다에서 안면도 근해까지 연승(延繩) 또는 살[箭]을 이용하여 잡는다.
- 숭어 : 숭어는 대개 겨울철에 자망(刺網)이나 권망(卷網) 또는 지예망(地曳網)을 사용하여 잡는다. 또 봄철에 어전(漁箭)으로 잡을 수 있는 어장은 연안의 하구(河口)이거나 만(灣)의 내륙이다.
- 상어 : 상어는 주로 작은 것을 잡는다. 함복상어[猫鯀], 뿔 달린 상어 등 여러 종이 있다. 조기 철에 여러 잡어들과 같이 잡힌다.
- 대구 : 대구는 1월부터 3월까지 연안에 들어오는데, 특히 어청도 부근에 많다. 상어처럼 연승(延繩)을 사용하여 잡는다.
- 뱕어 : 뱕어는 4월 상순부터 하순의 약 3주간을 석방렴(石防簾)²²⁾또는 어전(漁箭)으로 잡는다. 어장은 연안의 만(灣) 안쪽이거나 하구(河口)이다.
- 패류 : 패류는 바지락[淺蜊]이 주류이고, 기타 대합[蛤], 정(蠶, 馬刀貝 맛), 죽정(竹蠶, 대맛) 등이 있고, 연중 채취하며, 채취 시기는 바지락이 5월 하순부터 7월까지이고, 정(蠶)이나 죽정은 10-11월 사이에 잡는다. 죽정은 몸이 매우 큰 것도 있다.

22) 독살

(2) 1920~1960년대의 어업

① 어선

당시의 어선은 대부분 ‘풍선(風船)’이라고 불리는 둑단배였다. 둑단배도 어획방법에 따라 일반 풍선과 우다세(바람돛망)배로 구분되었다. 바람돛망 배는 일반 풍선보다 훨씬 커졌고 길었다고 한다. 둑도 중앙에 2개가 있고 몇 개의 보조 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풍선은 작은 배였는데, 필자의 집에 일제강점기 말에 일반풍선 배의 계약서가 전하여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日型船賣渡契約書

- 一. 日型船一隻 長二十五尺 廣六尺五寸
- 二. 櫓三丁, 帆二本, 鐨一個 木眞(돛대) 貳個
- 三. 手操網一丁 繩藁三百五十丈

右代金七百拾円也

右物件이 甲의 所有로서 乙의게 右金을 領收하고 永爲賣渡인바 為先保證金四百拾円
也을 當日領收하고 殘金三百円也是 右船隻引受當日領收할樣으로 契約을 作成하되 若
甲乙間他로부터 故障이 生하는 場合때는 甲는 保金賠償하고 乙은 保證金無效할 樣으
로 此契約成立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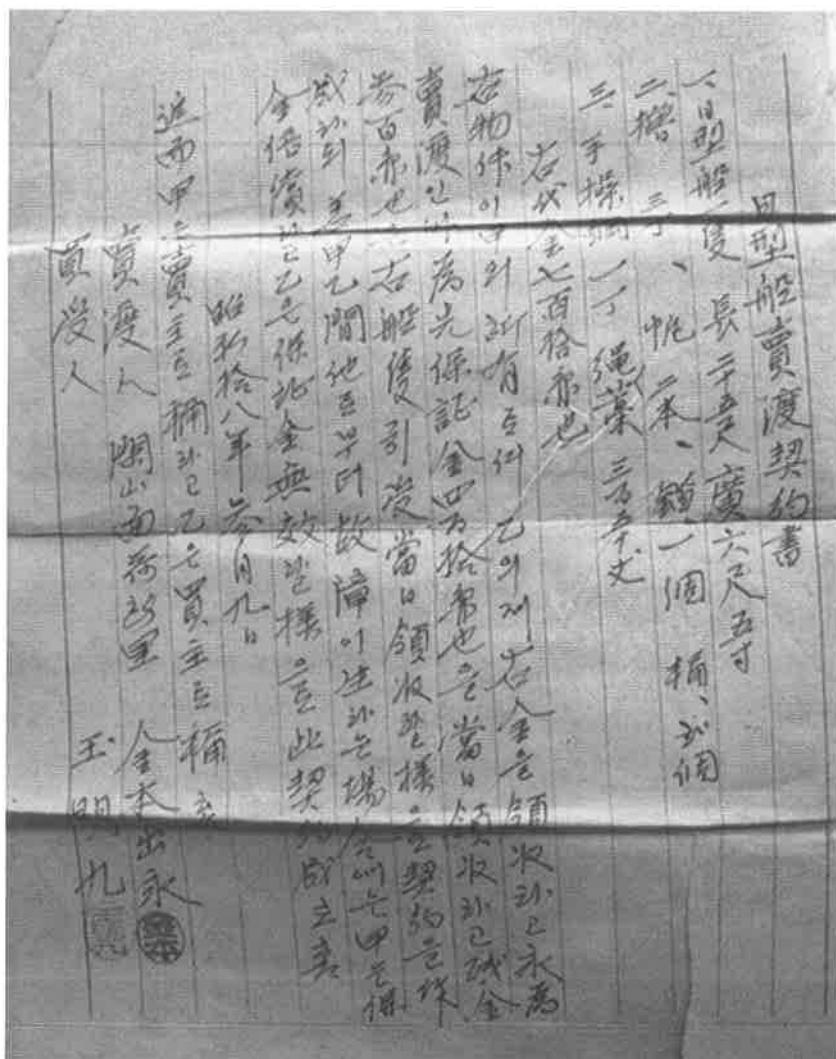
昭和拾八年(1943)叄月九日

追而甲은 賣主로 稱하고 乙은 買主로 稱함
賣渡人 閑山面 荷所里 金本出永
買受人 玉明九

위 계약서에 표시된 것 같이 풍선배를 日型船이라고 불렸고²³⁾ 길이가 25자로 757.5cm
폭은 6.5자로 196.95cm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딸린 비품은 노 3개, 둑2개, 닻1개, 둑대 2개, 그물1개, 낚시줄 350장이 전부이다.

23) 바닥이 평평한 한국식 배가 아니고, 바닥이 뾰족한 일본식 배이기 때문에 일형선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1943년 무창포의 배 계약서

② 경상도 어민의 이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무창포의 어민들은 주낙으로 조기를 잡거나 소라껍질을 이용하여 주꾸미를 잡는 정도였고 경상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진적인 어업기술은 없었던 것 같다. 무창포에 선진적인 어업기술을 도입한 사람들은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조기가 회유하면서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나세(打瀨網, 바람돛망) 어업을 위해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무창포에 정착하여 어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무창포에 정착한 사람은 우다세나 삼각망 등 선진적인 기술로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무창포에 들어온 경상도 사람은 1950년대까지 10여 호에 이르렀다.

경상도 통영에서 무창포까지 오는데 바람이 좋으면 4~5일, 그렇지 않으면 1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 경상도 사람들의 손바닥은 노를 하도 많이 저어서 발바닥처럼 못이 박혀있었다고 전한다.

도움 말씀을 주신 이봉순님의 아버지는 이상규씨로 경상도 삼천포 사람이다. 이봉순님 9살 때인 1943년에 무창포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경상도 삼산도 사람으로 경상도 이주민끼리 혼인한 경우이다.

현 어촌계장인 이종길님의 할아버지도 약 90년 전에 경상남도 남해도 창선에서 형제분이 함께 무창포로 이주했다고 한다. 아마도 1940년쯤에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박대잡이=우다세(打瀨網) 어업

무창포항의 가장 대표적인 어업은 우다세(打瀨網) 어업이었다. 우다세의 우리말은 ‘바람돛망’이고 ‘끌망배’라고도 불렸다. 바람을 받아 항해는 물론 그물을 펼치고 끌어 고기를 어획하던 어선이었다.

선수와 선미에서 긴도리(장대같은 모양)을 뻗쳐 물 속 그물 아가리를 넓히고 긴 돛을 이용하여 바람을 직으로 받아 바람의 힘으로 밀리는 것을 이용해 연안의 고기를 어획한다. 이 어선은 일반 어선에 비해 길이가 40자쯤 되었고, 큰 돛이 2개 있는데 바람이 적으면 앞뒤로 작은 돛을 많이 달았다고 한다.

긴 배의 앞뒤로 30자쯤 되는 나무를 뻗치고, 이 나무에 주동이가 40~50발, 길이가 100발 쯤 되는 그물을 펼쳐 바람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물을 끌 때, 배는 옆으로 움직이게 된다. 순전히 바람과 조류만 이용하여 그물로 바닥을 끄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이 없으면 조업이 불가능하였고, 바람이 불어야 조업할 수 있었다. 약한 바람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것이 기술이었다고 한다.

우다세어업으로 잡는 고기는 바닥에 붙어 서식하는 박대, 서대, 양태, 광어, 도다리, 가자미, 아구 등이었는데 조업 장소는 주로 용섬 근처였다고 한다.

우다세어업으로 잡은 고기 중에서 가장 많이 잡고 유명했던 것이 박대였다. 당시 박대는 하루에 수백 상자씩 어업조합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상인들은 박대를 사다가 바로 소금을 뿌리고 하룻밤을 지낸 후, 껍질을 벗겨 말렸다.

멍석이나 발 등에 말렸는데 1일이면 먹기 좋게 말랐고, 이것을 짚으로 10마리 혹은 20마리씩 엮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박대가 워낙 많고 말리기도 쉬워 많은 주민들이 박대장사를 하였다.

무창포 주민 뿐만 아니라 구룡리 곶뿌래 주민까지 박대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때 박대껍질은 말려 모았다가 어묵을 만들어 먹었다.

당시 박대와 함께 잡히는 아구는 아주 흔하고, 먹는 사람도 적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④ 조기잡이

무창포항의 어민들은 조기를 주낙으로 잡았다고 한다. 봄이 되어 처음 조기를 잡는 곳은 전라도 칠산 앞바다였다고 한다. 칠산에서 조기를 잡은 후, 연도 연안에서 잡다가 조기가 회유하면 연평도 근해까지 따라가 잡았다고 한다.

⑤ 갈치잡이

갈치도 풍선배를 이용하여 낚시로 잡았다. 5월 단오 무렵에 잡는데 요즘의 삼치낚시처럼 긴 대막대를 옆으로 펼치고, 대막대의 중간 중간에 낚시를 4~5개 매달아 잡는 방식이다. 가짜 낚시를 달았는데 갈치가 물면 대나무가 휘어져서 알 수 있다고 한다. 계속 움직이면서 잡기 때문에 '쫓침바리'라고 하였다.

⑥ 도다리 · 꽃게 잡이

도다리와 꽃게는 자망으로 잡았다. 도다리는 이른 봄에 잡았다. 가장 일찍 잡는 고기가 도다리이다.

자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항에서 실을 사다가 갈물을 들여 만들었다고 한다. 갈물 들이는 것은 실타래와 소나무껍질을 함께 솔에 넣고 끓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실이 누런색으로 변하고 더 질겨졌다고 한다. 끓인 실은 장별로 가져가 풀어서 '바늘대'에 감아놓았다.

이후 '뱃동사'라고 불리는 배를 함께 탈 선원들이 와서 그물을 떴다. 그물의 코는 상당히 컸고, 폭은 한 길²⁴⁾ 이상이었으며, 길이는 무척 길었다. 그물을 만들면 아래에는 납을 달고 위에는 '톱'이라고 불리는 부의를 달았다.

도다리나 꽃게를 잡는 자망은 조금 때 놓았다. 사리 때 그물을 놓으면 조류에 떠내려가 서로 엉키기 때문이다. 오늘 그물을 놓으면 내일 나가서 건져왔다고 한다.

⑦ 삼각망 어업

무창포에는 예부터 안강망 어선이 없었고, 중선배도 거의 없었다. 중선배는 완장포항에 정박하였다. 그러나 삼각망어업은 경상도에서 이주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무창포 주민들이 외면하다가 고기를 잘 잡는 것을 보고, 몇 집이 따라하였다고 한다. 현재도 무창포에서는 안강망은 하지 않고 삼각망은 하고 있다.

24) 성인의 키만한 길이.

⑧ 어획물의 판매

당시 어획물은 모두 어업조합에서 경매에 의해 판매되었고, 선주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객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무창포 어업을 좌지우지했는데 무창포 사람 김교인씨, 남포 옥서리 사람 김재일씨가 유명하였다. 김재일씨는 돈을 벌어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김영선씨와 경쟁하기도 하였고, 아들이 장항에서 양조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소규모의 객주들도 많았다.

경매에 의해 팔려진 어획물은 얼음을 채워 생물로 판매되거나, 박대처럼 조금에 절이고 말려 판매되기도 하고, 젓갈로 담가 판매되었다. 모두 상인들에 의해 판매되었는데 이때 장항선 철도를 활용하였다. 서해안의 포구 중에서 철도와 가장 가까운 포구가 무창포이다. 무창포항이 일제강점기에 발전한 것도 철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창포 현장에서 유통된 어획물도 많았다. 봄철이면 무창포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무창포로 몰려와 생선을 구입하였다. 미산, 주산 등 수십 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무창포로 걸어와 생선을 구입해서 가져갔다.

그리고 생선과 농산물을 바꾸기 위해 무창포로 가는 농민들의 모습도 진풍경이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배들은 생필품을 모두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의 농민들과 생선을 물물교환으로 바꾸었다.

이때 농민들이 가져간 것은 아주 잘게 쪼갠 장작, 간장·된장·고추장, 풋마늘·파 등 채소, 반찬, 쌀 등이었다. 농민들이 배에서 가져오는 것은 주로 잡고기로 경매에 넘겨도 높은 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도 많은 양을 주어, 농민들은 배에 필요한 물건을 지게에 지고 가서, 생선을 지게에 담아 지고 왔다. 아주 풍성하였다. 필자도 어렸을 때 많이 보아온 풍경이다.

⑨ 유통가의 형성

무창포 포구는 우다세어업 등으로 크게 발전하고, 봄이면 경상도에서도 많은 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히 무창포에 유통가가 형성되었다. 어업조합 북쪽 사구에 20여 가구의 술집이 생긴 것이다. 당시 술집에는 ‘기생’이라고 불린 많은 여종업원들이 있었고, 술과 도박으로 재물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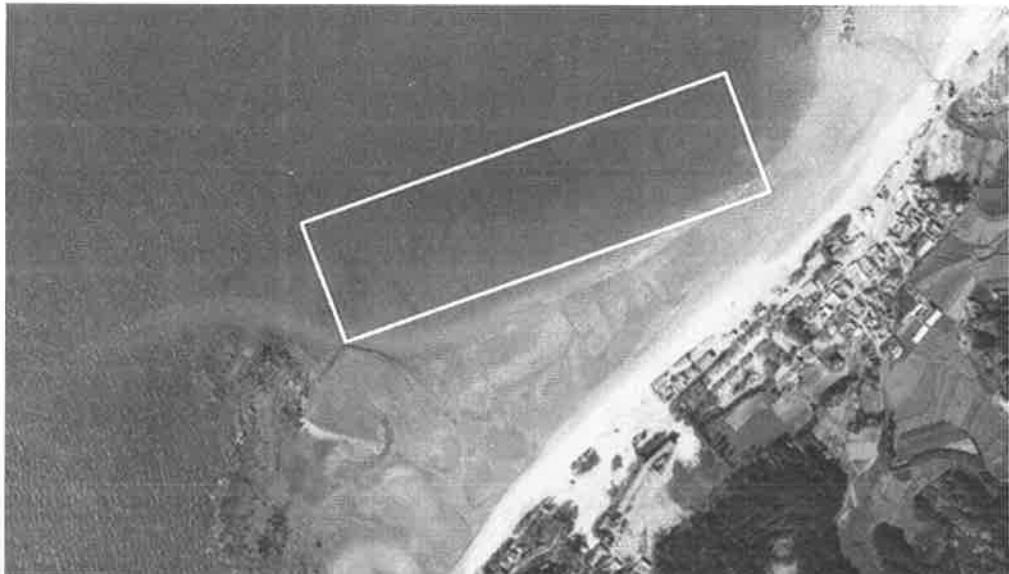
무창포의 배는 오후 2~3시에 들어왔고, 이후에 술집이 호황이었다고 한다. 당시 술집에서는 외상으로 노출을 먹었고 어기(漁期)가 끝날 때까지 갚지 못하면 배를 떨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술의 소비가 많아지자 무창포에 양조장까지 만들어졌다.

3) 양식업

(1) 김 양식

무창포에 양식업이 시작된 것은 김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 1960년대까지는 돌에 둘 아나는 김을 뜯어 말려 판매하다가, 1970년대 들어와 해수욕장 앞에 김발을 매기 시작하였다. 보령지방의 섬이나, 주교면 은포리 지역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였다.



무창포의 김양식장(1985)

(2) 현재의 마을어업 및 양식장

현재 응천읍 관당리 무창포 어촌계에 마을어업 및 양식장으로 허가된 곳은 모두 11곳으로 석대섬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보령지역에서 가장 조밀하게 허가되어 있다. 현황은 다음 장 (무창포어촌계)과 같다.

4) 무창포 어촌계

(1) 무창포어업조합의 설립과 폐지

무창포어업조합에 서기로 근무하였던 정성기씨의 증언에 의하면 무창포 어촌계는 1928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충남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였던 것 같다. 녹도에 거주하는 이규인(1925년생)씨의 증언에 의하면, 충남에서 가장 먼저 어업조합이 생긴 곳은 무창포이고 다음에 안흥, 다음 3번째로 녹도에 생겼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무창포어업조합은

상당히 일찍 생겼음에 틀림없다. 무창포항이 발전한 것은 철도와도 관계가 깊다. 경남선(장항선) 연안에서 철길과 가장 가까운 포구(7km)가 무창포항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은 옛 포구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건물에 있었는지 알 수 없고, 1970년대까지 있었던 건물은 1950년대에 남포면 월전리에 있던 월전국민학교의 건물을 뜯어 옮겨 지었다고 한다.²⁵⁾

무창포어업조합은 상당히 큰 조합이었는데 1962년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생겨 시군에 조합이 1개만 만들어지는 바람에 없어지고 보령수협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대천항에 유류창고·냉동공장 등이 생겼고, 항구조건 또한 무창포항은 물이 상당히 들어와야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반면에 대천항은 간조 때에도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어선들은 모두 대천항으로 이동하였다. 무창포는 점차 쇠퇴하고 대천항은 크게 발전한 것이다.

이후 무창포어업조합이 없어지고 마을 어촌계가 생겨났다.



옛 어업조합 건물(2019.3.8.)

(2) 어촌계

무창포 어촌계는 1971년 3월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어촌계의 사무실은 응천읍 관당리 888-57번지에 두고, 관당 1·2·3리, 독산 1·2리, 응천읍 일원, 남포면 일원의 어업가구 297호 92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계원은 203명이다.

무창포어촌계의 조직은 어촌계장 1명(보령수협 이사), 보령수협 대의원 2명과 무창포어촌계의 대의원 14명(관당 1·2리 6명, 관당 3리 5명, 응천읍 일원 3명), 감사 2명, 사무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창포항에 소속된 어선은 총 142척이고 이중 낚시어선은 64척이다.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76명이다.²⁶⁾

증매인은 11명으로 광운수산, 충남수산, 송도수산, 경동수산, 진우수산, 경은수산, 민형수산, 서화수산, 해운수산, 동삼수산 등이다.

양식장과 마을어업장은 139.5㏊이다. 무창포어촌계 관할의 어업허가는 다음과 같다.



무창포어촌계 위판장(2019.3.8.)

25) 1948년생인 김기섭씨가 자재를 지게에 저 나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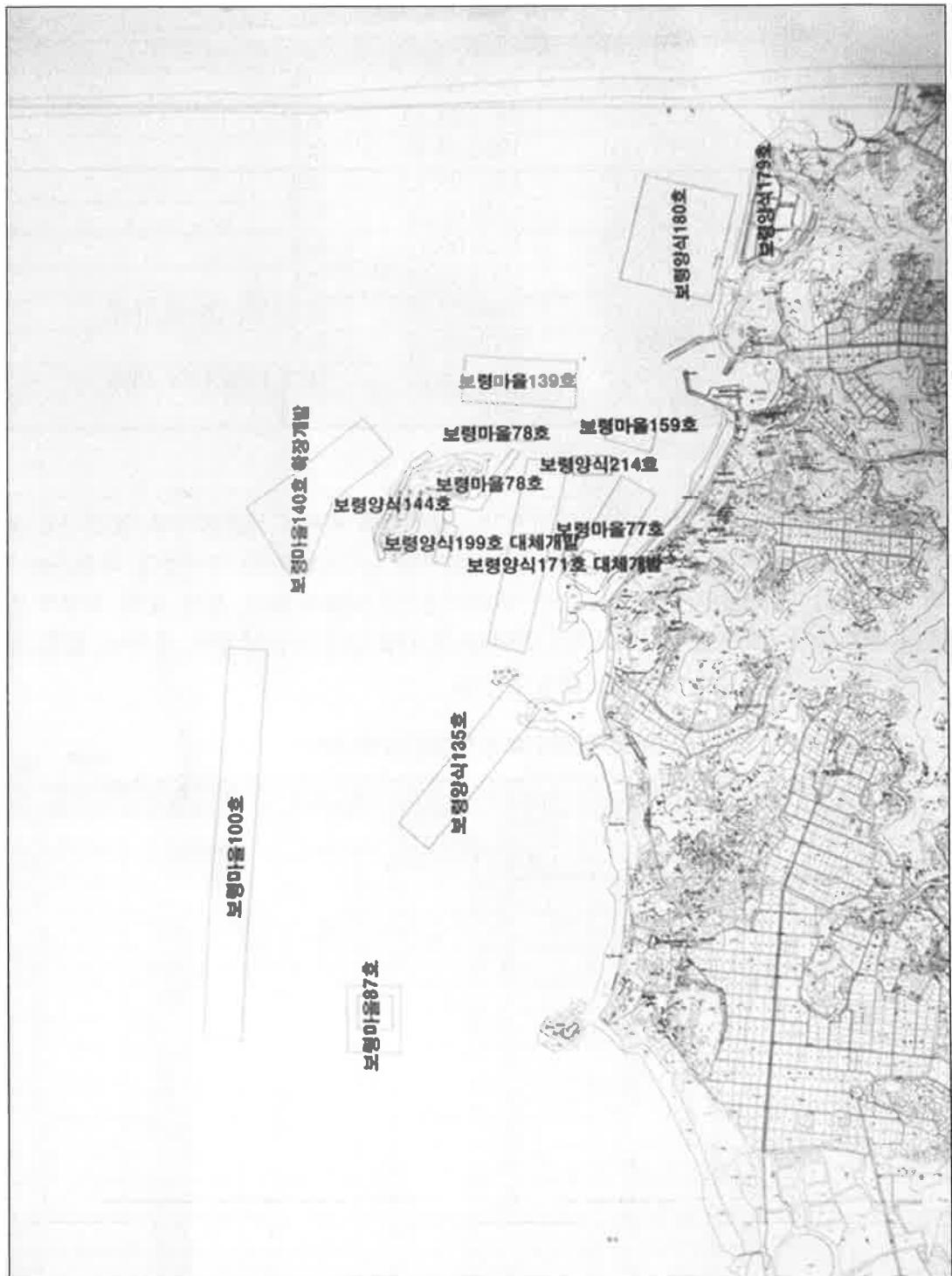
26) 보령해양경찰서 통계임

무창포 어촌계 어업허가 내역(자료: 무창포어촌계 사무실 상황판)

구 분	업 종	건 수	면 적(ha)	비 고
허가	연안자망	82		
	연안통발	2		
	연안복합	91		
	새우방	12		
	특정어구	10		
	정치성구획(자망)	10	30	
면허	정치어업	1	10	
	패류양식	4	47	
	어류 등 양식	2	10.5	
	마을어업	6	84	
신고	맨손어업	585	585	

무창포 어촌계의 어업면허 현황(자료: 보령시)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기간		품종	면적 ha	위치
마을제077호	마을어업		2014.04.08	2024.04.07	바지락	12	관당리
마을제078호	마을어업		2014.04.08	2024.04.07	전복해삼	6	석대도
마을제087호	마을어업		2015.09.26	2025.09.25	전복해삼	6	독산리
마을제100호	마을어업		2016.11.22	2026.11.21	새조개	40	독산리
마을제139호	마을어업		2016.11.22	2026.11.21	전복해삼	15	석대도
마을제140호	마을어업		2011.11.30	2021.11.29	전복해삼	10	석대로
마을제159호	마을어업		2015.09.21	2025.09.20	굴	3	관당리
양식제135호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2011.07.03	2021.07.02	바지락	18	독산리
양식제171호	복합양식	투석식· 살포식	2014.03.30	2024.03.29	굴바지락	20	관당리
양식제180호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2010.06.11	2020.06.10	바지락	30	관당리
양식제199호	어류등	가두리식	2013.12.26	2021.11.18	어류	1.5	석대도
양식제214호	패류양식	수하식 수평망식	2014.12.02	2024.12.01	굴	2	석대도
정치제002호	정치망	각망	2014.12.23	2022.01.14	농어민어	10	관당리



무창포어촌계의 양식장과 마을어장 현황(자료: 무창포어촌계 상황판)

역대 어촌계장 현황

	성 명	임기개시일	임기만료일	비 고
1	김지덕	1974.02.08	1975.08.24	1대
2	라도영	1977.08.25	1977.08.30	2대
3	김진용	1977.09.01	1980.09.16	3대
4	박종갑	1980.09.17	1983.08.30	4대
5	김진용	1983.09.12	1985.01.26	5대
6	임흥빈	1985.01.28	1989.03.22	6대
7	김서경	1989.03.22	1993.09.12	7대
8	김진의	1993.09.13	1996.03.05	8대(1996.03.05.사임)
9	박종갑	1996.08.17	2000.09.19	9대
10	김지호	2000.09.20	2017.06.12	10대, 11대, 12대, 13대.
11	이종길	2017.07.10	현재	14대

(3) 어획량

무창포어촌계의 어획량은 인근의 대천항이나 홍원항에 비하여 적은편이다. 2017년의 통계에 의하면 총어획고는 124,603.5kg, 총위판금액은 1,728,663,620원이었다. 무창포항에 가장 많이 잡아오는 고기는 광어로 연간 50,634kg이고 다음이 대하, 꽃게, 도미, 주꾸미 순이다. 위판금액으로는 대하가 634,661,49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광어, 쭈꾸미, 꽃게, 도미 순이다. 계절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이 잡는다.

무창포항의 어종별월별집계(2017)

단위 : kg

월	1	2	3	4	5	6	7
주꾸미	509	967	4,709	2,901	993	15	0
도다리		752	1,877	175	331	393	0
꽃게	0	0	0	8	289	22	0
광어	0	0	0	1,389	32,223	17,006	0
도미	0	0	0	34	11,569	2,790	0
오징어	0	0	0	3	338	565	0
갑오징어	0	0	0	0	0	0	0
우럭	0	0	0	8	112	20	0
농어	0	0	0	3	225	15	0
소라	0	0	0	0	78	269	0
키조개	0	0	0	0	2		0
대하	0	0	0	0	0	0	0
전어	0	0	0	0	0	0	0
문어	0	0	0	0	0	0	0
낙지	0	0	0	0	0	0	0
계	509	1,719	6,586	4,521	46,160	21,095	0

월	8	9	10	11	12	계
주 꾸 미				308.5	2,967	13,369.5
도 다 리					0	3,528
꽃 게	10,908	4,362	718.5	475	0	16,782.5
광 어	0	16	0	0	0	50,634
도 미	0	0	0	0	0	14,393
오 징 어	0	0	273	0	0	1,179
갑오징어	0	0	1,244	61	0	1,305
우 력	0	0	0	0	0	140
농 어	0	3	0	0	0	246
소 라	79	38	36	43	0	543
키 조 개	0	0	0	0	0	2
대 하	1,764	15,656.5	4,813	65	0	22,298.5
전 어	0	98	73	0	0	171
문 어	0	0	0	9	0	9
낙 지	0	0	0	0	3	3
계	12,751	20,173.5	7,157.5	961.5	2,970	124,603.5

어종별 월별 위판금액(천원이하 절삭)

단위 : 천원

월	1	2	3	4	5	6	7
주 꾸 미	7,235	16,604	133,307	76,296	16,636	165	0
도 다 리	0	5,014	14,821	2,430	2,487	5,211	0
꽃 게	0	0	0	264	9,592	678	0
광 어	0	0	0	18,592	281,617	179,959	0
도 미	0	0	0	490	80,553	22,180	0
오 징 어	0	0	0	30	3,302	7,317	0
갑오징어	0	0	0	0	0	0	0
우 력	0	0	0	75	740	128	0
농 어	0	0	0	30	1,979	90	0
소 라	0	0	0	0	566	1,750	0
키 조 개	0	0	0	0	4	0	0
대 하	0	0	0	0	0	0	0
전 어	0	0	0	0	0	0	0
문 어	0	0	0	0	0	0	0
낙 지	0	0	0	0	0	0	0
계	7,235	21,618	148,129	98,209	397,479	217,479	0

월	8	9	10	11	12	계
주 꾸 미	0	0	0	3,110	33,642	286,998
도 다 리	0	0	0	0	0	29,964
꽃 게	66,565	63,225,	10,987	11,435	0	162,747
광 어	0	236	0	0	0	480,405
도 미	0	0	0	0	0	103,224
오 징 어	0	0	1,638		0	12,287
갑오징어	0	0	9,504	518	0	10,023
우 력	0	36	0	0	0	979
농 어	0	0	0	0	0	2,099
소 라	813	440	348	430	0	4,347
키 조 개	0	0		0	0	4
대 하	28,191	403,439	199,681	3,349	0	634,661
전 어	0	392	438	0	0	830
문 어	0	0		72	0	72
낙 지	0	0		0	18	18
계	95,569	467,768	222,598	18,915	33,660	1,728,663

11. 석 공 업

보령지역에는 18C초에 웅천읍 평리에서 오석이 개발되어 석공업이 시작되었으며, 19C초에 남포면 월전리에서 미정질 화강암(애석)이 개발되어 애석을 가공하는 석공장이 생겼다.

관당리에도 미정질화강암인 애석이 산출되어 애석을 가공하기 위한 석공장이 있었다. 유수물의 북쪽, 장군배에서는 가장 질 좋은 애석이 산출되어 1980년대까지 석공장이 있었고, 석대에서 생산되는 애석을 가공하는 석공장이 1970년대까지 해수욕장에 있었다.

이들 공장에서는 애석을 이용하여, 비석의 좌대·갓석, 상석, 망주석 등을 만들어 대천리·대창리의 큰 공장에 팔았다.



장군배의 석공장 (1970년대, 김기섭님 사진)

12. 개발사업

1) 신작로의 개통

무창포의 개발은 21호 국도와 연결되는 606호 지방도의 개발로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와 함께 1915년에 그린 1:50000 지형도에 의하면, 당시 21호 국도는 2등 도로였고, 여기에 연결되어 무창포에 이르는 도로는 연로(聯路)와 소로(小路)였다. 모두 자동차는 다닐 수 없는 도로이지만, 연로가 소로보다 2단계 좋은 도로였다.



21호 국도와 무창포를 연결하는 도로(1915년 측도)

무창포를 연결하는 연로는 구룡리 화망마을 앞까지는 현재와 비슷한 노선이었지만, 성황당고개에서 진등 마을의 남쪽으로 통하였고, 진등 마을에서부터는 양알 마을 앞으로 나 있었다. 이곳에 있던 큰 천정천의 둑을 이용한 것이다. 벼락재를 통과하는 길은 소로로서 작은 길이었다. 천정천의 둑이나 급경사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통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창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21호 국도와 무창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량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21호 국도와 무창포항을 잇는 도로를 개량한 사람은 당시 웅천면장 (1923.7.31.~1931.8.3.)이었던 황시현(1889~1946)이다. 황시현의 무창포도로 개척에 대한 열의는 다음 신문기사로 알 수 있다.

○ 1923년 12월 3일(동아일보) 기사

道路 문제로 도지사에게 진정, 황면장에게 대한 불평으로 순회다니던 김지사에게 진정
보령군 웅천면에서는 도로 문제로 여러 달 동안을 떠드려오다가 지난 27일 오후 3시에 충
남도지사 김관현씨가 지방 순시차로 보령군 웅천 시장 부근을 지날 때에 면민 대표와 지주
들이 모여 자동차를 막고 진정하였는데, 내용인즉 그면 면장 黃始顯은 웅천시장에서 관당

리까지 통하는 등외도로 3240간을 이등도로와 같이 광 두간씩 산을 파고, 들을 메워 일부 수만 명을 희생하게 하는 바, 토지 승낙을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과동하라고²⁷⁾ 솔나무 가지를 허가 외에 더 베인 것을 모조리 압수하고, 인민에게는 도청에서 신작로 내라는 허가를 받았다고 평계하고, 군수에게는 지주들이 승낙하였다고 속인 일이 탄로되어 인민들이 모두 분노하고 지주들이 동맹하여 양해를 얻었다더라.(보령)

위 신문기사를 보면 황시현 면장의 의지를 알 수 있다. 1923년 7월 31일자로 부임한 면장이 불과 몇 달 만에 도로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군수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반발하는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였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 솔가지를 벤 것까지 트집 잡아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문기사로 미루어보아 무창포로 통하는 도로는 1924년쯤 개량되어 차량이 통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3년은 경남선(장항선) 철도가 광천까지 연장된 해로, 12월 1일 광천까지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변에서 철도가 부설되고, 신작로가 만들어지던 때이다.

무창포에 노선버스가 처음 들어간 것은 1965년이다.

2) 무창포항

(1) 방파제의 건설

무창포에 언제 방파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 무창포어업조합에 근무했던 정성기님의 증언에 의하면 어업조합이 1928년에 생겼다고 하므로, 1924년 경 무창포로 연결되는 도로가 뚫린 후, 1928년 이전에 방파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방파제가 만들어지고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조합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창포항의 방파제는 북쪽부터 만들어졌다. 1948년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무창포항의 북쪽 방파제만 설치되어 있다.

이후 남쪽 방파제가 만들어지고, 외항의 남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어선을 위한 시설들이 외항으로 옮겨지고, 외항의 북방파제가 만들어져 항구가 완성되게 된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방파제를 축조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역에서 배출한 정치인들의 힘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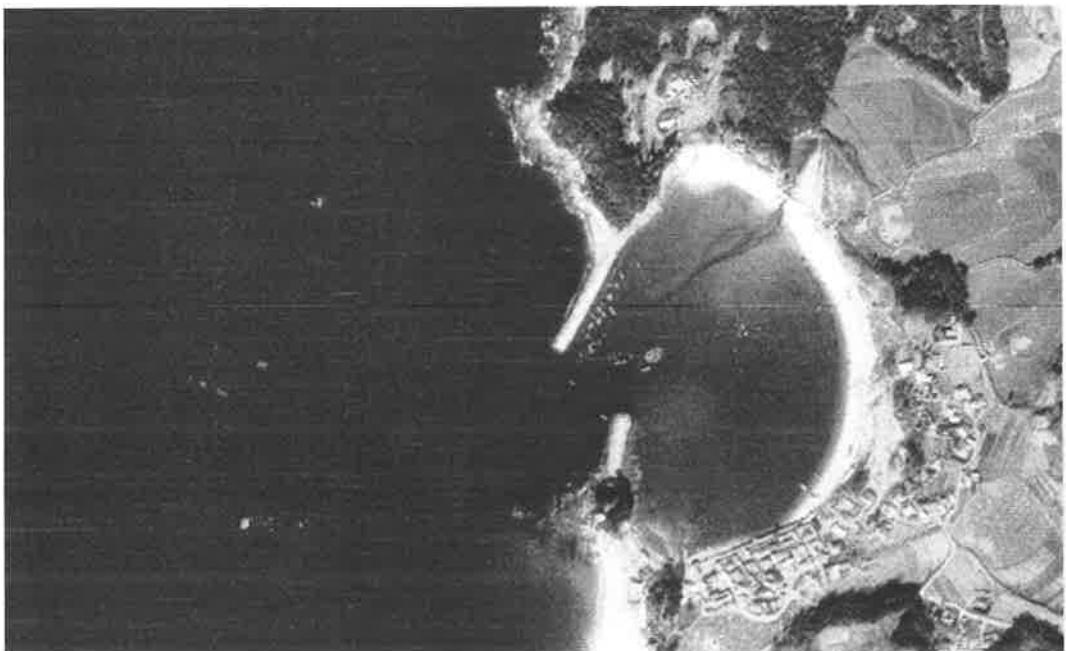
27) 과동(過冬) 즉, 겨울을 나려고.



무창포항(1948)



무창포항(1966년)



무창포항(1984년)



무창포항(1992)



무창포항(2010)

(2) 무창포항의 국가어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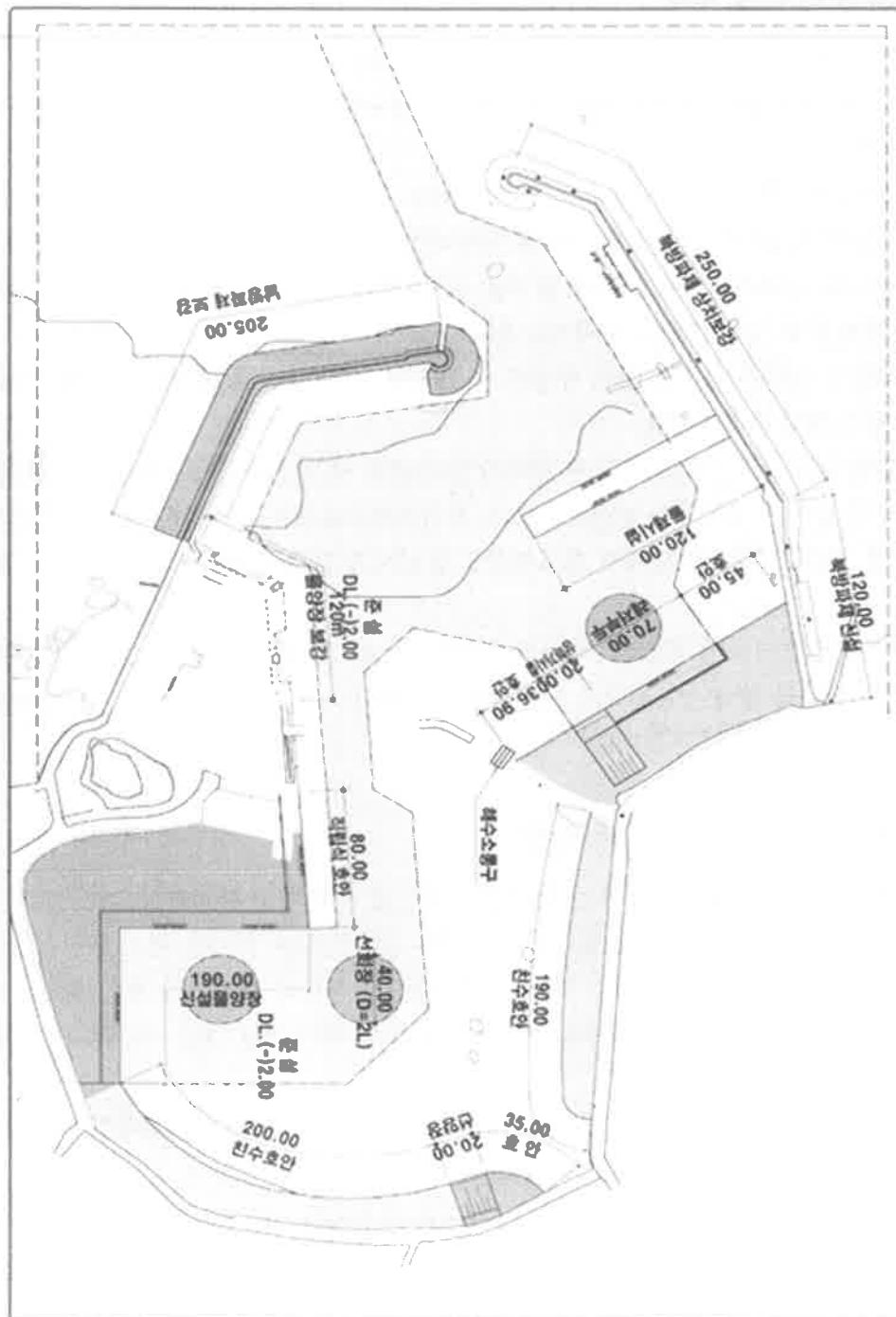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이다. 충남에는 남당항, 모항항, 무창포항, 삼길포항, 안흥항, 오천항, 외연도항, 장고항, 홍원항 등 9개의 국가어항이 있다.

무창포항은 2014년 4년 국가어항 신규지정 신청을 했고, 해수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7년 4월 3일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했다.

무창포항의 지정 면적은 육역 12필지, 1만8616m², 수역 24만9394m² 등 모두 26만8010m²이고, 향후 해수부가 약 316억 원을 투자해 484m 호안 정비, 13만4700m³ 항로 준설 등 어항 기능보강 사업을 벌인다.

무창포항은 국가어항 지정에 따라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서해안권의 수산업 거점으로 발전될 것이다.²⁸⁾

28) 보령신문 2017년 4월 11일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무창포항의 시설계획(무창포항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서, 2018)

3) 무창포해수욕장

(1) 장항선 철도의 개통

무창포 해수욕장의 개발은 장항선 철도의 개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제의 사설 철도 장려 정책에 따라 1920년 경남철도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장항선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남철도의 안성선 공사 복수 추진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광천~대천간은 1929년 12월에 완공되어 대천역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31년 8월 1일 남포~판교간 영업이 개시되어, 웅천역에서도 1931년 8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32년 11월 1일에는 판교~장항간 영업이 개시되었다.

사철(私鐵)로 건설된 장항선(당시 충남선)은 1937년 다시 국철로 매입되고 1956년에는 장항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철도건설에 따라 웅천면 지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옛 면소재지였던 대천리가 쇠퇴하고, 웅천역이 들어선 대창리가 발전하였으며, 무창포해수욕장도 발전하게 되었다. 무창포 해수욕장은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철도여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개발하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관당리 795번지(잡)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철도와 함께 철도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이 땅이 주차장으로 편입되면서 한국철도공사 수련원이 생긴 것이다.

(2) 무창포해수욕장의 개장과 발전

무창포 해수욕장은 전해지는 말로는 1928년 일본인에 의해 처음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개장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록은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당시 웅천에는 일본인 유지 정상청(井上青:이노우에 기요시)가 있었는데, 웅천의 총독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유지였다. 아마도 정상청(井上青)이 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기록에 의한 최초 개장은 1931년 7월이었다. 따라서 무창포 해수욕장은 비공식적으로는 1928년,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1931년에 개장되었다.

어찌되었든 대천해수욕장보다 먼저 개장된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도 장항선의 웅천 연결이 결성적 역할을 하였다. 일제상설기 무창포해수욕장의 개장과 발전을 알 수 있는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일제시기 무창포 해수욕장 모습(보령시홈페이지 자료)

○ 1932. 7. 16 동아일보

武昌海水浴場 十五일에 개시

【보녕】충남 보녕군 웅천면 무창포해수욕장은 작년부터 설치한바 내객이 많았음으로 금년에는 도로를 2등도로와 같이 수천원의 경비를 지출하여 대수선에 착수하ようと, 일간 준공하고 오는 15일부터 해수욕에 착수하기로 되었는데, 차비는 반할인 될 것이오. 웅천역에서 해수욕장까지는 자동차로 운전한다고 한다.

○ 1932. 7. 22 동아일보

武昌浦海水浴場 旅客列車賃割引

경남철도회사에서는 무창포해수욕장에 가는 객을 위하여 천안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천안 대천간 왕복2등 4원 70전, 3등 2원 98전, (소아반액), 천안 웅천간 왕복 2등 5원 44전3등 3원 44전(소아반액)

○ 1932. 8. 6 동아일보

武昌浦 海水浴場 運動場도 施設,

【保寧】충남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은 개장 아래 매일 욕객이 200-300명이고, 일요일에는 천명을 돌파하게 됨으로 웅천유지 일동의 발기로 백여원의 기부를 모집하여 해수욕장 옆의 동대(東垈) 석대(石臺) 두 곳의 새 장소 해변에다가 운동장을 시설하고자 방금 준비 중이라 한다.

○ 1932. 8. 18 동아일보

臨時列車運轉, 대천 웅천간에, 武昌浦海水浴場開場으로

【보녕】충남 대천면 군입리와 웅천면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을 한 이래 대성황을 이룬다 함은 본보에 루차 게재한 바이어니와, 매양 일요일에는 기차승객이 혼잡을 이루어 정기차로 만은 운전할 수 없으므로 경남철도에서는 매 일요일마다 임시 열차를 2-3차씩 내어 일반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준다고 한다.

○ 1933. 7. 11 조선중앙일보

보령에 해수욕장 올해에는 번창

【보령】하절이 돌아오면 대천 군입리와 웅천 무창포 2곳에서는 경남 철도회사의 경영과 지방 관민의 후원으로 해수욕장을 설비하는 바, 작년까지도 여관과 식당이 많지 않아서 각처에서 운집하는 해수욕객들에게 불평이 있더니 금년부터는 그곳 관련 유지의 열렬한 노력으로 각처로부터 영업자들이 모여들어 수십 채의 신 가옥을 건축 중이므로, 금년부터는 무엇이고 욕객에게 만족을 주게 되었다 하며 해수욕은 금월 15일부터 시작되겠고, 대천역 웅천역에서는 10여대의 자동차가 충분히 준비된다고 한다.

○ 1933년 7월 19일 동아일보

漸漸 높아가는 炎熱 時熱 얻은 海水浴場 松田海水浴場 十五日 開場式//西湖海水浴場
十六日 開場式(興南)//大川武昌浦兩處海水浴場(天安)

【천안】충남 천안읍에 본사를 둔 경남철도회사 운수과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 중에 있던 京南沿線인 대천과 무창포 두 곳에 일반 피서객을 위하여 다만 하루의 유쾌한 마음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의미로 해수욕장을 설비 중 이든바 이달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55일 동안에 임시 열차의 운전을 할 것은 물론이오. 기차 할인은 본선 3할인 경남선 5할인 내지 6할 5분이고 대천과 무창포 두 곳에 유료 무료의 휴게소를 설비하였는바 경남회사에서 첫 시험 아니만큼 모든 설비가 이상적으로 되어 일반의 많은 쾌감을 이끌고 있다하며 규정은 다음과 같다더라

汽車賃 : 천안 - 대천간 5할인 대인2등 4.70 3등 2.98

천안 - 웅천간 5할인 대인2등 5.44 3등 3.44 小兒는 此에 반액

대천 - 해수욕장간 대인 60전 소아 35전

웅천 - 무창포해수욕장간 대인 35전 소아 20전

대천해수욕장 유료휴게소 무료휴게소 입장료 1인에 20전 소아 반액 30인이상 단체 2할인
무창포에는 다만 무료휴게소만 있음

○ 1933. 7. 28 동아일보

保寧 大川 武昌浦浴場 繁昌

충남 大川 武昌 해수욕장은 지난 15일부터 개장하였는데, 각 처에서 단체와 개인이 매일
답지하여 임시열차로 운전하는데 작년보다 한층 번창한다고.

○ 1933. 8. 12 조선일보

京南線 武昌浦海水浴場 閑散, 熊川驛의 不親切이 其要因, 地方住民 影響 甚大

【홍성】충남 보령군 무창포해수욕장은 벌써 시설한지 오래였는데, 오늘날 그 현상을 본다면 설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완전하다 할 수 없으나 대략은 피서객과 수영객으로 하여금 그 다지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 곳은 날로 쓸쓸한 상태에 빠져 그 시설이 공연히 묵고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로 볼만한 것을 들은 바에 의하건대 무창포 해수욕장을 가려면 반드시 웅천역에 내려서 자동차로 약 20분 동안을(임금 왕복 35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를 취급하는 곳은 즉 웅천역이라는 바 해수욕기간에는 당역에 열차가 도착함에 따라 해수욕장행 승객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자동차를 발차시키기로 京南本社에서는 규정되어 있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역에서는 동 차표는 팔아놓고서도 만원이 되지 아니하면 차를 내지 아니하고 다음차 시간을 기다려 가라는 등 길이 위험하여서 차를 내지 못하겠다는 등 해수욕장행은 정기차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여도 관계치 아니한다는 등 별별 이유를 붙여서 수영객에 불편과 불만을 느끼게 함으로 일반 해수욕객들은 돈을 주면서도 이러한 창피를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손님이 차츰차츰 줄기 시작하여 요지음에는 거의 폐지 상태에 달하게 됨으로 웅천역과 무창포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됨으로 당 역장의 처치에 대하여 비난과 불평이 날로 높아간다고 한다.



무창포해수욕장(1948)



무창포해수욕장(1966)



무창포 해수욕장 중심부 (1985)



무창포해수욕장(1992)



무창포해수욕장(2003)

(3) 무창포해수욕장변영회의 공유수면 임대

1960년대 무창포해수욕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웅천면의 유지들로 구성된 무창포해수욕장 번영회가 만들어지고, 번영회는 무창포해수욕장은 물론, 관당리 최북단 장군배에서 소황리 해안(현 부사지구 간척지 제방)에 이르는 모든 해안의 공유수면을 해수욕장을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임대받았다. 당시 번영회장은 황창주씨였고, 부회장은 최명규, 임상순씨 등이었다. 모두 쟁쟁한 웅천의 유지들이었다.

이후 번영회가 가지고 있던 임대권은 해수욕장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일보 사장이고 한양대학 재단 이사장인 김연준씨에게 양도하여 한양대학교 소유가 되었다가 민간인들에게 불하되었다.

4) 서해관광개발주식회사의 그린비치호텔 건립과 분쟁

무창포해수욕장 공유수면 주변의 땅은 관당리 덕뫼 마을과 소황리 마을에 세거하던 무송윤씨 집안의 종종 땅이 많았다. 이에 착안한 윤세탁씨(웅천초 25회)가 1966년 서해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무창포에 그린비치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윤세탁씨가 쓴 ‘통한의 26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설계자가 공유수면 쪽에 호텔을 짓고, 뒤에 있는 무송윤씨 종중산에는 골프장을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무창포해수욕장 번영회 측으로부터 호텔부지 2820평을 30만원에 임대권을 양도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2층 골조를 세울 무렵, 건물의 앞부분이 임대된 토지 밖으로 나간 것이 발견되어 분쟁이 시작되었다. 분쟁은 법적으로 이어져, 양측에서 구속자가 나오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이후 윤세탁씨는 양도받은 임대권 및 건물 소유권 등을 모두 포기하였고, 이들 물건은 모두 한양대학교 재단으로 넘어갔다.

이후 그린비치호텔은 미 완성인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무창포해수욕장을 공영개발하면서 철거되었다.



건설이 중단된 그린비치호텔(사진 중앙, 1992년 항공사진)

5)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1) 일반현황

- 위 치 :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독산리 일원
- 관광지 지정 : 1986. 8. 20(관광특구지정 '97. 1. 18)
- 면 적 : 354,000.1m²
- 사 업 기 간 : 1988 ~ 2015
- 시 행 청 : 보령시(해수욕장경영사업소)
- 투자 계획 : 351,712백만원(공공 24,706, 민자 327,006)
- 사 업 내 용 : - 공공편익시설 78,342.7m² - 숙박시설 116,557.6m²
 - 상가시설 36,791.7m²
 - 운동오락시설 6,085.5m²
 - 휴양문화시설 9,415.1m²
 - 기타시설 106,807.5m²

① 추진경과

- 1979. 11. : 관광휴양지역 지정(면적 : 0.31km²) 건설부고시 제352호
- 1986. 8. : 관광지 지정(면적 : 0.31km²) 교통부고시 제29호
- 1988. 6. :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면적 : 0.2716km²) 교통부
- 1988. 6. :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면적 : 0.272km²) 충남도고시 제129호
- 1992. 9. : 관광지 조성사업 1차 변경승인(교통부 장관)
- 1993. 3. : 관광지 조성사업 2차 변경승인(교통부 장관)
- 1996. 10. : 관광지 조성사업 3차 변경승인 고시(보령시 고시 제1996-79호)
- 2003. 9.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충청남도)
- 2005. 9.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보령시)
- 2009. 4. :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충청남도)
- 2013. 11. :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충청남도)
- 2015. 9. :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충청남도)

② 개발의 필요성

- 국민의 소득증대와 여가시간확대 등의 생활여건 변화로 관광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변화하는 관광형태를 수용한 황해안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계획이 요구됨
- 본 계획대상지인 무창포해수욕장은 서해안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으로 바닷길이 열리는 혐상으로 전국관광객들의 발길을 재촉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관광객 급증

③ 개발 방향

○ 무창포지구는 기조성계획 승인된 시설로 기존계획 수용하고, 석대지구는 기조성 계획된 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진흥법에 의거 토지이용 수립

○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은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경관적,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구는 적극적 보전활동을 유도

○ 석대지구

- 기 조성계획(1998년)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계획적 토지이용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 유도

- 숙박시설 부지를 변경하고 기존에 불필요하게 조성된 부지를 조정함으로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④ 개발 효과

○ 서해안 최고의 해양휴양지 조성으로 급변하는 관광객 욕구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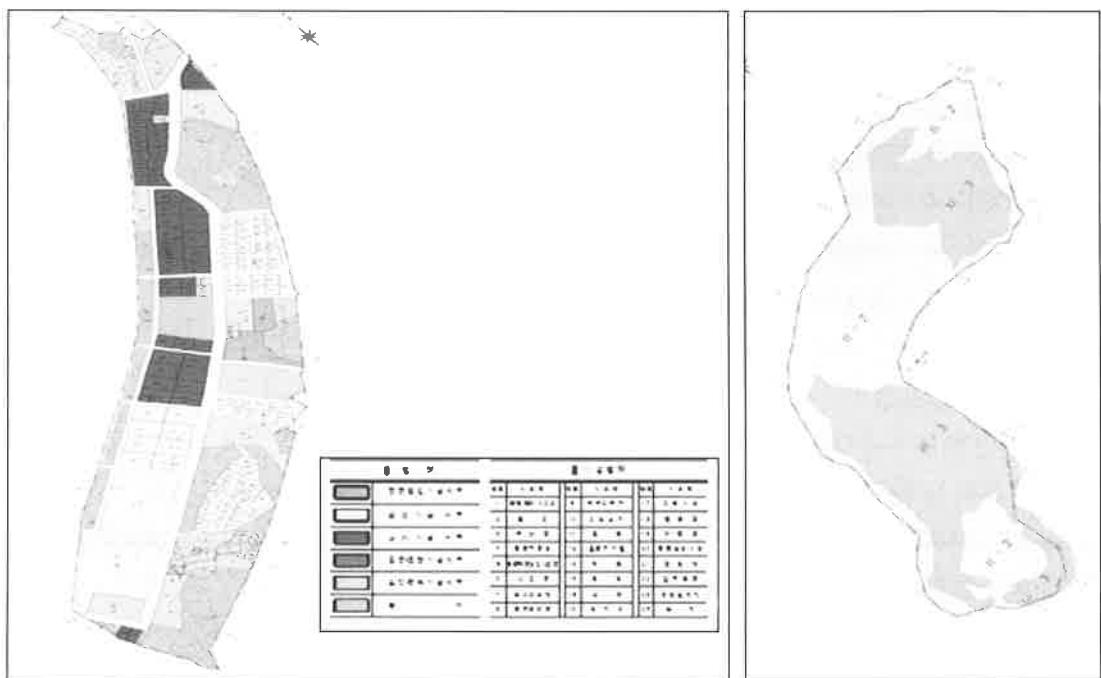
○ 지구내 특색있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제공

○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충족 및 서비스 제고

○ 해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

○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보령시 관광거점단지 역할

⑤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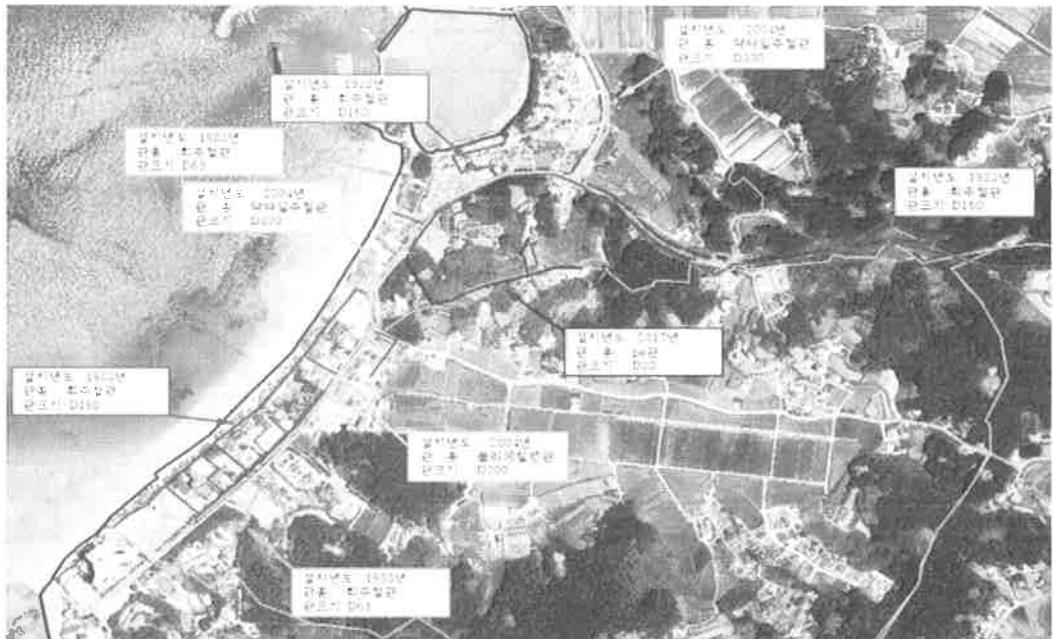
⑥ 관광지 조성사업 내역

구분	면적(m ²)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m ²)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공공편익시설지구	총계	354,000.1	-	354,000.1	177	증)1	178	246,597.0	증)559.0	247,156.0
	소계	79,635.3	감)1,292.6	78,342.7	10	-	10	3,080.3	-	3,080.3
	종합관리사무소	1,802.3	-	1,802.3	1	-	1	1,440.0	-	1,440.0
	도로	39,554.3	증)151.9	39,706.2	-	-	-	-	-	-
	주차장	25,043.4	감)1,206.0	23,837.4	-	-	-	-	-	-
	화장실	1,957.3	-	1,957.3	5	-	5	374.3	-	374.3
	인명구조선 격납고	-	-	-	1	-	1	100.0	-	100.0
	의용소방대	462.8	-	462.8	1	-	1	400.0	-	400.0
	오수처리장	9,163.5	감)238.5	8,925.0	2	-	2	766.0	-	766.0
숙박시설지구	하수도시설	851.7	-	851.7	-	-	-	-	-	-
	광장	800.0	-	800.0	-	-	-	-	-	-
	상가시설지구	36,889.0	감)97.3	36,791.7	49	-	49	43,916.0	-	43,916.0
	소계	116,557.6	-	116,557.6	108	-	108	195,714.1	-	195,714.1
	호텔	11,727.0	-	11,727.0	1	-	1	33,792.0	-	33,792.0
	콘도미니엄	61,200.7	-	61,200.7	1	-	1	110,224.1	-	110,224.1
	여관	11,895.2	-	11,895.2	8	-	8	23,790.0	-	23,790.0
	민박	17,855.3	-	17,855.3	48	-	48	17,796.0	-	17,796.0
	산장	8,926.0	-	8,926.0	28	-	28	7,140.0	-	7,140.0
운동·온수시설지구	방가로	4,953.4	-	4,953.4	22	-	22	2,972.0	-	2,972.0
	소계	6,085.5	-	6,085.5	2	-	2	210.0	-	210.0
	운동장	2,154.9	-	2,154.9	-	-	-	-	-	-
	유원시설	3,930.6	-	3,930.6	-	-	-	-	-	-
	매점 및 매표소	-	-	-	1	-	1	60.0	-	60.0
	관리실 및 화장실	-	-	-	1	-	1	150.0	-	150.0
	소계	10,382.1	감)967.0	9,415.1	4	증)1	5	3,192.6	증)559.0	3,751.6
	전망대	1,885.0	감)410.0	1,475.0	1	-	1	240.0	증)460.0	700.0
	야영장	7,066.3	감)557.0	6,509.3	-	증)1	1	-	증)99.0	99.0
휴양문화시설지구	취사장	-	-	-	1	-	1	36.0	-	36.0
	화장실	-	-	-	1	-	1	55.0	-	55.0
	공공휴양시설	1,430.8	-	1,430.8	1	-	1	2,861.6	-	2,861.6
	소계	104,450.6	증)2,356.9	106,807.5	4	-	4	484.0	-	484.0
	조경휴게지	10,279.1	-	10,279.1	-	-	-	-	-	-
	공중화장실 및 사워장	-	-	-	3	-	3	300.0	-	300.0
	샤워장	-	-	-	1	-	1	184.0	-	184.0
	잔디광장	6,467.0	-	6,467.0	-	-	-	-	-	-
	녹지	87,704.5	증)2,356.9	90,061.4	-	-	-	-	-	-

<자료 : 보령시>

(2) 상수도사업

무창포해수욕장은 국내의 유명 관광지이면서도 물 때문에 고생하였다. 상수도시설이 완비되기 전에는 마을의 샘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1988년 무창포해수욕장 지역의 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어 물 문제가 해결되었다. 관로는 다음과 같다.



무창포해수욕장 지역의 상수관로

(3)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어촌의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게 만들어 도시민의 방문을 촉진시키고,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므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2008년~2009년에 65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수행한 단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무창포항일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단위:천원)

순위	구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자담	
1	무창포항 공원조성	498,905	380,000	118,905		2008.09.04 착공 2009.12.09 준공
2	수산물센터 건립	1,700,000	600,000	600,000	500,000	2008.01.07 착공 2008.08.28 준공
3	항포구일주 도로정비	1,452,247	570,000	882,247		2008.03.27 착공 2009.05.25 준공
4	무지개다리 건설	2,336,648	1,450,000	886,648		2008.03.25 착공 2009.12.04 준공
5	독살어업 체험장	112,200		112,200		2008.02.04 착공 2008.04.08 준공
6	해상낚시터 조성	400,000		400,000		2008.04.01 착공 2008.08.01 준공
계		6,500,000	3,000,000	3,000,000	500,000	



수산물센터(2019.3.8.)



무지개다리(2019.3.8.)

(4) 경지정리 사업

관당리의 경지정리는 관당1리와 관당3리가 각각 따로 하였다. 관당1리 지역의 경지정리는 1989년도에 이루어졌고, 관당3리의 경지정리는 1992년에 이루어졌다. 관당3리는 들이 좁기 때문에 웅전을 구룡리의 경지정리와 함께 이루어졌다.

즉 관당3리인 간드리 지역과 구룡1리인 화망, 구룡2리인 장자울·마차울 마을이 함께 경지정리를 한 것이다.



경지정리 이전의 관당1리 들(1966년 항공사진)



경지정리 된 관당1리 들(2003)



경지정리 이전의 관당3리 들(1966년 항공사진)



경지정리 된 관당3리 등(2003)

(5) 유수물 양식장 건설 사업

충청남도의 허가로 관당리 북쪽 유수물에 만든 축제식 양식장이다. 이곳은 관당리 각 굴 마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는데 1990년대 말 주식회사 일우에서 양식장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독살이 있었고, 주민들이 맨손어업을 하던 곳이었다. 해삼, 낙지, 게, 조개 등이 많아 관당리 각 굴 주민들은 물론이고 멀리 구룡리 주민들까지도 드나들던 곳이었다.

현재는 보령양식 제179호로 허가되었다. 양식대상 어종은 해삼이다. 면적은 10ha이고, 면허기간은 2010.02.18.~2020.02.17.이다.



유수물 양식장의 제방(2019.3.22.)



유수물 양식장(2019.3.22.)

(6) 비체팰리스 건설

비체팰리스의 위치는 용천읍 독산리이지만, 무창포해수욕장에 위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비체팰리스는 해양리조트로써 2008년 7월 용평리조트에서 만든 용평리조트의 자회사이다.

대지면적은 14.400.7m²이며, 지하 1층 지상 13층으로 객실은 27형 85실, 36형 149실, 64형 1실, 101형 1실 등 총 236실을 갖추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넓은 연회장과 다양한 세미나실, 각종 물놀이 시설, 스파, 테라피, 한식당, 일식당, 퓨전식당 등을 갖추고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양 리조트이다.



비체팰리스(2019.3.17.)

(7)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

2013~2015년에 걸쳐 폐광기금 35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무창포해수욕장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먼 바다에서도 보이는 건물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주변의 육지와 바다를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다. 무창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 위 치 : 무창포해수욕장 전망대 시설지구 일원
- 사 업 량 : 전망타워 높이 30m, 홍보관 및 사무실 150m², 관광카페 및 전망층 350m²
- 사 업 비 : 3,500백만 원 (폐광기금)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무창포타워(2019.3.31.)



무창포타워에서 바라본 무창포항
(2019.3.17.)

13. 축 제

1)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1999년부터 (사)웅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시작된 축제로 7-8월 중 바닷물이 많이 나가는 사리 때를 택하여 행사를 한다. 2018년에는 제20회 축제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현대판 모세의 기적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슬로건으로 8월10일부터 3일간 무창포해수욕장 일원(본무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일정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프로그램(2018)

날짜/장소 행사시간	8. 10.(금)		8. 11.(토)		8. 12.(일)	
	상설무대	체험장	상설무대	체험장	상설무대	체험장
10:00~11:00				독살어업 체험		독살어업 체험
11:00~12:00				조개잡기 체험		조개잡기 체험
15:00~16:00				맨손고기 잡기체험		맨손고기 잡기체험
17:00~18:00			관광객레크 레이션		관광객레크 레이션	
18:00~18:30						
18:30~19:00	식전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19:30~21:00			ROCK 밴드공연			한여름밤의 음악회
21:30~22:00		불꽃놀이 레이저쇼				
22:00~22:30			불꽃놀이 레이저쇼		햇불어업 재현	
23:00~24:00						

구 분	프 르 그 램	내 용
1 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 축하공연 - 불꽃 및 레이저 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공연, 의식행사 - 첼리스트 김규식, 에스닉팝그룹락 공연 - 불꽃 및 레이저 쇼
2 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행사 - 레크레이션 - ROCK 이 있는 무창포 - 불꽃놀이 - 햇불어업재현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살어업 체험, 맨손고기잡기 체험, 조개잡기체험 - 관광객 대상 레크레이션 (업체 위탁) - 락 밴드공연 (부활 콘서트, 인디밴드 , 직장인밴드) - 불꽃 및 레이저 쇼 , 플라이 보드 - 햇불어업재현 체험
3 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행사 (2일차 동일) - 레크레이션 - 야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살어업 체험, 맨손고기잡기 체험, 조개잡기체험 - 관광객대상 레크레이션 (업체 위탁) - 한여름밤의 음악회



횃불어업 재현(2018)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2018.8.10.)

2) 무창포 주꾸미 · 도다리 축제

보령지방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여 3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무창포항에서 여는 축제이다. 2019년은 20회째로 3월 16일부터 시작되어 4월 14일에 끝났다.

평일에는 무창포 가요제, 품바공연 등을 즐기도록 하였고, 휴일에는 조개 빨리 까기, 주꾸미 먹물따기, 낚시로 고기잡기, 깜짝 경매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향토가수 초청 및 관광객 노래자랑도 열렸다.



무창포 주꾸미 도다리 축제(2019.3.23.)

3) 무창포 대하 · 전어 축제

무창포에서 가을철에 잡히는 대표적인 어종인 대하·전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여는 축제이다. 2019년에는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어촌계) 주관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4일간 열릴 예정이다.



4)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알리는 기념식이 매년 7월 초·중순에 열리고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관리요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2019년에는 7월 13일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먼저 무사고를 기원하는 수신제를 지내고, 식전행사로 러시아 민속춤 공연이 있었으며, 개회 행사로 식사·격사사·축사에 이어 개장선언을 하였고, 식후행사로 축하공연과 관광객 노래자랑 등이 있었다.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을 알리는 안내장(2019)

14. 공공기관

1) 관당초등학교

관당초등학교는 응천읍 죽청리 121-4에 위치하지만 원래 관당리 학생들이 대천리에 있는 응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 그래서 죽청리에 있지만 학교 이름을 '관당초등학교'라고 하였다. 학구는 관당리와 죽청리 일부지역, 구룡리 일부지역으로 하였으나 근래 황교초등학교가 폐교되어 황교리, 독산리, 소황리 일원까지 학구로 하고 있다.

관당초등학교의 졸업생은 2018학년도까지 총 1390명이 배출되었는데, 1973학년도에 78명으로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점차 줄어들어 2016학년도 이후 10명 이하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총 학생 수도 2019학년도에는 초등학생 34명, 유치원생 9명에 불과하다.

1969년 관당분교장이 만들어지고, 1973년 관당초등학교가 개교되기까지 황숙주 선생님의 노고가 컸다. 황숙주선생님의 노고를 기리는 비가 교문 앞에 있다. 그리고 개교 때부터 정년퇴임까지 관당초등학교의 살림을 맡아하시던 백광균님의 비도 교문 앞에 서 있다.

1988년 7월 30일에는 노태우대통령이 무창포를 방문하는 길에 헬기로 방문하였고, 피아노를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황교초등학교와 통합되어 황교초등학교에 있던 前訓導金堤元功績碑, 崔燉穆先生功績碑, 前師親會長崔昌圭記念碑 등을 옮겨다 세웠다.



노태우 대통령 방문(1988. 7. 30)

(1) 연혁

- 1969. 10. 01 : 응천국민학교 관당분교장
- 1973. 05. 10 : 관당초등학교 개교
- 1993. 03. 01 : 황교초등학교와 통합
- 2001. 01. 01 : 벽지학교 해제, 농어촌 학교 지정
- 2015. 03. 01 :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교과서 정책연구학교 운영(2년)
- 2017. 03. 01 :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행복 나눔준비교 운영
- 2018. 03. 01 :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운영(~2021)
- 2019. 01. 04 : 제46회 졸업(총 1390명)



관당초등학교 앞의 비석(2019.3.19)

(2) 역대 교장 명단

대수	성명	부임일	대수	성명	부임일	대수	성명	부임일
1	김창환	1973.03.01	2	조성준	1977.04.01	3	정계동	1979.03.01
4	김창원	1980.09.01	5	송영태	1982.03.01	6	윤응원	1985.03.01
7	김의제	1987.09.01	8	김영상	1989.03.01	9	김완배	1991.11.01
10	이호영	1994.09.16	11	신영호	1998.09.01	12	박성업	2000.09.01
13	김훈집	2002.09.01	14	김덕기	2004.03.01	15	조성재	2007.03.01
16	김동철	2010.03.01	17	조민행	2011.09.01	18	김기화	2013.03.01
19	윤여철	2014.03.01	20	송수영	2015.03.01	21	이관복	2019.03.01

(3) 교훈: 바르게 슬기롭게

(4) 교가

와지의 옛 터전 곱게 다듬어
슬기로운 눈망울이 의좋게 모여
황해의 푸른 물결 우리의 기상
쌓아온 보람들이 빛나는 전당
내일을 바라보며 꿈을 키운다
고장의 횃불이라 우리 관당교

(5) 학급 및 학생 현황(2019)

학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유치원
학생수	남	2	3	1	3	6	4	19	5
	여	3	2	4	3	2	1	15	4
계		5	5	5	6	8	5	34	9

(6) 교직원 현황(2019)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실장	주무	영양	조리	행정사	돌봄	계
정원	1	1	9	1	2	1	2	1	1	19

(7) 연도별 졸업생 현황(총 1390명)

회수	학년도	졸업생수			회수	학년도	졸업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1	1973	43	35	78	24	1996	15	7	22
2	1974	33	34	67	25	1997	12	6	18
3	1975	45	31	76	26	1998	6	10	16
4	1976	42	30	72	27	1999	9	11	20
5	1977	32	39	71	28	2000	7	8	15
6	1978	28	27	55	29	2001	8	15	23
7	1979	40	29	69	30	2002	10	10	20
8	1980	26	19	45	31	2003	7	9	16
9	1981	29	24	53	32	2004	8	3	11
10	1982	25	18	43	33	2005	8	9	17
11	1983	37	30	67	34	2006	9	9	18
12	1984	34	26	60	35	2007	7	6	13
13	1985	9	11	20	36	2008	15	3	18
14	1986	22	15	37	37	2009	7	5	12
15	1987	23	16	39	38	2010	4	7	11
16	1988	12	17	29	39	2011	7	2	9
17	1989	13	8	21	40	2012	5	6	11
18	1990	10	14	24	41	2013	6	6	12
19	1991	10	8	18	42	2014	6	5	11
20	1992	12	7	19	43	2015	5	5	10
21	1993	24	13	37	44	2016	4	1	5
22	1994	15	22	37	45	2017	5	2	7
23	1995	21	11	32	46	2018	1	5	6

2)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의 수산기술발전과 어촌진등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로 웅천읍 관당리 당재(갓골큰길 162)에 있다.

(1) 연혁

- 1987. 12. 08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 개장
- 2006. 04. 20 충청남도 수산연구소 개소(내수면개발시험장 통합)
- 2009. 05.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지방이양(국가기관→도 사업소)
- 2017. 01. 01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수산관리소 통합)

(2) 기구: 2과 2센터 1사무소

수산자원연구소

- 연구개발과(보령시 웅천읍): 행정지원, 생산연구, 갯벌생태
- 기술보급과(보령시 신륵동): 인력육성, 기술보급, 귀어학교
- 민물고기 센터(논산시 연산면): 자원관리, 시험개발
- 수산물 안전성 센터(서산시 잠홍동): 수산물안전, 질병관리

(3) 그 동안의 업무성과

① 시험·연구 개발

- 새로운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안정적 양식생산 도모)
- 품종개량 및 사료개발 연구(양식경제성 향상)
- 친환경 양식 연구(에너지 절감양식 실현)
- 양식어종의 고부가가치 2차 가공품 생산 연구(유통 다변화)
- 멸종위기 어종 종 복원 및 품종보전 연구(환경변화에 대응)

② 수산자원 조성 및 갯벌, 하천 생태조사.

- 수산자원 조성(지속생산 가능기반 구축)
- 도내 갯벌 및 주요하천 생태환경 조사

③ 기술보급

- 현장 실용화 기술보급
- 어촌 후계인력 양성
- 자율관리어업 육성(11개소)
- 해·어황 모니터링 및 생산기술 지도

- ④ 수산물 생산 안정적 지원
 - 지역생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수산생물 질병 방역체계 구축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2019.3.8.)

(4) 진행중인 연구·사업

- ① 수산 매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연구
 - 뱀장어 인공종자생산 기술개발
 - 도내 토산종 우량 유전자 분석·보존
 - 슈퍼황복 종간교배 연구 및 산업화
 - 서해안 대구 수정란 방류
 - ICT 스마트 팜 시범사업
- ② 현안과 이슈 등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 기후변화 대응 바리과 어류 및 큰징거미새우 연구
 - 김 신품종 개발 및 황백화 모니터링

- 흰다리새우 담수양식 시험
 - 충남 내수면 고유종 보존 및 복원
 - 천수만해역 점농어 담수 시험양식
- ③ 어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연구
- 갯벌패류 양식장 모니터링
 - 서해안 패류 종자생산 시험
 - 천수만 새조개 자원회복 연구
 - 주요 갯벌 및 하천 생태환경 조사
 - 웅어 산업화 연구
 - 서해안 말백합 생산기술 개발
 - 물벼룩 고밀도 연속배양 표준화기술 개발
 - 양식산 동자개 친어육성시험
 - 양식산 메기 열성화 방지
 - 지역 특산어류 방류로 자원조성
- ④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
- 미래 수산업 경영인 육성
 -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전문기술 교육
 -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및 귀어학교 운영
 - 해양환경 관측 및 적조, 해파리 예찰
- ⑤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검사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 지역생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수산생물질병 방역체계 구축
 - 유해생물 모니터링 및 구제약품 지원
 - 수산생물 병성감정 기관운영
 - 수산생물 이동병원(진료소 운영) 운영

15. 마을의 기능체

1) 식당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웅천읍에 있는 63곳의 식당 중, 관당리는 30 곳이고, 대창리 26, 평리1, 죽청리1, 수부리1, 소황리1, 성동리1, 독산리1 대천리1 곳이다. 식당도 읍의 중심지인 대창리보다 무창포가 4곳 더 많다. 관당리에 있는 식당은 다음과 같다.

순	상 호	전화 번호	주 소
1	무창포 해변횟집	936-3764	보령시 웅천읍 797-21
2	지영이네생고기칼국수	935-0703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8-45
3	만석호횟집	936-358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8-4
4	한송고향목장가든	932-5911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6
5	어심	936-5712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8-3
6	바닷길횟집	936-721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8-2
7	오복식당	936-344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339
8	재경호집	936-345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7
9	서해회타운3호점	936-3962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57
10	무창포관광호횟집	936-6622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57
11	대해로횟집	936-3394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8-1
12	햇빛촌횟집	931-3446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18
13	항도회집	936-3509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45
14	전주횟집	935-171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5-1
15	등대횟집	936-3658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133
16	무창포신비회타운	935-177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57
17	군산횟집	936-9333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19
18	전라도먹거리	935-7599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0-17
19	만선회집	935-994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5
20	시골집옛그맛	936-9086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8-16
21	무창포집	936-340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3-2
22	청룡횟집	936-0985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17
23	야경횟집	936-3518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207-1
24	바다와어부	936-3485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9
25	신황금어장	936-6914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5
26	유성횟집	935-8818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14
27	신무창포맛집	935-8875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0-19
28	신창횟집	936-3504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9
29	박부자집	936-336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8-1
30	바닷길식당	932-317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2) 숙박업소

웅천읍에 있는 35개의 숙박업소 중 관당리에 위치한 것이 20곳, 대창리에 위치한 것이 6곳, 독산리에 위치한 것이 8곳, 그리고 소황리에 1곳이다. 이중 독산리에 있는 8곳도 대부분 관당리에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웅천읍에 있는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관당리나, 인접한 독산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웅천읍의 관광기능은 모두 관당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웅천읍 관당리에 있는 숙박업소는 다음과 같다.

순	상 호	전화 번호	주 소
1	노을언덕펜션	935-7702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653-2
2	웨이브펜션	935-126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79-5
3	노을빛바다펜션	936-442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2-1
4	여행스케치펜션	936-668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10
5	무창포펜션	935-140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797-21
6	바람막이펜션	936-0288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1-11
7	로주망펜션	936-7636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1-14
8	자연민박	936-3359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1-2
9	새서울민박	935-886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1-4
10	은혜슈퍼민박	936-3505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05-6
11	해오름펜션	936-3546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20-7
12	씨사이드호텔굿스테이	936-8626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22-3
13	시사이드여관	936-8776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22-4
14	무창포비치모텔	936-0319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22-7
15	바다노을펜션	936-420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29-5
16	21세기펜션	935-500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32-11
17	바다향기숙박	935-503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32-2
18	충남민박	936-058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32-3
19	영광민박	935-2106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32-6
20	서해안민박	935-1553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88-26
21	영빈장여관	934-2918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353-18
22	삼정장여관	934-2380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358-2
23	로맨스모텔	932-6077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358-5
24	청수장	933-2288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682
25	소진레저콘도	931-6988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3-9
26	한일파크	933-3050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5-5

27	삼도정	936-6010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63-3
28	수원민박	936-5210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66-27
29	홀뫼전망대민박	935-7120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66-8
30	독산비치민박	936-2738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74-3
31	홀뫼민박	936-3591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75-2
32	선진매점민박	936-3594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78
33	무창포해수욕장즐거운민박	936-2400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75-55
34	청정횟집펜션	936-0135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784-7
35	장안민박	936-4248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60-3

● 참고문헌

- 여지도서
- 해동지도
- 지방지도(1872)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 광산김씨대종회, 2000, 광산김씨병자대보(1876년간 영인본)
- 보령시지편찬위원회, 2010, 보령시지.
- (주)세일종합기술공사·(주)한국종합기술, 2018, 무창포항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서.
- 충청남도, 1952, 일정시피징용자와 귀환·미귀환자 명부(충청남도)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2000, 보령 관당리유적.
- 황의천, 2011, 일제시기 신문기사로 본 보령발전 운동, 보령문화 제20집.
- 황의호, 1998, 보령의 지명, 보령시.
- 황의호, 2000, 보령의 고인돌, 대천문화원.
- 황의호, 2016, 보령의 상여, 보령시·보령문화원.
- 황의호·황의천, 2000, 보령 토진곳 목장성 연구, 보령문화 9집.
- 황의호 외, 2004, 보령의 봉수대, 대천문화원.

● 도움말 주신 분

- 김기섭(1948)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632번지
- 김동수(1939)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각굴
- 김재섭(1952)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654-2
- 김정운(1934)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삼정굴
- 김찬경(1925)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
- 김혜경(196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간드리
- 남기택(1944)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관당리 각굴에서 이주
- 남상범(1934) 보령시 웅천읍 관당3리
- 라민호(1934) 충남 천안시 거주, 무창포에서 이주
- 라산균(1953) 서울 거주, 관당리 무창포에서 이주.
- 라은호(193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 박종옥(1935) 보령시 대천동 소미, 관당리 각굴에서 이주
- 윤태신(1954) 경기도 남양주시, 안덕뫼에서 이주
- 윤태출(1954)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관당리 덕매에서 이주.
- 윤홍근(1930)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32번지
- 이봉순(1935)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
- 이종길(1970)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 2길 46
- 이종식(1929)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411번지
- 임홍빈(1947)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 정성기(1947)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 황의병(1930)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 황의설(1937)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무성굴

▣ 필자 소개

- 보령시 응천읍 구룡리 곶뿌래 출생(1953)
- 응천초, 응천중, 주산농고 졸업
- 공주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동 교육대학원 수료.
- 보령시 관내 중등교사, 교감, 교장.
- 보령문화원 원장(현)
- 만든 책
 - 보령의 地名(1998, 보령시)
 - 보령의 고인돌(2000, 대천문화원)
 - 보령의 洞祭(2002, 대천문화원)
 - 보령의 烽燧臺(공저, 2004, 대천문화원)
 - 보령의 水利楔(2007, 대천문화원)
 - 보령의 金石文(공저, 2010, 대천문화원)
 - 保寧市誌(편저, 2010, 보령시)
 - 보령 石공업 300년(2012, 대천문화원)
 - 효자도리(2013, 대천문화원)
 - 보령의 상여(喪輿)(2016, 보령시·보령문화원)
 - 보령 구룡리(2017, 보령시)
 - 충청수영(공저, 2018, 보령문화원, 충남문화원연합회)

- 조사·집필 : 황 의 호
- 교정 : 이 안석
- 행정지원 : 이 병윤 (문화새마을과 과장)
신영옥 (문화예술 팀장)

보령 관당리

-
- 인쇄·발행 : 2019년 11월 일
 - 연구 기관 : 보령문화원
 - 발행처 : 보령문화원
 - 인쇄소 : 명문당인쇄소
-

* 본 보고서의 판권 소유는 보령시와 보령문화원에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발행처의 동의 없이는 복제나 전재가 불가능함



비매품/무료

03090

9 7911196 426248
ISBN 979-11-964262-4-8

